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2025. 08.



인천광역시

제 출 문

인천광역시청 귀하

이 보고서를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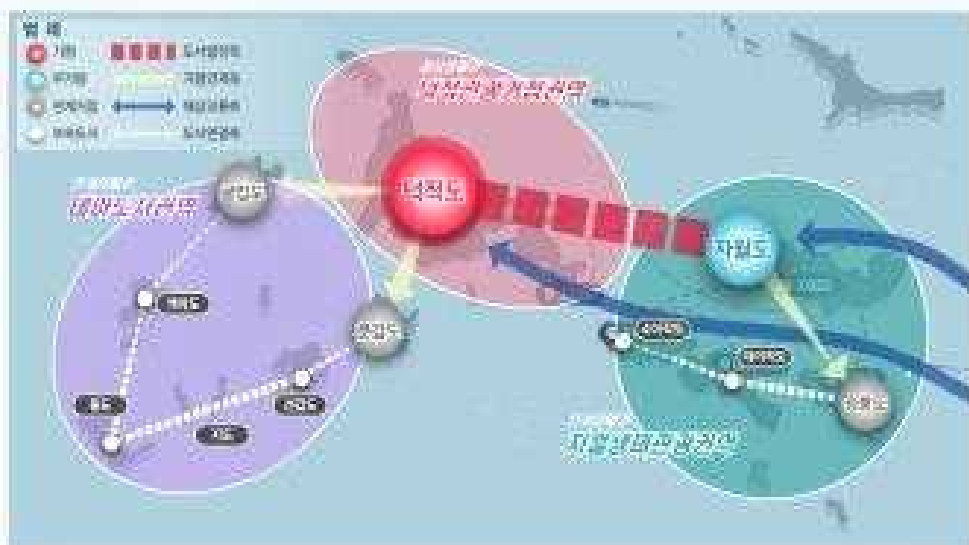
2025년 8월

(주)플랜이슈 대표이사 김진성

본 보고서 내용은 (주)플랜이슈가 수행한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결과물로서 사전 승인없이 무단전재·역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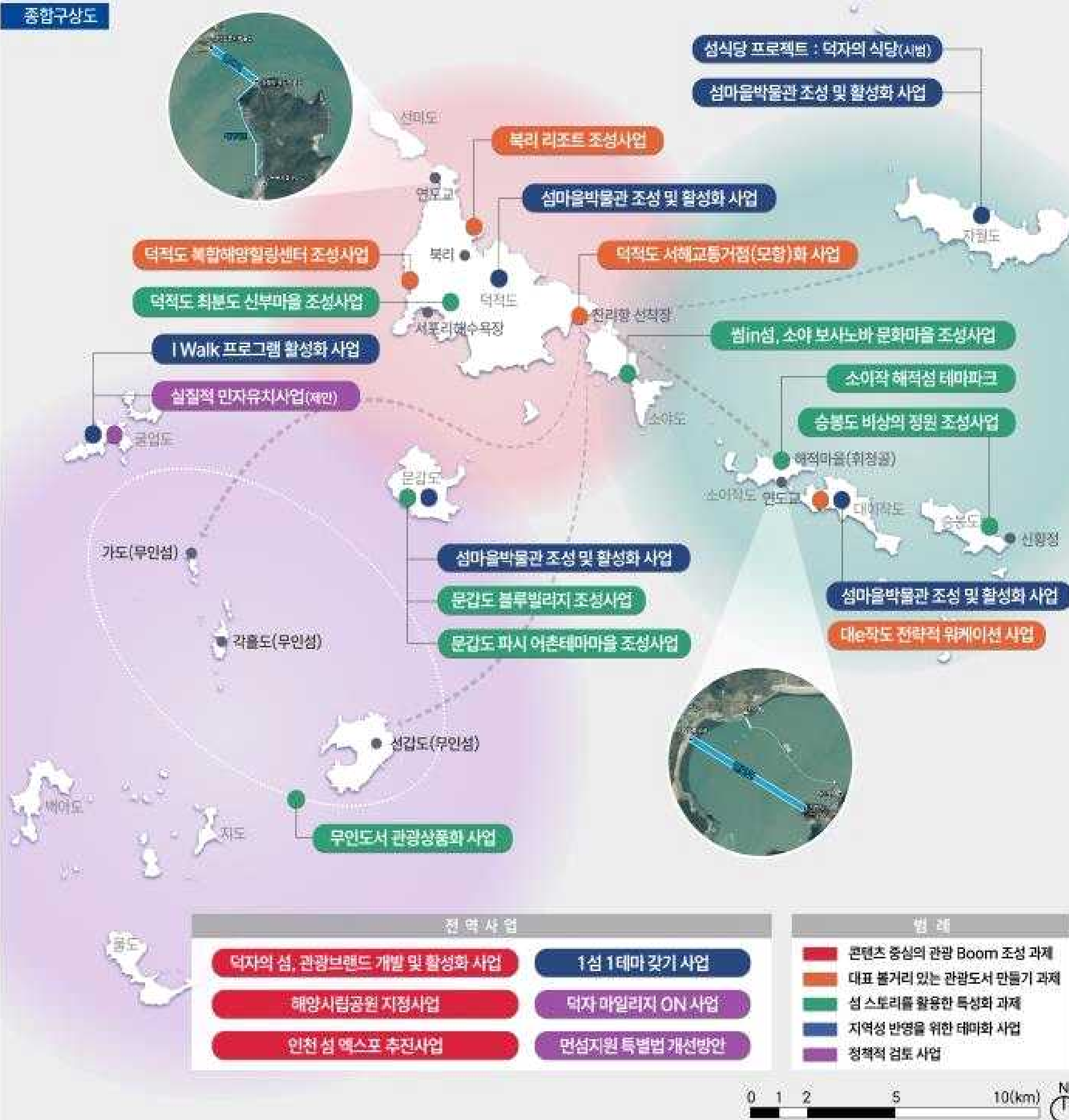
Global Top 10 City, 인천의

발전을 위한 덕적 관광거점화



세부사업

권역	사업명
덕적관광거점권역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덕적도 서해교통거점(모항)화 사업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썸인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덕적도 최분도 신부마을 조성사업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덕적도)
자월생태관광권역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자월도/대이작도)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시범)
테마도서권역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문갑도)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실질적 민자유치사업(제안)



I.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3
1.1 과업 배경	3
1.2 과업 목적	4
2. 과업의 범위	5
2.1 시간적 범위	5
2.2 내용적 범위	5
2.3 공간적 범위	6
3. 과업의 추진체계	7
3.1 추진방법 및 절차	7
3.2 추진경위	8

II. 현황 및 여건분석

1. 대내외 여건 분석	11
1.1 STEEP 분석	11
1.2 관광시장 및 동향 분석	17
1.3 섬 관광 여건 분석	23
2. 일반현황 분석	27
2.1 입지환경	27
2.2 자연환경	30
2.3 인문·사회환경	32
3. 관광현황 분석	37
3.1 관광자원 현황	37
3.2 관광객 현황	44
4. 집행환경 분석	46
4.1 상위계획 검토	46
4.2 관련 법규 검토	57
5. 유사사례 분석	64
5.1 사례분석 개요	64
5.2 사례분석 결과	65
6.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	69
6.1 관광객 설문조사	69
6.2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75

7. 덕적·자월군도 수용력 검토	78
7.1 관광수요 예측	78
7.2 관광수용력 검토	80

III.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종합분석	85
1.1 강점(Strengths)	85
1.2 약점(Weaknesses)	86
1.3 기회(Opportunities)	87
1.4 위협(Threats)	88
2. 계획과제 도출	89

IV. 특화발전방안 기본구상

1. 개발비전 및 목표	93
1.1 관광비전 설정	93
1.2 개발 목표	98
2. 관광개발공간구상	101
2.1 공간구상의 전제	101
2.2 공간체계 구상	102
2.3 권역별 발전방향	104

V. 특화발전전략 사업

1.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107
1.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107
1.2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112
1.3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118
2.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123
2.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형)화 사업	123
2.2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128
2.3 복리 리조트 조성사업	133
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138
2.5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143

3.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147
3.1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147
3.2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152
3.3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157
3.4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62
3.5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166
3.6 승봉도 비상익 정원 조성사업	171
4.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176
4.1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176
4.2 1섬 1테마 갖기 사업	181
4.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185
4.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190
5. 정책적 검토사업	195
5.1 덕자 마일리지 ON	195
5.2 실질적인 민자유치사업(제안)	200
5.3 먼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209

VI. 사업화계획

1. 사업추진계획	215
1.1 기본방향	215
1.2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216
1.3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218
2. 투자계획	219
2.1 총투자비	219
2.2 연차별 투자비	220
3. 자원조달방안	221
3.1 공공자원 조달방안	221
3.2 민간자원 조달방안	224
4. 결론 및 제언	225
4.1 파급효과	225
4.2 결론 및 제언	227

표 목차

〈표 1-1〉 내용적 범위	5
〈표 1-2〉 대상지 면적	6
〈표 1-3〉 주요 추진경위	8
〈표 2-1〉 국내여행 총량	18
〈표 2-2〉 국내여행 동반행태	19
〈표 2-3〉 2023-2025 국내관광 트렌드 “New Era Trip”	21
〈표 2-4〉 2025 국내관광 트렌드 ‘SPECTRUM’	22
〈표 2-5〉 국내 섬 관광행태 및 대표 도서	26
〈표 2-6〉 덕적·자월군도 여항 현황	28
〈표 2-7〉 표고 및 경사도 분석	30
〈표 2-8〉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31
〈표 2-9〉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31
〈표 2-10〉 웅진군 연도별 및 계층별 인구 추이	32
〈표 2-11〉 덕적면 도서별 인구 현황	33
〈표 2-12〉 자월면 도서별 인구 현황	33
〈표 2-13〉 웅진군 사업체 및 종사자수	34
〈표 2-14〉 웅진군 분야별 세출현황	35
〈표 2-15〉 웅진군 재정현황	35
〈표 2-16〉 도서별 주민조직 현황	36
〈표 2-17〉 도서별 자연자원 현황	38
〈표 2-18〉 도서별 역사자원 현황	40
〈표 2-19〉 도서별 관광자원 현황	41
〈표 2-20〉 도서별 인물자원 현황	42
〈표 2-21〉 도서별 관광편의시설 현황	43
〈표 2-22〉 덕적·자월면 연간 관광객 수 추이	44
〈표 2-23〉 2024년 덕적·자월군도 도서별 관광객수	45
〈표 2-24〉 부처별 관련 계획	46
〈표 2-25〉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48
〈표 2-26〉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 웅진생활권 주요내용	49
〈표 2-27〉 Global Top10 City INCHEON 추진전략	50
〈표 2-28〉 인천 섬 브랜딩 전략(안)	51
〈표 2-29〉 인천 섬 주요사업 현황	52
〈표 2-30〉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53
〈표 2-31〉 웅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사업추진 단계	54
〈표 2-32〉 웅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세부목표 및 전략사업	54
〈표 2-33〉 웅진군 민선8기 공약 및 세부과제(교통·관광부문)	55
〈표 2-34〉 웅진군 섬 주요사업(교통·관광부문)	56
〈표 2-35〉 섬 관련 주요 법률	57
〈표 2-36〉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60
〈표 2-37〉 관광진흥법	61

〈표 2-38〉 자연공원법	62
〈표 2-3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3
〈표 2-40〉 사례 대상지 개요	64
〈표 2-41〉 관광객 설문조사 개요	69
〈표 2-42〉 인구통계학적 특성(N=200)	70
〈표 2-43〉 방문경험(N=200)	71
〈표 2-44〉 방문행태(N=200)	71
〈표 2-45〉 방문목적 및 관광이미지	72
〈표 2-46〉 관광이미지	73
〈표 2-47〉 관광 만족도	73
〈표 2-48〉 불편 사항	74
〈표 2-49〉 개선사항	74
〈표 2-50〉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75
〈표 2-51〉 시계열모형에 의한 수요예측	79
〈표 2-52〉 시나리오별 예측값 비교	79
〈표 2-53〉 도서별 계획일 이용객 수	81
〈표 2-54〉 도서별 동시체재 이용객 수	81
〈표 2-55〉 덕적권 도서별 관광수용력	82
〈표 2-56〉 자월권 도서별 관광수용력	82
〈표 4-1〉 콘셉트 모티브 사례	95
〈표 4-2〉 전략별 추진사업	97
〈표 4-3〉 단계별 타깃 설정	100
〈표 4-4〉 덕적자월권 공간체계	103
〈표 5-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주요 내용	109
〈표 5-2〉 관광브랜드 통합 홍보마케팅 주요 내용	110
〈표 5-3〉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사업비	111
〈표 5-4〉 자연공원법상 시립공원 지정 절차	114
〈표 5-5〉 국립공원 지정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	115
〈표 5-6〉 해양생태권역화 단계별 로드맵	116
〈표 5-7〉 해양시립공원 지정 관련 사업비	117
〈표 5-8〉 섬 엑스포 유치기반 조성방안	120
〈표 5-9〉 섬 엑스포 유치 단계별 로드맵(안)	121
〈표 5-10〉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사업비	121
〈표 5-11〉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문제점 진단	122
〈표 5-12〉 연안여객터미널 및 내부 교통 인프라 조성 주요 내용	125
〈표 5-13〉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주요 내용	126
〈표 5-14〉 덕적·자월군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비	127
〈표 5-15〉 덕적도 해양치유자원 및 효능	129
〈표 5-16〉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주요 내용	130

〈표 5-17〉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주요 내용	131
〈표 5-18〉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사업비	132
〈표 5-19〉 보물섬 리조트 조성사업 주요 내용	135
〈표 5-20〉 북리 마리나 조성사업 주요 내용	136
〈표 5-21〉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사업비	137
〈표 5-22〉 워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주요 내용	140
〈표 5-23〉 대e작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주요 내용	141
〈표 5-24〉 대e작도 전략적 워케이션 사업 사업비	142
〈표 5-25〉 무인도서 관광투어 상품 개발 운영계획(안)	145
〈표 5-26〉 무인도서 상품화 사업비	146
〈표 5-27〉 최분도 신부 관련 스토리자원(요약)	148
〈표 5-28〉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 개요	149
〈표 5-29〉 최분도 신부마을 조성 사업비	151
〈표 5-30〉 이색 경관연출 사업 주요 내용	154
〈표 5-31〉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 존 사업 주요 내용	155
〈표 5-32〉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156
〈표 5-33〉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 주요 내용	159
〈표 5-34〉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주요 내용	160
〈표 5-35〉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 사업비	161
〈표 5-36〉 어촌전통마을 조성사업 내용	164
〈표 5-37〉 어촌전통마을 프로그램 내용	164
〈표 5-38〉 문갑도 파시 어촌전통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165
〈표 5-39〉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요 내용	168
〈표 5-40〉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비	170
〈표 5-41〉 비상외 정원 조성사업 주요 내용	173
〈표 5-42〉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사업 주요 내용	174
〈표 5-43〉 승봉도 비상외 정원 조성사업 사업비	175
〈표 5-44〉 섬마을박물관 리뉴얼(안)	178
〈표 5-45〉 섬마을박물관 2차 조성방안	179
〈표 5-46〉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사업비	180
〈표 5-47〉 1섬 1테마 발굴(안)	183
〈표 5-48〉 12달 섬마을 축제 개발(안)	184
〈표 5-49〉 1섬 1테마 갖기 사업 사업비	184
〈표 5-50〉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안)	187
〈표 5-51〉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예시	188
〈표 5-52〉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추진과정	188
〈표 5-5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밥상 사업비	189
〈표 5-54〉 웅진군 숲길 현황	191
〈표 5-55〉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안)	192
〈표 5-56〉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193
〈표 5-57〉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업비	194

〈표 5-58〉 i-바다패스 제도적 정비(안)	197
〈표 5-59〉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운영방안	198
〈표 5-60〉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사업비	199
〈표 5-61〉 실질적 민자유치사업 사업비	203
〈표 5-62〉 신안군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 일반현황	206
〈표 5-63〉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 개발 및 운영현황	207
〈표 5-64〉 지자체별 국토외곽 먼섬 지정현황(2025)	209
〈표 5-65〉 국토외곽 먼섬 세부지정에 따른 지정섬 현황(2025)	210
〈표 6-1〉 단계별 기본방향 및 목표	216
〈표 6-2〉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218
〈표 6-3〉 총투자 계획	219
〈표 6-4〉 연차별 투자계획	220
〈표 6-5〉 공공재원 종류	221
〈표 6-6〉 공적자금 종류	222
〈표 6-7〉 국고보조사업 종류	223
〈표 6-8〉 민간투자 유치방식	224
〈표 6-9〉 부문별 유발계수	225
〈표 6-10〉 인천광역시 내·외부 투자 유발효과	225

그림 목차

[그림 1-1] 과업의 목적	4
[그림 1-2] 공간적 범위	6
[그림 1-3] 추진절차	7
[그림 1-4] 주요 추진경위	8
[그림 2-1] STEEP 분석 개요	11
[그림 2-2]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기본계획 주요 내용	13
[그림 2-3] 연도별 서비스업 매출액 및 사업체 수	14
[그림 2-4] 수도권 거주인구 현황	16
[그림 2-5] 글로벌 관광 트렌드	17
[그림 2-6] 국내여행 주요 관광활동	19
[그림 2-7] 방한 외래관광객 수 추이	20
[그림 2-8] 유럽 및 태평양 지역 섬 관광개발 사례	24
[그림 2-9] 일본 섬 관광개발 사례	24
[그림 2-10] 국내 섬 방문율 및 방문목적	25
[그림 2-11] 국내 섬 방문 시 만족사항 및 불만족사항	26
[그림 2-12] 덕적·자월군도 입지 및 면적	27
[그림 2-13] 덕적·자월군도 항로 현황 및 소요시간	29
[그림 2-14] 종합 관광자원도	37
[그림 2-15] 주요 자연자원 현황	39
[그림 2-16] 주요 역사자원 현황	40
[그림 2-17] 주요 체험자원 현황	41
[그림 2-18] 주요 관광·편의시설 현황	43
[그림 2-19] 2024년 덕적·자월면 월별 관광객 수	44
[그림 2-20] 웅진생활권 구상도	49
[그림 2-21] 인천 섬 브랜드 전략비전(안)	51
[그림 2-22] 자란도(하트섬) 현황	65
[그림 2-23] 박지도(퍼플섬) 현황	66
[그림 2-24] 마테이라섬 현황	67
[그림 2-25] 몰타공화국 현황	68
[그림 2-26]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현황	75
[그림 2-27] 관광수요 예측 절차	78
[그림 2-28] 관광수용력 검토 절차	80
[그림 3-1] SWOT 분석	88
[그림 4-1] 덕적·자월군도 관광개발 비전	94
[그림 4-2] 콘셉트 모티브 이미지	95
[그림 4-3] 포지셔닝 설정	99
[그림 4-4] 생활권 및 거점간 연계체계	101
[그림 4-5] 덕적·자월 관광권역 공간구상도	103

[그림 5-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108
[그림 5-2] 인천광역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108
[그림 5-3]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예시	109
[그림 5-4] 관광브랜드 통합 홍보마케팅 예시	110
[그림 5-5]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기본방향	113
[그림 5-6] 해양시립공원 지정(안)	114
[그림 5-7] 시립 및 국립공원 지정 절차	115
[그림 5-8]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기본방향	119
[그림 5-9] 골든하버(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현황	119
[그림 5-10] 섬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안)	120
[그림 5-1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기본방향	124
[그림 5-12] 인천 해양교통 사업 추진현황	124
[그림 5-13] 연안여객터미널 및 내부 교통 인프라 조성 예시	125
[그림 5-14]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예시	126
[그림 5-15] 덕적도 복합 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기본방향	129
[그림 5-16] 서포리 관광지 내 사업대상지 현황	129
[그림 5-17]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예시	130
[그림 5-18]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예시	131
[그림 5-19]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기본방향	134
[그림 5-20] 선미도 관광단지 계획 및 북리 관광자원 현황	134
[그림 5-21] 보물섬 리조트 조성사업 예시	135
[그림 5-22] 북리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예시	136
[그림 5-23]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기본방향	138
[그림 5-24] 섬 위케이션 현황 및 e스포츠 선수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 현황	139
[그림 5-25]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예시	140
[그림 5-26]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예시	141
[그림 5-27]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기본방향	143
[그림 5-28]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대상지 현황	144
[그림 5-29] 무인도서 관광투어 상품 개발 이미지	145
[그림 5-30]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	147
[그림 5-31] 최분도 신부 콘텐츠 이미지	148
[그림 5-32] 서포리마을 관련 자원	149
[그림 5-33] 천주교 콘텐츠 오브제 이미지	150
[그림 5-34] 진리공소 주변 개선사업 이미지	150
[그림 5-35]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	153
[그림 5-36] 해양관광 트렌드와 소야도 관광활성화 추진 현황	153
[그림 5-37] 이색 경관연출 사업 예시	154
[그림 5-38]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 존 사업 예시	155
[그림 5-39]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기본방향	158
[그림 5-40] 문갑도 마을 현황	158
[그림 5-41]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 예시	159

[그림 5-42]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시	160
[그림 5-43]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	162
[그림 5-44] 문갑도 콘텐츠 이미지	163
[그림 5-45] 어촌전통마을 이미지	164
[그림 5-46]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방향	167
[그림 5-47] 섬 테마 관광 활성화 및 섬 특성화 계획 추진 현황	167
[그림 5-48]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시	169
[그림 5-49]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기본방향	172
[그림 5-50] 인천·웅진의 정원만들기 및 승봉도 해안 현황	172
[그림 5-51]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대상 식재요소	173
[그림 5-52]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예시	174
[그림 5-53]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사업 예시	174
[그림 5-54]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177
[그림 5-55]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현황	177
[그림 5-56] 섬마을박물관 도입시설 이미지	178
[그림 5-57] 섬마을박물관 대상지 현황	179
[그림 5-58] 1섬 1테마 갖기 사업 기본방향	182
[그림 5-59] 1섬 1테마 갖기 사업 벤치마킹 요소	182
[그림 5-60] 1섬 1테마를 활용한 섬 마스코트 및 콘텐츠화 이미지	183
[그림 5-61]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기본방향	186
[그림 5-62] 섬 특화 먹거리 개발 현황	186
[그림 5-63]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 이미지	187
[그림 5-6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191
[그림 5-65]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 예시	192
[그림 5-66]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사업 예시	193
[그림 5-67]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기본방향	196
[그림 5-68] 인천광역시 및 웅진군 인센티브 사업 현황	196
[그림 5-69] 실질적 민간유치방안(제안) 기본방향	201
[그림 5-70] 굴업도 방문객 이용현황	201
[그림 5-71] 민간브랜드 협업사업 실행 예시	202
[그림 5-72] 국내 주요 관광자원 민간투자사업 현황	205
[그림 5-73]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및 덕적·자월군도 위치	210
 [그림 6-1] 단계별 로드맵	 217



과업의 개요

1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과업 배경 및 목적

1.1 과업 배경

● 섬 관광 수요증가 및 해상국립공원 필요성 지속 제기

- 인천 도시는 바다와 갯벌, 조수간만의 차가 빚어내는 독특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과 여가활동이 가능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함. 특히 여가·레저 및 휴양지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섬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강르네상스, 아라뱃길 활성화 등 수도권 관광개발사업의 파급효과로 관광객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이러한 인천 도서관광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 덕적·자월군도의 해상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된 바 있음. 당시에는 해사채취를 통한 지방세 확보, 사유재산권의 규제, 어업권 침해 문제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해상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덕적·자월군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아젠다로 제기되고 있음

● 지역 생존을 위해 관광 중심의 지역사업 구조 변화 요구

-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 도시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이탈을 방지하거나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기대되는 관광산업이 다양한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중앙정부도 관광을 지역발전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넘어서 '찾고 머물고 관계 맺는 지역' 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기존의 정주환경 개선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관광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역사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인천 섬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섬 종합분석을 통한 섬발전기본계획(2022)〉, 〈인천 섬 여건 및 실태조사 종합보고서(2023)〉을 수립하여 인천 섬들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대상지(인천 섬)를 본격적으로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본 과업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간 경쟁상황에 대응함과 동시에 실행력을 갖춘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1.2 과업 목적

❶ 섬의 정체성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화 도모

- 인천 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자원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해 덕적·자월 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각 섬의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키워드를 도출하고 섬별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함. 또한 섬 스토리를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기반한 각종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함

❷ 섬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 실행사업 발굴

- 섬의 지리적·자원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 설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섬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개선과 내부에서의 관광 편의 증진에 초점을 둔 실행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우선 섬 관광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별 관광수요, 수용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접근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함. 또한 섬 내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업을 제시함

❸ 해상국립공원 추진을 통한 인천 도서 통합적 발전 도모

- 덕적·자월군도의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단순히 보전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 발전 전략으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섬 관광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군도 전체를 상위개념(해상국립공원)으로 내부 섬들을 하위개념(시립공원)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식은 도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천 도서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전략이 됨

[그림 1-1] 과업의 목적



2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과업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를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섬 특화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26~2030년
 - 단기(2026년), 중장기(2027~2030년)

2.2 내용적 범위

-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2025)」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기본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발전전략 및 콘텐츠 발굴, 정책과제 도출, 실행계획 수립 순으로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기존 관련 연구보고서 및 기초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2개 권역을 통합하는 콘셉트를 설정하고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을 위한 사업과제 및 정책적 방안을 도출함

<표 1-1> 내용적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본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 지역현황 분석 · 관광현황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 · 유사분석 및 이슈 도출
기본구상	· 추진전략 및 방향 설정 · 시설 및 상품개발 계획 ·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마케팅 계획
발전전략 및 주변 섬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 관광자원과 콘텐츠 발굴 · 관광편의 서비스 기반 강화 ·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
가치확산 발전모델 제시 및 정책과제 도출	· 경제적, 관광적,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사전 예측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실행계획 집행방안	· 단계별(단기, 중장기) 사업 추진 일정 · 자원확보 및 투자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2.3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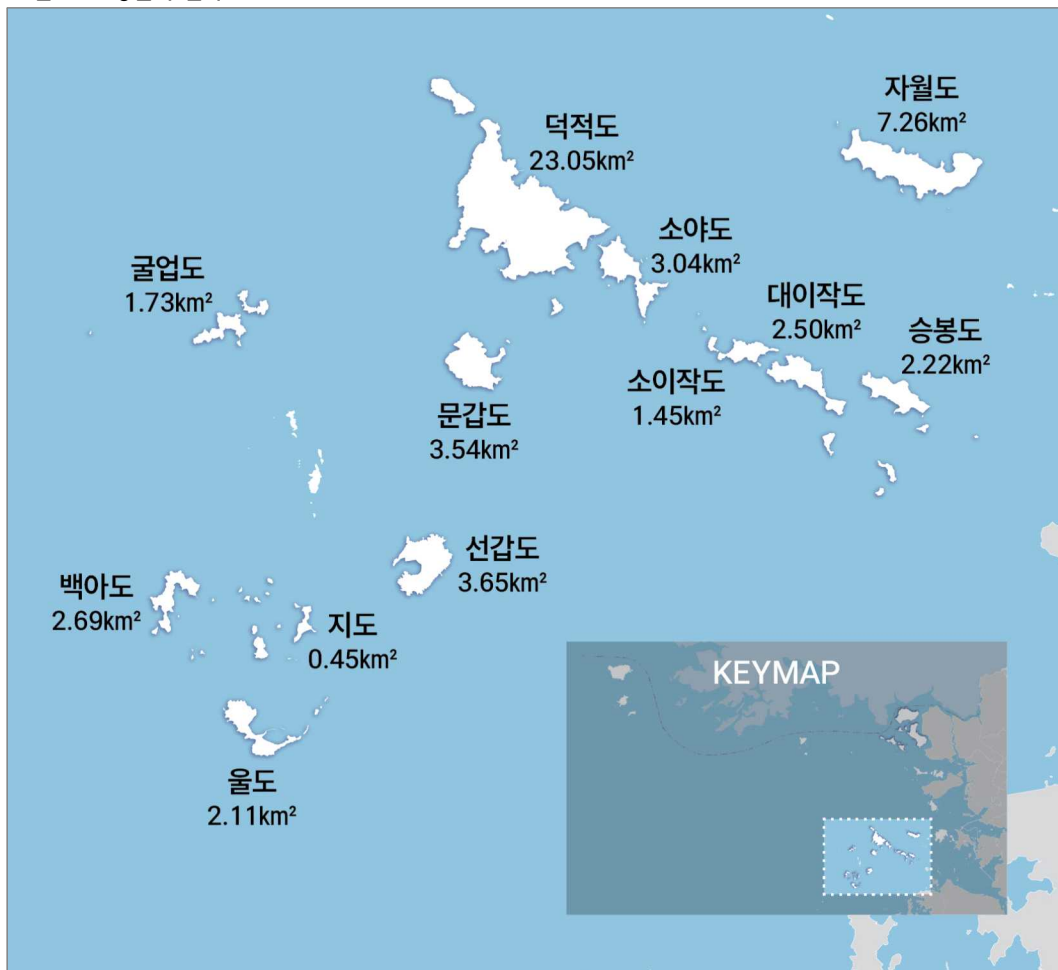
- 덕적·자월군도
 - 덕적군도 :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지도, 울도
 - 자월군도 :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갑도
- 총면적 : 53.70km²

<표 1-2> 대상지 면적

(단위 : 개, km²)

구분	개수	면적	세부 내용
덕적군도	7개 도서	36.62	덕적도(23.06), 굴업도(1.73), 소야도(3.04), 문갑도(3.54) 백아도(2.69), 지도(0.45), 울도(2.11)
자월군도	5개 도서	17.08	자월도(7.26), 대이작도(2.50), 소이작도(1.45), 승봉도(2.22), 선갑도(3.65)
합 계	12개 도서	53.70	

[그림 1-2] 공간적 범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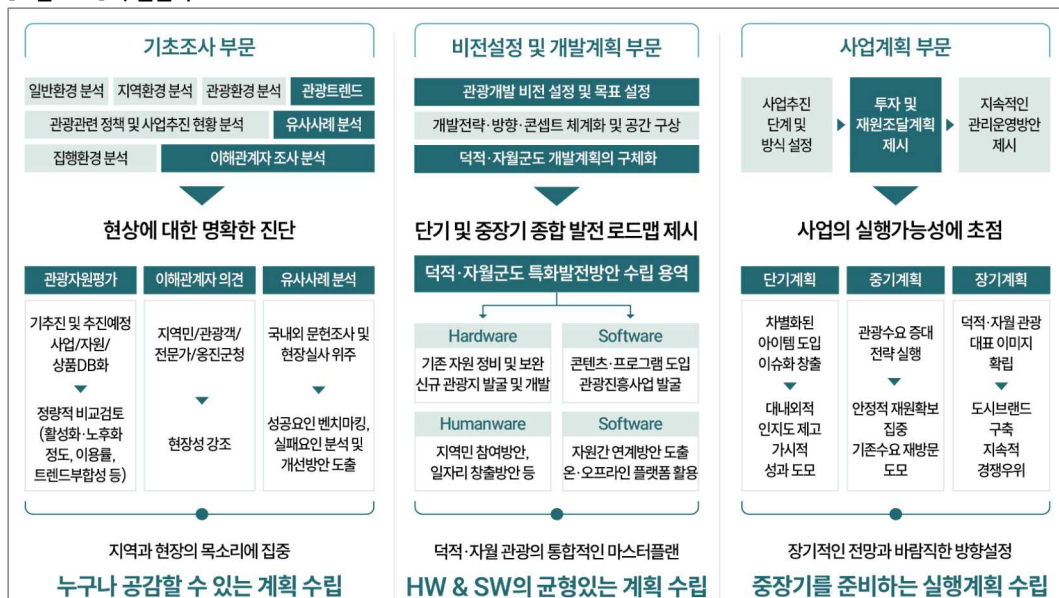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과업의 추진체계

3.1 추진방법 및 절차

- 본 과업은 덕적·자월군도에 속한 도서를 오지(奧地)가 아닌 인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시켜 대한민국 섬 관광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덕적권·자월권 두 개의 권역으로 분리된 계획이 아니라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과업은 기초조사, 비전설정 및 개발계획, 사업계획 등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추진됨. 우선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섬 관련 대내외 여건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 환경변화를 파악함. 또한 이해관계자 조사·분석을 통해 내·외부 의견에 집중하여 지역 현안과 발전 한계를 명확히 진단함
- 비전설정 및 개발계획에서는 덕적·자월군도의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 콘셉트, 실행사업 등을 제시함. 사업은 HW/SW/hw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고 균형을 강조함
- 사업계획에서는 사업의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추진체계, 투자 및 자원조달계획, 관리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단기계획(2026년), 중기계획(2027~2028년), 장기계획(2029~2030년)으로 계획 기간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

[그림 1-3] 추진절차



3.2 추진경위

- 본 과업은 2025년 2월 28일 착수 이후 6개월(180일)에 걸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장답사를 비롯해 연구진 및 인천광역시청 섬해양정책과 실무진 간 지속적인 협의와 보고회 등을 진행함
- 특히 시정혁신단, 지역 전문가, 섬 관련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전전략 및 정책사업을 도출하였음

〈표 1-3〉 주요 추진경위

구분		주요 내용	일시
협의 및 보고회	사전협의	· 과업의 방향성 공유 및 사전의견 협의	2.24
	착수보고회	· 용역 착수와 관련된 행정사항 공유	3.12
	중간보고회	· 계획의 방향성 공유 및 비전 및 전략사업 제시	7.23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 및 보완사항 검토	8.20
현장답사	1차 현장답사	· 덕적군도 내 도서 현장답사 - 덕적도, 소야도, 굴업도, 문갑도 등	5.7~ 5.8
	2차 현장답사	· 자월군도 내 도서 현장답사 -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등	6.26~ 6.27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 인천연구원, 시정혁신단 등 의견수렴	6.16
	지역관계자 의견조사	· 웅진군청, 자월면사무소, 마을이장 등 의견수렴	6.27

[그림 1-4] 주요 추진경위





현황 및 여건분석

1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대내외 여건 분석

1.1 STEEP 분석

가. 분석 개요

- 팬데믹, 기후변화, 강대국 간 패권경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및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본 과업에서는 거시환경 분석의 일환인 STEEP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는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al), 생태·환경(Ecological), 정치·제도(Political)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덕적·자월군도 일대 관광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관광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그림 2-1] STEEP 분석 개요

S Social 사회적 측면	사회구조	- 초고령사회 진입, 소비주력으로 실버세대 주목 - 인구이동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심화 -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세대특성	
	인구이동	
T Technological 기술적 측면	기술발전 (AI, IoT, 디지털화 등)	- AI, IoT,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에 따른 교통체계 발전 - 전국 생활권 구축, 수도권 내 이동시간 단축 등 - 해양교통수단 디지털화,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교통체계 (철도교통, 해양교통 등)	
E Economical 경제적 측면	경제전망	- 국제정세 불확실성 심화, 세계경제 저성장 국면 진입 - 엔데믹 전환과 함께 여가관광수요 회복, 여가산업 성장 - 가성비, 무해력, 토픽경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장
	산업구조	
	소비 트렌드	
E Ecological 생태·환경적 측면	기후변화 (온도상승, 이상기후 등)	- 관광산업,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 차지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자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해양생태계 변화 우려
	생태계 변화 (육상·해양 생태계 등)	
P Political 정치·제도적 측면	국가정책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자립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정부예산	
	관련 제도	

나. 사회적 측면(Social)

❶ 실버산업 133.3% 성장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소비시장 공략 필요

-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이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기구 UN(United Nations)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편입에 따라 고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중문화를 경험한 세대로 일제강점기, 전쟁 등을 겪었던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소비역량 및 문화적 개방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새로운 주력 소비층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20년 약 72조 원에서 2030년 약 168조 원으로 10년간 133.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최근 실버산업은 신체적 건강을 위한 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문화·관광, 스마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실버계층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여행업계에서의 영향력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에이지리스 서비스(Ageless Service) 등 실버계층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❷ 수도권 집중화(50.7%)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해소방안으로 생활인구에 주목

- 산업연구원(KIET)에서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2022)〉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과업 대상지인 덕적·자월군도가 속한 웅진군 역시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됨
- 지방소멸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자연적 요인보다 인구이동, 일자리 편중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소에서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 활성화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임
- 이때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 관광·업무·학업 등을 매개로 특정 지역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정의됨. 따라서 생활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매력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기술적 측면(Technological)

● 교통체계 혁신에 의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수도권 이동시간 50% 이상 단축 전망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교통 분야에도 무인화, 디지털화, 초고속화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음
- 특히 철도교통의 초고속화는 지역 간 이동 거리 단축 및 전국 생활권 구축을 촉진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에 따르면 철도 고속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이동시간이 5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서비스(LCS)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가 신(新) 교통수단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장소를 연계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해양교통수단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 접근성 및 이용객 편의 개선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해상교통수단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따르면 선박의 디지털화 비중이 2023년 35.5%에서 2027년 55.0%로 약 1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해상교통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을 수립하여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고도화, 교통서비스 이용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 해상교통의 디지털화로 여객선 노선 및 운항시간, 실시간 출항 여부 등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 이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섬 관광에 대한 잠재적 방문니즈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2]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	■ 세계 최고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구현		
정책목표	■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정보서비스체계 구축 ■ 해상교통정보 이용장벽 해소 및 안전복지 제고(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90점 달성)		
4대 추진전략			
첨단 해양교통관리체계 확립	안전편의 서비스 및 위기대응 지원 확대	국가 해양안전 플랫폼 고도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제협력 주도

라. 경제적 측면(Econom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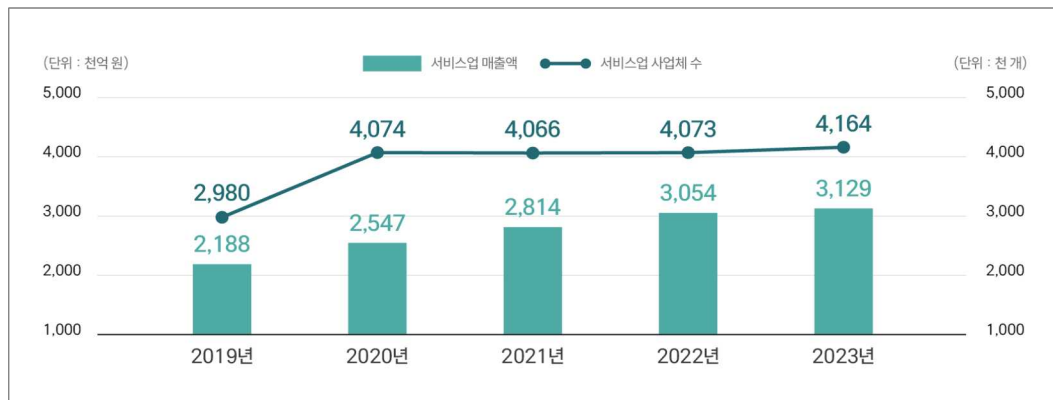
❶ 세계 경제 저성장 시대에서 가성비, 무해력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장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2024)>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 성장률 3.56% 대비 낮은 수치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 위기,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억제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금리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IMF에서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회 전망 대비 0.2%p 하향한 2.0%로 전망함
-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질소득 및 자산가격 하락, 소비심리 저하, 이자부담 강화 등 민간 소비시장의 위축세 또한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가성비, 무해력, 토픽경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발현되어 기존과는 다른 기회시장을 창출하고 있음
 -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하고 귀여운 소비를 추구하는 ‘무해력’,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는 ‘토픽경제’ 등을 2025년 주요 소비 트렌드로 선정하였음

❷ 엔데믹 시대 여가산업 8.9% 성장, 여가관광수요 회복에 선제적 대응 필요

- 통계청에서 실시한 <서비스업 조사(2023)>에 따르면 2023년 서비스업 총매출액은 3,129조 원으로 2022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사업체 수 또한 약 416만 개소로 전년 대비 9만 1천여 개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여가관광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를 겪은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여가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아이템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2-3] 연도별 서비스업 매출액 및 사업체 수



마. 생태·환경적 측면(Ecological)

❶ 관광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8.8% 차지, 관광분야 탄소중립 실현 요구 증대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음
- 국내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신(新)기후체제 및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탄소중립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관광,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특히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산업에 대한 탄소저감 노력이 정책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콘텐츠 강화 등 제도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관광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 관광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항공, 크루즈 등 교통 분야가 75%로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❷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등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해양활동의 긍·부정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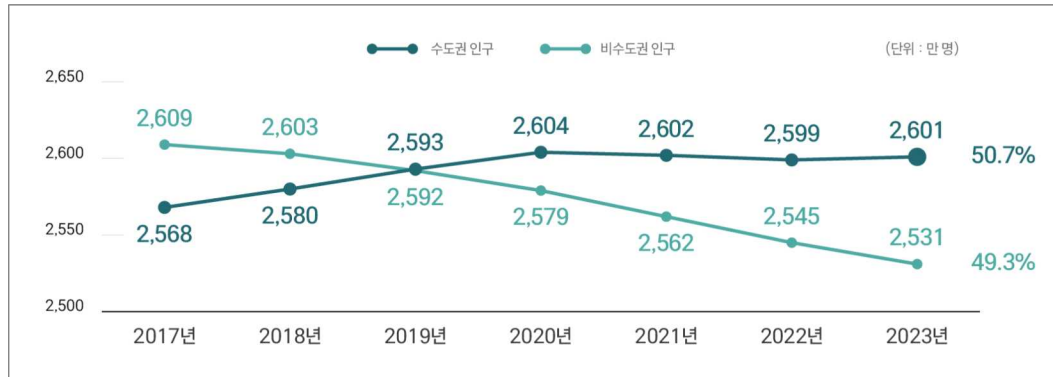
- 관광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로 특히 섬, 바다, 산 등 자연자원 기반 관광목적지의 경우 날씨, 계절, 해수면 수위 등 환경변화에 더욱 의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관광투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대의 관광산업과 관광투자 대응방안(2016)>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및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자연경관의 매력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해수면 수위 상승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계절 변화에 따른 관광지 매력도 저하, 해상·육상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고 있음
- 한편 <기후변화가 해안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3)>에 따르면 해안관광 목적지의 일 평균 기온이 2021년 18.8℃에서 2091년 24.0℃까지 상승함과 동시에 해안관광 활동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해양관광의 양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쾌적성 훼손으로 해양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해양관광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주의(질적 경험 추구)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기온,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요인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바. 정치·제도적 측면(Political)

❶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 관광 역할 주목

- 2019년 최초로 수도권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또한 202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1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5% 증가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 조성 등 관광 관련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신규 편성 및 이관된 바 있음

[그림 2-4] 수도권 거주인구 현황



❷ 지방도시의 자립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규제특례 확대

- 일자리 및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지방 청년 유출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 및 지역소멸위기가 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개발규제특례제도를 시행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그중 기회발전특구는 민간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지원하는 특례제도로 특구 내 입주기업은 세제 면제, 재정 및 금융 지원,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회발전특구는 최초 계획에서는 비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수도권 내부 격차 심화 등으로 특구지정 대상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 이에 덕적·자월군도가 속한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해졌으며 현재 인천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에 따라 적극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옹진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전략을 수립 중임

1.2 관광시장 및 동향 분석

가. 국내외 관광시장 분석

1) 국제 관광시장

🌐 글로벌 관광시장에 대한 완전한 회복 기대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4년 국제 관광객 수는 약 14억 4,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99%를 회복하였음. 이러한 국제 관광시장의 성장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관광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87% 수준에 그치며 더딘 회복세를 보임
- 2024년 국제 관광수출액은 총 1조 9천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1조 8천억 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본격적으로 국제 관광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관광목적지로서 매력도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발전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웰니스 여행 및 자연관광지에 대한 국제적 수요 지속

-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힐튼(Hilton)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한 2025년 국제 관광 트렌드를 종합한 결과 ①개인 맞춤형 여행, ②웰니스·휴식여행, ③자연·문화 체험, ④미식여행 등 4가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음
-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된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및 웰니스 트렌드는 코로나19 영향력이 완화되었음에도 관광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 및 먹거리가 유입력 높은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함

[그림 2-5] 글로벌 관광 트렌드



2) 국내 관광시장

🔴 엔데믹 전환에 따른 국내 관광시장 회복세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여행조사(2024)>에 따르면 전 국민의 95.5%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국내 관광시장은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국내여행 총횟수는 2억 2,967만 회, 여행일수는 4억 6,539만 일, 지출액은 37조 8,160억 원으로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약 8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전년 대비 큰 폭(45.5%)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백신 접종률 증가, 여행규제 완화 등으로 코로나19 영향력이 완화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국내여행 횟수 대비 숙박여행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47.1%, 2020년 39.3%, 2021년 35.8%, 2022년 41.1%, 2023년 41.7%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
- 코로나19를 일상적인 풍토병처럼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국내 관광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엔데믹 이후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온라인패널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 행태조사(2024)>를 살펴보면 국내여행에 대한 위협 인식도는 코로나19 정점이었던 2021년 60.2%에서 2022년 33.5%, 2023년 20.8% 등으로 완화되고 있음

<표 2-1> 국내여행 총량

(단위 : %, 천 회, 천 일, 십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행경험률	계	92.4	86.4	93.9	94.2	95.5
	숙박여행	-	55.6	71.2	76.9	85.1
	당일여행	-	73.9	90.7	90.6	93.2
여행횟수	계	344,750	225,199	245,127	283,722	296,977
	숙박여행	162,376	88,450	87,785	116,589	123,782
	당일여행	182,374	136,749	157,342	167,133	173,195
여행일수	계	585,710	347,876	364,721	443,904	465,391
	숙박여행	403,336	211,127	207,379	276,770	292,196
	당일여행	182,374	136,749	157,342	167,133	173,195
여행지출액	계	44,183	24,121	25,915	34,533	37,816
	숙박여행	30,041	15,638	16,761	24,094	26,467
	당일여행	14,142	8,483	9,154	10,440	11,348

자료 : 2023 국민여행조사(2024), 문화체육관광부

❶ 가족·친구 중심의 소규모 관광행태 우세

- 2023년 기준 국내여행 동반행태를 살펴보면 평균 동반자 수는 3.7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 시 약 13.9% 적은 수치로 엔데믹 이후에도 소규모 여행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
- 동반자 유형은 가족·친척 61.9%, 친구·연인 35.7%, 단체 4.0% 등 순으로 나타남. 한편 단체관광의 경우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음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추이는 가족·친구 중심의 소규모 여행 트렌드가 코로나 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관광행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함

<표 2-2> 국내여행 동반행태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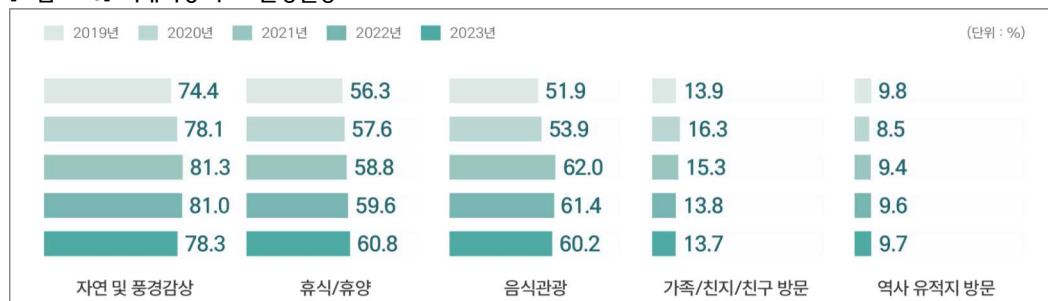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동반자 수		4.3	3.2(-1.1)	3.0(-0.2)	3.4(+0.4)	3.7(+0.3)
동반자 유형 (중복)	가족·친척	58.2	58.0(-0.2)	61.2(+3.2)	59.0(-2.2)	61.9(+2.9)
	친구·연인	38.1	40.4(+2.3)	38.6(-1.8)	39.6(+1.0)	35.7(-3.9)
	단체	5.5	2.4(-3.1)	1.0(-1.4)	2.7(+1.7)	4.0(+1.3)
	동료	2.2	3.2(+1.0)	2.4(-0.8)	1.9(-0.5)	2.0(+0.1)

자료 : 2023 국민여행조사(2024), 문화체육관광부

❷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휴식·휴양 활동 선호

- 2023년 기준 국내여행 시 주요 관광활동으로 자연/풍경 감상(78.3%)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며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야외 중심의 저밀집 여행지가 선호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함
- 이어서 휴식/휴양이 60.8%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힐링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워라벨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 국내여행 주요 관광활동



자료 :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2024), 문화체육관광부

3) 방한 외래관광시장

🔴 엔데믹 이후 여행제한 조치 완화와 함께 방한 관광시장 회복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 외래관광객조사(2024)>에 따르면 2023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45.0% 증가한 1,103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약 63.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팬데믹 선언과 함께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가 강화되면서 위축되었던 방한 관광시장은 코로나19 풍토화, 여행규제 완화 등에 따라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7] 방한 외래관광객 수 추이



자료 :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2024),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한식, 쇼핑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방한동기로 작용

- 2023년 외래관광객의 방한목적을 살펴보면 여가/위락/휴식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사업/전문활동 18.1%, 친구/친지 방문 13.9%, 교육 4.6% 등 순으로 조사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2020년과 비교 시 관광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업무·교육 목적의 방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의 경우 사업/전문활동 41.6%, 교육 33.1% 등 관광 외 목적에 대한 응답률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관광과 관련된 응답은 3.7%에 불과하였음
- 방한여행 시 고려요인으로는 식도락 관광(59.8%)과 쇼핑(57.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3 방한 쇼핑관광 실태조사(2024)>를 함께 살펴보면 외래관광객들의 소비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뷰티·패션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23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은 총 5조 8,193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이외에도 OTT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고궁·유적지(27.5%), K-POP 명소(16.0%) 등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나. 관광 트렌드

🔴 2023-2025 국내관광 트렌드 “New Era Tri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등 거시환경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바탕으로 2023~2025년 10대 관광 트렌드 “New Era Trip” 을 발표함. 이는 ‘새로운 시대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엔데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지역관광, 경험소비, 스마트관광(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와 위케이션, 웰니스, 탄소중립 여행 등 팬데믹을 거치며 확산되기 시작한 관광행태가 공존할 것으로 예측함
- 본 과업의 경우 덕적·자월군도의 지속가능한 섬 관광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로컬 특화자원 선호, 주민주도형 관광 등 지역관광과 관련된 트렌드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섬 관광 개발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2-3〉 2023-2025 국내관광 트렌드 “New Era Trip”

구분	주요 내용
뉴노멀 시대, 새로운 여행 위케이션 확산	· 워라밸 선호 경향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위케이션 관심 증가 ·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인구 유입수단으로 위케이션 주목
위기 회복 시대, 웰니스 치유 여행	·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웰니스 수요 증대 · 기존 스파/명상 중심에서 해양치유, 숲강스 등 자연치유형으로 확장
초개인화 시대, 여행경험의 나노화	· 해외-근교여행, 럭셔리-가성비여행 등 관광행태 양극화 심화 ·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으로 여행의 개별화 가속
관광할 권리, 모두가 즐기는 여행의 실현	· 인간의 기본적·보편적 권리로써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장애관광 필요성 확대
K-컬처 시대, 방한여행의 스펙트럼 확장	· OTT 서비스 활성화로 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 · 웹툰, 게임 등 한류 스펙트럼 다양화, 방한 관광객 범주 확장
로컬의 시대, 지역관광의 진화	· 정형화된 대중 관광지보다 지역 고유의 독특한 콘텐츠 선호 · 관광소비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추구
디지털 전환 시대, 신(新)융합 관광 확대	· 기술혁신 및 팬데믹으로 관광 분야 비대면 서비스 확대 · 랜선여행,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 발달로 관광 영역 다양화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 여행의 부상	·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함께 친환경 여행 대두 · 관광산업 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ESG 경영 도입 가속화
탈 경계 시대, 일상에 스며든 관광	· 거주지 인근에서의 일상적 행위를 관광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 마을호텔 등 지역주민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숙박시설 선호
창조의 시대, 스스로 성장하는 지역관광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확산 ·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인력 및 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 자생력 추구

자료 :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❶ 2025 국내관광 트렌드 “S.P.E.C.T.R.U.M”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거시환경 및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관광정책 동향 등을 종합하여 관광콘텐츠, 관광산업, 관광가치관 및 스타일 등 3가지 영역에 대한 공통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관광 트렌드를 발표함
- 2025년 국내 관광시장을 선도할 핵심 트렌드는 ‘S.P.E.C.T.R.U.M’ 으로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소비자 니즈 고도화 등에 따라 다양화·개인화되고 있는 여행행태에 주목하고 있음
- 덕적·자월군도 일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섬 관광지와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 사업을 발굴해야 함. 따라서 웰니스 치유여행, 미식여행, 로컬리즘 추구 등 수도권 근교 섬으로서 대상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트렌드를 접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관광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2-4> 2025 국내관광 트렌드 ‘SPECTRUM’

구분	주요 내용
지방소멸위기와 지역의 관광사업 기반 구축 노력 (Sustainable Regional Tourism Efforts)	·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관광에 주목 -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특히 디지털 노마드 수요에 따라 워케이션 트렌드 지속 확대 전망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 (Pet-Friendly Tourism)	·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선호 및 수요 지속 증가 · 반려동물 동반여행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및 프로그램 확대
K-컬처시대, 한류산업 확장 및 다변화 (Expansion of Hallyu Industry)	· 과거 드라마/K-POP 중심에서 예술, 뷰티, 패션, 게임, 문학 등까지 한류산업 영역 확장, 광의의 한류로 성장 · 서울 외 지역에서도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추세
미식여행 (Culinary & Gourmet Travel)	·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도락 테마 여행 선호 · 음식 관련 OTT가 이슈화되며 전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
범용화된 AI 기술 활용 (Tech-Driven AI Advancements)	· AI 기반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통해 초개인화된 여행경험 제공 · 예약, 여행지 추천, 번역 등 다양한 형태로 AI 기술 활용
웰니스 치유여행 개인 맞춤화 (Revitalizing Wellness & Healing Travel)	· 노년층 소비력 강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웰니스 여행 관심 확산 · 개인의 니즈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핵심 - 여성 생애주기, 디지털 디톡스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의 편리성 강화 (Unprecedented Digital Transformation)	· AI, IoT, 5G 등 기술과 융합된 트래블 테크 확산으로 간편 결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 발달 · 기술 융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
로컬리즘 추구 (Meaningful Local Experiences)	· 팬데믹 이후 로컬콘텐츠에 대한 선호 지속 · 지역밀착형 경험에서 공정관광까지 로컬관광 영역 확대 전망

자료 : 2025 관광컨설팅 이슈발굴(2024),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1.3 섬 관광 여건 분석

가. 해외 섬 관광개발 동향

❶ 유럽 지역

- 유럽은 지중해와 대서양이 위치한 동남부권을 중심으로 관광도서가 발달해 있으며 연중 온화한 기후와 이색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에서 찾는 휴양 목적지로 발전 하였음. 그러나 최근 그리스 산토리니섬, 스페인 이비자섬, 이탈리아 카프리섬 등 유럽 대표 섬 관광지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교통난, 환경오염, 주민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럽 각국에서는 새로운 섬 목적지를 발굴하여 관광객 분산 및 소외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특히 기존 여름철에만 집중되던 휴양 목적 관광행태를 다변화하고 계절적 요인에 취약한 섬 관광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 로컬음식 등의 새로운 테마를 접목한 섬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에 위치한 프로치다섬(Procida Island)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섬이었으나 섬 전체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PANORAMA’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예술의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22년 이탈리아 정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수도에 선정되었음
 - 크로아티아 비스섬(Vis Island)은 해군기지로 사용되어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나 지역 대표 특산물 ‘와인’ 을 활용한 축제 및 투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목적지로 재활성화되었음

❷ 태평양 지역

- 태평양 지역에는 피지, 바누아투, 사모아 등 섬으로만 이루어진 국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산업개발에 한계가 있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편임. 이에 태평양 지역의 섬 국가에서는 주민 중심의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및 상생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지역사회 기반 관광(Community-Based Tourism)의 선도모델로 꼽히는 피지는 과거 대형 리조트 중심의 해양관광 개발로 지역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피지 정부와 NGO에서는 부족문화, 전통춤, 수공예 등 현지 문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여 주민들이 관광수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바누아투는 8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소규모 섬 국가로 정부 차원에서 <바누아투 전략적 관광 행동 계획(VSTAP)>을 수립하고 수공예 사업 개발 프로그램, 바누아투 관광 허가 및 인증 프로그램(VTPAP) 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사모아는 해양경관과 고대문화가 어우러진 도서국가로 사모아관광청(STA) 주도하에 관광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리조트에 의존하는 타 섬 국가와 달리 전통마을 기반의 소규모 숙소 발굴을 통해 지역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그림 2-8] 유럽 및 태평양 지역 섬 관광개발 사례



❖ 일본

- 일본은 1만 4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島嶼)국가로 본토와 이도(離島) 간 경제·사회적 격차에 따른 지방소멸문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되었음.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섬 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이도진흥법」을 제정하여 도서지역 자생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53년 제정된 「이도진흥법」은 당초 10년 한시법이었으나 10년마다 일부 개정을 거치며 지속 연장되고 있음
- 「이도진흥법」에 기반한 일본의 섬 지역개발은 생활기반 조성,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개발행위에 따른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청년 인구 유출문제가 심화되면서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 특히 일본 내 도서지역을 본토 근접형, 군도형, 고립형 등 입지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도서별 특성에 기반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가와현 나오시마는 인구 3천여 명 수준의 작은 섬이었으나 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연평균 6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표 관광목적지로 성장하였음. 특히 중장기 섬관광 활성화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사업체, 시민단체, 외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한 사례임

[그림 2-9] 일본 섬 관광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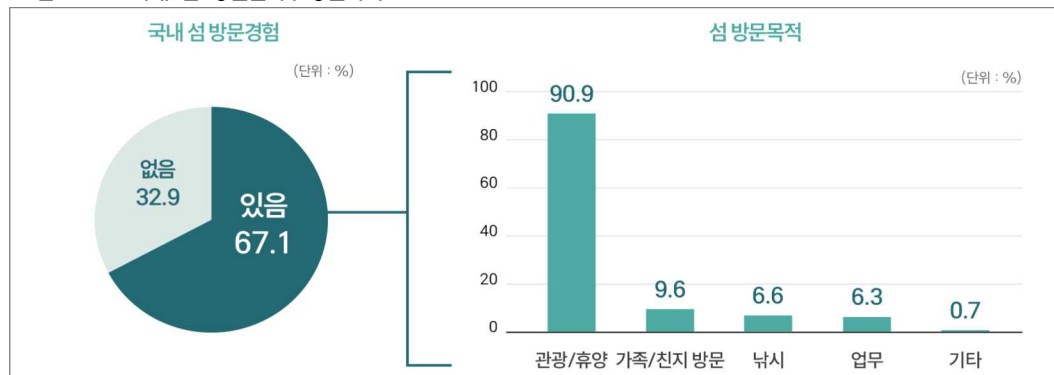


나. 내국인 섬 관광행태

❶ 관광목적지로서 섬에 대한 관심 및 수요 확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실시한 <국민 섬 인식조사(2019)>에 따르면 도서지역 거주민 외 67.1%가 국내 섬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성별 및 세대별로 살펴보면 국내 섬 방문객 가운데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여성집단에서 섬 방문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섬 이미지에 대한 긍정·부정어 분석 결과 20대에서 ‘위험하다, 지저분하다, 멀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타 연령대 대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층의 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 확충을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섬 방문목적으로는 관광/휴양이 9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족/친지 방문 9.6%, 낚시 6.6%, 업무 6.3% 등 순으로 조사됨. 팬데믹 이후 자연 관광지에 대한 관심 및 해양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도서 접근성 개선이 섬 관광수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0] 국내 섬 방문 및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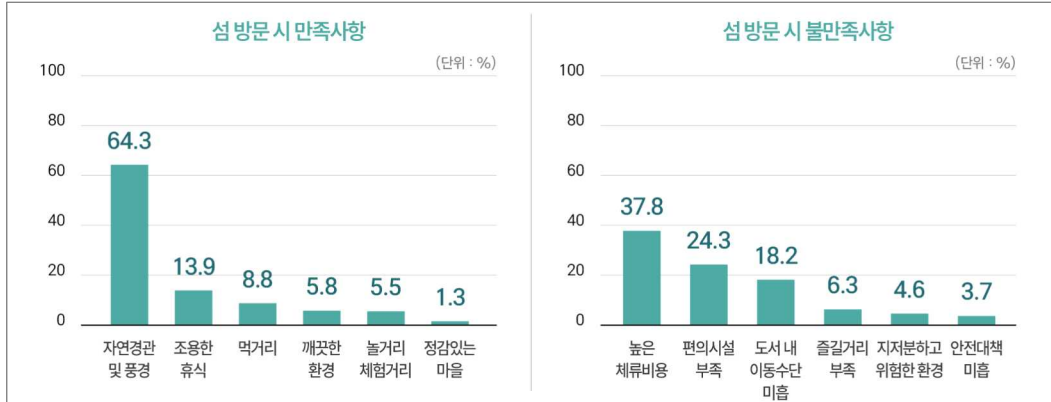


자료 : 국민 섬 인식조사(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❷ 콘텐츠 발굴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섬 관광 경쟁력 제고 필요.

- <국민 섬 인식조사(2019)>에 따르면 국내 섬 방문 시 만족했던 사항으로 자연경관 및 풍경(64.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놀거리/체험거리(5.5%), 먹거리(8.8%) 등 잠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의 경우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도서자원의 유인력 및 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섬 방문 시 불만족 사항으로는 숙박, 식음 등 높은 체류비용에 대한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음. 이외에도 편의시설 부족(24.3%), 도서 내 이동수단 미흡(18.2%) 등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나타나 섬 관광에 대한 수용태세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1] 국내 섬 방문 시 만족사항 및 불만족사항



자료 : 국민 섬 인식조사(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트레킹, 해양관광체험 등 액티비티 중심으로 인천 섬 관광수요 발생

- 한국섬진흥원(KIDI)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섬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간정보데이터, 소셜네트워크 등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섬 관광행태를 분류함
- 국내 섬 관광행태는 크게 ①자연향유, ②액티비티, ③생태환경, ④문화체험, ⑤음식, ⑥체류관광, ⑦시설활용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캠핑, 차박 등 체류관광 목적지로서 도서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섬 권역의 경우 등산·트레킹 중심의 액티비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입지 특성상 근교 당일치기 행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본 과업에서도 트레킹, 체험관광, 근교 당일치기여행 등 인천지역 섬 관광에 대한 실제 수요자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섬 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표 2-5> 국내 섬 관광행태 및 대표 도서

구분	주요 활동	대표 도서
자연향유	· 일출·일몰 감상, 해양경관 감상	· 여수시 거문도, 신안군 흑산도, 홍도 등
액티비티	· 등산, 트레킹, 해수욕, 갯벌체험, 요트, 해루질, 낚시, 자전거	· 인천광역시 덕적도, 굴업도, 장봉도 등
생태환경	· 생태체험	· 여수시 거문도, 신안군 흑산도, 홍도 등
문화체험	· 전설, 축제, 친환경 여행문화, 정원	· 완도군 완도, 청산도, 가평군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 등
체류관광	· 캠핑, 차박, 글램핑	· 사천시 솔섬, 비토섬, 저도 등
시설활용	· 케이블카, 열차, 유람선	· 거제시 거제도, 통영시 장사도 등
음식	· 먹거리(해산물)	· 제주도, 우도, 인천광역시 신시모도 등

자료 : 국내 섬 관광자원의 향유 형태분석 연구-수요자 인식을 중심으로(2023), 한국섬진흥원

2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일반현황 분석

2.1 입지환경

가. 입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을 소재지로 한 덕적권역은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울도, 지도, 선갑도 등 7개의 도서로 이뤄져 있음. 그중 덕적도는 23.05km²로 덕적권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유인도서 가운데 7번째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 덕적도 외 유인도는 평균 2.25km² 수준의 소규모 섬이며 특히 지도의 경우 0.45km²로 덕적·자월군도 가운데 가장 작은 면적으로 조사됨
- 자월권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을 소재지로 하며 자월도를 비롯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갑도 등 5개의 유인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중 자월도가 7.26km²로 면적이 가장 크며 이외 섬들은 대이작도 2.57km², 승봉도 2.21km², 소이작도 1.45km² 등으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함

[그림 2-12] 덕적·자월군도 입지 및 면적



자료 : 인천 섬 여건 및 실태조사 종합보고서(2023), 인천광역시

나. 접근성

● 어항 현황

-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2023 국가어항 기초조사(2023)>에 따르면 웅진군에는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18개소 등 총 28개소의 법정항이 있으며 덕적·자월군도에는 국가어항 1개소와 지방어항 3개소 등 총 15개소의 어항시설이 있음
 -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법정항을 기준으로 함. 이때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을 의미하며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임과 동시에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뜻함
- 덕적·자월군도의 유일한 국가어항은 덕적도항으로 서해도서 어장의 중심지이자 해상물류 요충지로서 1971년 12월 법정항에 지정됨. 덕적도항의 육역면적은 약 0.016km², 수역면적은 0.36km²로 웅진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수역을 보유하고 있음
 - 덕적도항은 해상물류 및 교통 요충지로 현지 어선뿐만 아니라 외래어선의 이용도 활성화되고 있음. 2023년 덕적도항 이용어선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어선이 22척·444톤으로 인천시 평균 14척·169톤 대비 높게 나타남
- 덕적·자월군도 내 지방어항은 총 3개소로 덕적도에 위치한 진리항과 울도의 울도항, 자월도의 자월1리항임. 그중 울도항의 경우 1990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현지어선 수가 감소하면서 2019년 지방어항으로 격하되었음

<표 2-6> 덕적·자월군도 어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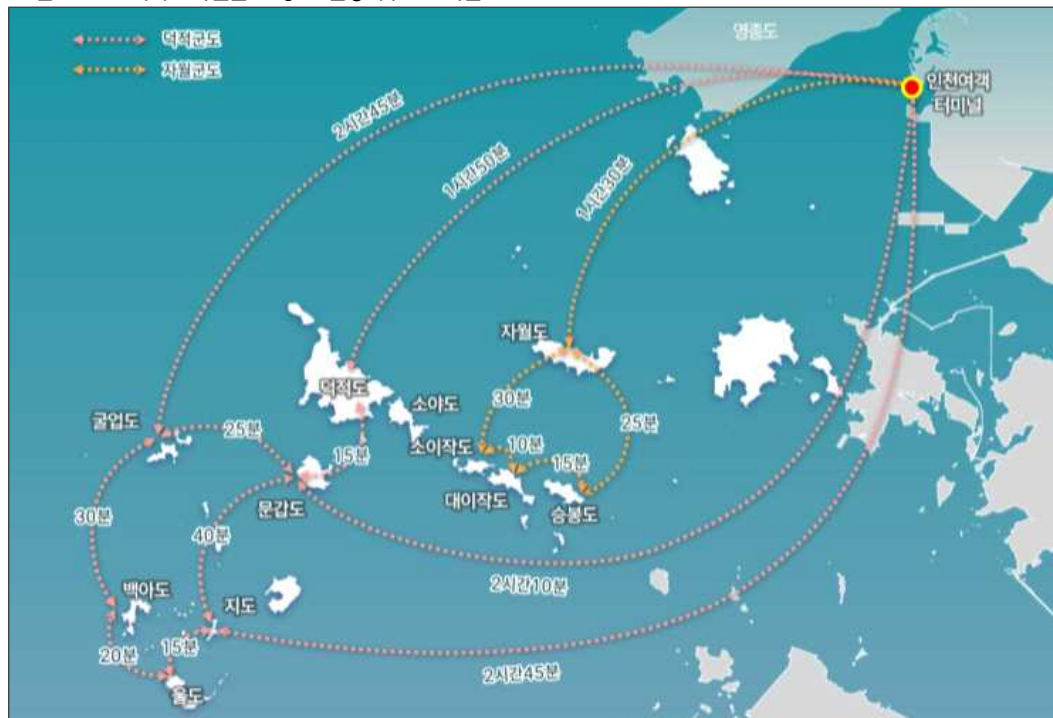
구분		위치	주요 특징
국가 어항	덕적도항	· 웅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509(덕적도)	· 1971년 1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 · 시설 : 방파제, 소형선부두, 호안
	지방 어항	· 웅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39(덕적도)	· 여객선 운항(문갑, 굴업, 백아 등)
어촌 정주 어항	울도항	· 웅진군 덕적면 울도로182번길 4(울도)	· 국가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격하
	자월1리항	· 자월면 자월서로 211-12(자월도)	· 여객선 운항(인천항, 방아머리항)
	문갑리항	· 웅진군 덕적면 문갑1길 6(문갑도)	· 여객선 운항(덕적진리선착장)
	백아리2항	· 웅진군 덕적면 백아리 19(백아도)	· 선착장 개선사업 추진 중
	백아리1항	· 웅진군 덕적면 백아로 342(백아도)	· 여객선 운항(덕적진리선착장)
	지도항	· 웅진군 덕적면 지도로 4-23(지도)	· 여객선 운항(덕적진리선착장)
	서포리항	· 웅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586(덕적도)	· 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 지정
	소아리항	· 웅진군 덕적면 소아로7번길(소아도)	· 여객선 운항(방아머리항)
	도우항	· 웅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31-22(덕적도)	· 덕적바다역이라는 별칭 보유
	승봉리항	· 웅진군 자월면 승봉로 19(승봉도)	· 여객선 운항(인천항, 방아머리항)
	대이작항	· 웅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대이작도)	· 여객선 운항(인천항, 방아머리항)
	소이작항	· 웅진군 자월면 소이작로 28(소이작도)	· 여객선 운항(인천항, 방아머리항)
	자월2리항	· 웅진군 자월면 자월동로 3(자월도)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선정

자료 : 2023 국가어항 기초조사(2023), 해양수산부

❶ 항로 및 여객선 현황

- 2023년 내항여객선 항로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지방에는 일반항로 12개를 포함해 총 15개의 항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덕적·자월군도를 경유하는 항로는 5개로 인천~덕적, 인천~이작, 대부~덕적, 대부~이작, 진리~울도 노선이 있음
- 덕적권역의 경우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덕적으로 운항하는 편도 노선 및 덕적도 외 5개의 도서를 순환하는 왕복선이 운영됨. 덕적권역에서 인천항과 연결되는 도서는 덕적도가 유일했으나 2024년 11월 인천여객터미널과 외곽 5개의 섬(굴업도, 백아도, 울도, 지도, 문갑도)을 연결하는 해누리호가 개통되어 환승없이 접근이 가능함
- 인천에서 출항한 해누리호는 외곽 5개 섬 전체 순환 시 약 6시간 40분이 소요되며 운항횟수 및 시간 제한으로 외곽도서의 경우 당일 여행은 불가능함
- 인천에서 덕적도까지의 항로는 약 45km로 1시간 50분 소요되며 쾌속선 이용 시 1시간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함. 또한 덕적도에서 출항하여 5개의 섬을 순환하는 왕복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순환 시 3시간이 소요되고 그중 문갑도의 경우 2회 경유함
- 자월권역의 경우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자월권역 4개 섬을 거치는 왕복 및 편도 노선이 운영 중임. 편도의 경우 자월도~승봉도~소이작도~대이작도로 직접 연결되며 최종 목적지인 대이작도까지는 약 1시간 30분 소요됨. 왕복 노선은 자월도를 2회 경유하며 전체 순환 시 4시간 25분이 소요됨

[그림 2-13] 덕적·자월군도 항로 현황 및 소요시간



자료 : 인천 섬포털 홈페이지(ism.incheon.go.kr)

2.2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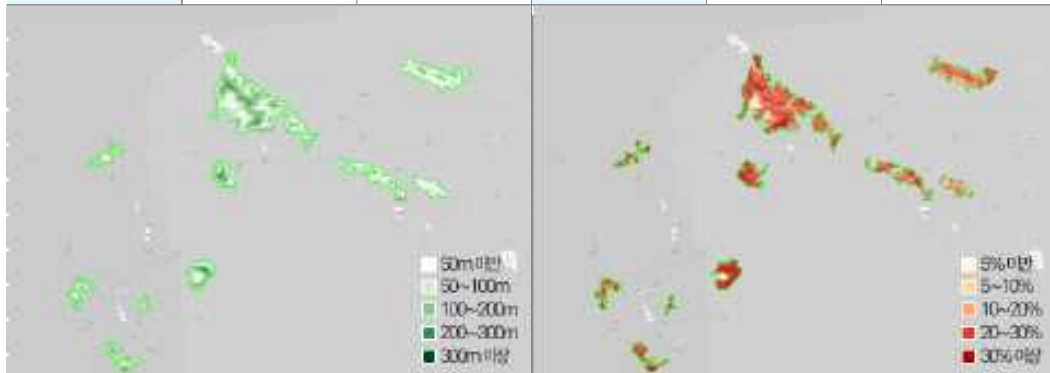
가. 지형 및 지세

- 용진군 도서들은 약 6천 년 전 멸악 및 마식령산맥의 말단부에 속해 있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에서 격리된 섬 지역으로 대부분 도서 중심부에 산봉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 전역의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풍과 파식에 의한 침식지형과 사구와 같은 퇴적지형이 고르게 발달하고 있음
- 덕적면은 최북단 선미도에서 남서쪽으로 일렬로 산재하는 섬들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산지지대로 비교적 험준한 지형의 특징을 보임. 면적과 비교하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곳곳에 소만입이 분포하여 간석지와 사빈, 자갈마당 등이 발달한 특징이 있음
- 자월면은 주로 낮은 구릉성 산지로 되어 있으나 최남단에 위치한 선갑도의 선갑산은 351.6m로 다른 산봉우리에 비해 높고 험준함. 각 섬의 북쪽 해안선으로는 암석해안, 남쪽으로는 사빈해안 및 간석지가 발달하였으며 환경사지를 중심으로 농경지 및 취락지가 분포하고 있음

<표 2-7> 표고 및 경사도 분석

(단위 : %)

표고	구성비		경사	구성비	
	덕적면	자월면		덕적면	자월면
50m 미만	46.1	60.3	5% 미만	4.3	5.9
50~100m	28.7	25.1	5~10%	6.6	8.5
100~150m	15.0	9.4	10~15%	11.2	13.0
150~200m	7.4	3.2	15~20%	16.5	17.0
200~250m	2.5	1.5	20~25%	19.7	16.6
250~300m	0.3	0.4	25~30%	17.4	13.6
300m 이상	0.0	0.2	30% 이상	24.2	25.4



나.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022년 기준 용진군의 총 토지이용 면적은 172.9km²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임야가 121.1km²(7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 15.6km²(9.0%), 답 12.7km²(7.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덕적면 총 토지이용 면적은 36.6km²로 용진군의 21.2%에 해당하며 산세가 가파르고 험준하여 전(1.4km²), 답(1.2km²)과 같은 농경지 면적이 매우 협소함. 자월면의 경우 총 토지이용 면적은 17.7km²로 용진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로 구성된 도서 지역의 특성상 임야가 15.0km²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표 2-8>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잡종지	대	기타
용진군	172.9	15.6	12.7	121.1	5.8	4.4	13.3
덕적면	36.6	1.4	1.2	32.2	0.2	0.5	1.1
자월면	17.7	1.1	0.6	15.0	0.1	0.4	0.5

자료 : 제63회 용진군 기본통계연보(2023)

●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2022년 기준 용진군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172.9km² 가운데 관리지역이 149.7km²(8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도시지역 9.5km²(5.5%), 농림지역 13.7km²(7.9%), 자연환경보전지역 0.05km²(0.03%) 순으로 나타남
- 덕적면은 관리지역이 32.6km²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며 자월면의 경우 관리지역이 17.5km²로 자월면 전체의 98.9%를 차지함. 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제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전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제 개발행위가 가능한 면적은 협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2-9>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용진군	172.9	9.5	51.6	12.8	85.3	13.7	0.05
덕적면	36.8	0.6	6.5	3.3	22.8	3.7	0.0
자월면	17.7	0.1	3.9	0.4	13.2	0.1	0.0

자료 : 제63회 용진군 기본통계연보(2023)

2.3 인문·사회환경

가. 인구

❶ 웅진군 인구 현황

- 2024년 기준 웅진군의 총인구수는 19,996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음. 인구수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면서 2024년 처음으로 2만 명대 미만으로 떨어졌음
 - 웅진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웅진군의 수치는 0.42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6,748명으로 웅진군 전체의 33.7%이며 웅진군은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됨. 반면 만 0세~14세 유소년 인구는 1,029명으로 웅진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평균(9.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웅진군은 2016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인천광역시는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활성화 및 지역 간 불균형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 해당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웅진군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세부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영흥면(32.5%), 백령면(23.6%), 연평면(10.0%), 덕적면(9.6%) 등 순으로 영흥도와 백령도에 웅진군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특히 2001년 연륙된 영흥도, 선재도가 위치한 영흥면의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백령면의 경우 면적이 크고 평탄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차산업 및 정주환경이 발달하여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0> 웅진군 연도별 및 계층별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계층별 인구		
	인구수	증감률	만 0~14세 유소년인구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2020년	20,455	-0.5	1,467(7%)	13,503(66%)	5,485(27%)
2021년	20,342	-0.6	1,396(7%)	13,181(65%)	5,765(28%)
2022년	20,613	1.3	1,313(6%)	13,200(64%)	6,100(30%)
2023년	20,377	-1.1	1,161(6%)	12,777(63%)	6,439(32%)
2024년	19,996	-1.9	1,029(5%)	12,219(61%)	6,748(34%)

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jumin.mois.go.kr), 행정안전부

❶ 덕적면 인구 현황

- 2023년 덕적면 총인구는 1,940명, 세대 수는 1,222세대로 한 가구당 평균 1.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당 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2% 수준으로 감소함. 그중 덕적도가 1,38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소야도(278명), 문갑도(100명) 등 순으로 조사됨
- 덕적면 도서 중 덕적도는 유일하게 1천 명 이상 거주하는 섬으로 경찰서, 소방서 119 지역대 등의 관공서와 학교, 농협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등 정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표 2-11> 덕적면 도서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총인구	세대
덕적면	덕적도	1,380	876
	굴업도	38	29
	소야도	278	162
	문갑도	100	63
	백아도	44	30
	지도	30	18
	울도	70	44
합계		1,940	1,222

자료 : 인천광역시 유인섬 통계자료(2024),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❷ 자월면 인구 현황

- 2023년 기준 자월면 총인구는 1,352명, 세대 수는 840개로 한 가구당 평균 1.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당 인구는 5년 전 대비 약 9.7% 감소함. 자월면 가운데 자월도 인구가 737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이작도(269명), 승봉도(241명) 순으로 나타남
- 자월도에는 119지역대, 농협,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위치하며 대이작도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함. 인구가 가장 적은 선갑도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고 있음

<표 2-12> 자월면 도서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총인구	세대
자월면	자월도	737	458
	대이작도	269	163
	소이작도	101	69
	승봉도	241	146
	선갑도	4	4
합계		1,352	840

자료 : 인천광역시 유인섬 통계자료(2024),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나. 산업 현황

- 2022년 기준 웅진군 소재 사업체는 2,692개소, 종사자는 7,981명으로 전년 대비 각 3.8%, 0.6% 증가함. 유형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이 1,189개소(44.2%)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15.5%), 건설업(8.0%) 등 순으로 나타남
- 덕적면 소재 사업체는 185개소로 웅진군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이 42.2%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9.9%)를 보임. 자월면의 경우 총 214개소로 웅진군 전체의 약 7.9%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숙박·음식점업이 120개소로 자월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3> 웅진군 사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웅진군		덕적면		자월면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합계		2,692	7,981	185	517	214	445
1차	농업, 임업 및 어업	20	76	2	6	2	19
2차	광업	1	2	0	0	0	0
	제조업	91	227	2	6	1	1
	건설업	215	1,115	14	57	10	30
3차	전기·가스·증기업	30	1,040	6	41	2	26
	수도·하수·폐기업	7	21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416	672	27	35	26	32
	운수·창고업	150	294	7	19	11	13
	숙박·음식점업	1,189	1,947	78	136	120	189
	정보통신업	16	60	1	7	1	3
	금융·보험업	14	109	1	10	1	5
	부동산업	93	114	3	3	0	0
	전문·과학·기술업	15	59	1	5	0	0
	시설관리·지원업	49	281	3	7	5	8
	공공행정·국방	44	696	6	85	6	57
	교육서비스업	52	450	3	53	3	10
	보건업·사회복지업	51	417	7	16	7	20
	예술·스포츠·여가업	66	139	2	2	4	4
	협회·기타개인서비스업	173	262	22	29	15	28

자료 : 제63회 웅진군 기본통계연보(2023)

다. 재정 현황

- 2023년 기준 세출 총액은 약 4,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16.8%) 사회복지(15.2%), 교통·물류(13.8%) 등 순으로 조사됨
-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 규모는 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7%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및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정자립도는 11.1%로 전년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4% 하락한 50.8%로 동일 지자체 유형 평균(54.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세입의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을 의미함

<표 2-14> 용진군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출액	구성비	증감율
합계	3639	4,163	4,436	100.0	6.6
일반공공행정	309	325	309	7.0	-4.9
공공질서 및 안전	77	48	69	1.6	43.8
교육	6	10	19	0.4	90.0
문화 및 관광	214	219	330	7.4	50.7
환경보호	224	269	421	9.5	56.5
사회복지	574	652	675	15.2	3.5
보건	80	110	133	3.0	20.9
농림해양수산	662	711	745	16.8	4.8
산업·중소기업	72	141	139	3.1	-1.4
교통 및 물류	424	494	614	13.8	24.3
국토 및 지역개발	302	224	308	6.9	37.5
기타	695	960	674	15.2	-29.8

자료 : 용진군 2023 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2024)

<표 2-15> 용진군 재정현황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자립도	10.2	10.1	9.3	11.1
재정자주도	45.2	49.1	54.2	50.8

자료 : 용진군 2023 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2024)

라. 도서조직 현황

- 도서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용진군 내 주민조직은 대부분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노인회, 부녀회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조직되는 생산공동체로서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 제고 및 공동사업 수행 등 어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맡아 추진하고 있음
- 덕적면에는 덕적·소야·문갑·백아·지도 및 울도 어촌계 등 6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자월면에는 자월어촌계, 이작어촌계, 소이작어촌계, 승봉어촌계 등 4개가 있음. 현재 어촌계가 없는 굴업도의 어민들은 덕적어촌계에 소속되어 있음
- 최근 어촌계에서는 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을 통한 어촌체험 휴양마을, 수협중앙회의 어촌사랑 자매결연·재능기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촌관광서비스 제고와 숙박 및 특화시설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용진군 내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총 6개로 자월면의 자월마을과 이작마을, 북도면의 모도리마을과 장봉마을, 영흥면의 영암마을과 선재마을 등이 있으며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음

〈표 2-16〉 도서별 주민조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생산공동체	주민공동체		
	어촌계	노인회	부녀회	기타(아장단 등)
덕적도	1	1	1	5
굴업도	-	1	-	-
소야도	1	1	1	1
문갑도	1	1	1	-
백아도	1	-	1	-
지도	1	-	1	-
울도	1	1	-	-
자월도	1	3	3	-
대이작도	1	2	1	5
소이작도	1	1	1	1
승봉도	1	1	-	-
합계	10	12	10	12

자료 : 인천 섬 여건 및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연구용역(2023), 인천섬발전지원센터

3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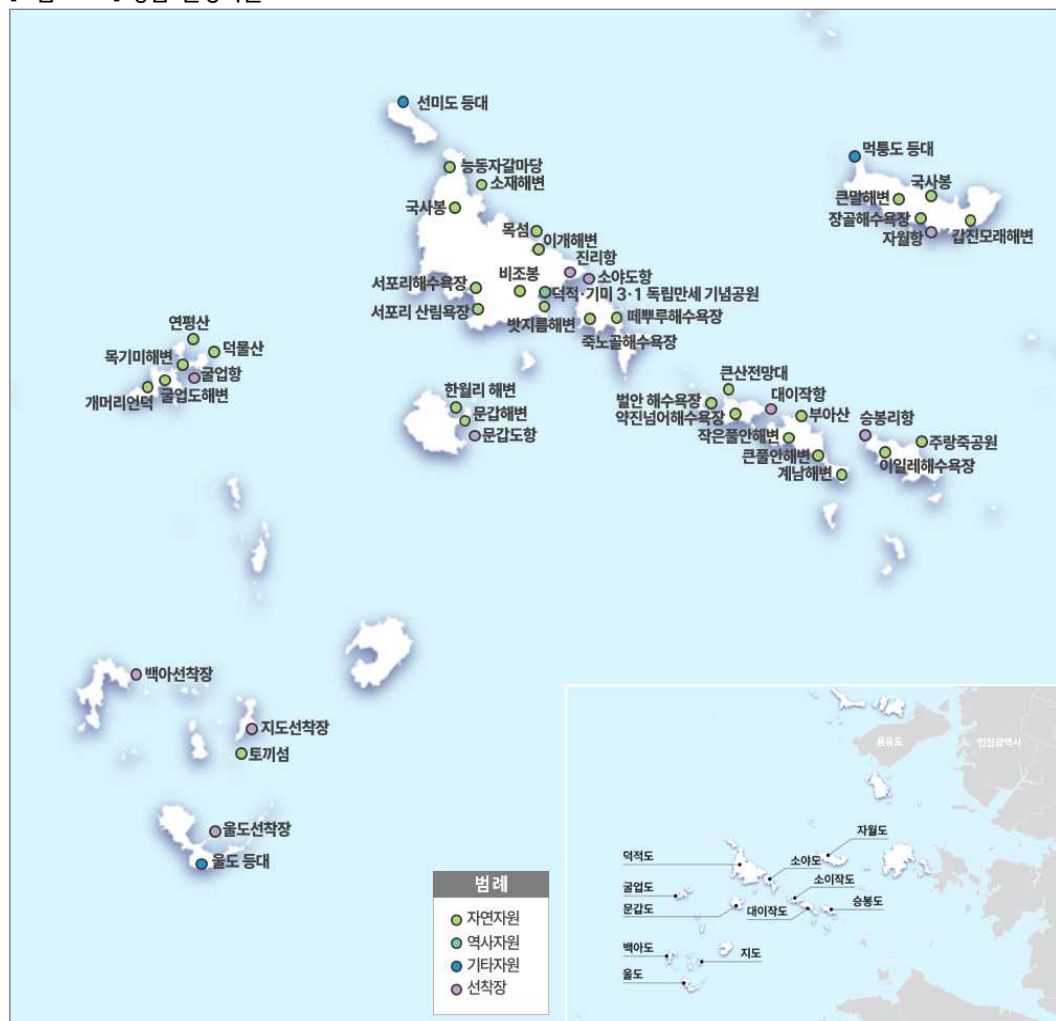
관광현황 분석

3.1 관광자원 현황

가. 관광자원 종합

- 덕적·자월군도는 대부분이 낮은 구릉성 산으로 이루어진 산지지형으로 트레킹코스, 산림욕장 등 산악자원을 비롯해 도서 전역에 육지에서 볼 수 없는 해양자원이 발달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해양자원의 경우 침식지형 및 퇴적지형이 고르게 발달하여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갯벌체험, 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체험자원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2-14] 종합 관광자원도



나. 자연자원

- 덕적·자월군도는 서해안에 위치한 섬이지만 바닷물이 맑으며 해안가에 다양한 경관이 연출되고 있음. 최근들어 덕적도, 굴업도 등이 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백패킹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해안가를 배경으로 한 굴업도 웅진숲길, 소이작도 갯티길 등을 찾는 트레킹 여행객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덕적도의 서포리 해수욕장이 캠핑객 및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장골해변갯벌, 큰마을해변갯벌 등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갯벌이 섬 전역에 발달해 생태학습 및 자연체험이 가능함

<표 2-17> 도서별 자연자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덕적면	덕적도	해양수변자원	· 덕적도항, 진리항, 서포리항, 도우항, 서포리해수욕장, 밧지름해수욕장, 밧지름해변, 서포리해변, 능동자갈마당, 낙조대, 범선전망대, 큰여전망대, 도우끝뿌리 전망대, 삼형제바위, 곰바위, 투구바위
		산림녹지자원	· 국수봉, 운주봉, 비조봉
		기타생태자원	· 서포리갯벌, 진리남부갯벌, 밧지름갯벌, 진리선착장갯벌, 북리갯벌, 이개갯벌, 젓개호수공원
	굴업도	해양수변자원	· 굴업항, 큰말해수욕장, 붉은모래해변, 목기미해변, 꼬끼리 바위, 낭개머리, 해안사구
		산림녹지자원	· 덕물산, 연평산, 개머리언덕
		기타생태자원	· 웅진 숲길 20선
	소야도	해양수변자원	· 소아리항, 선촌항, 텃골항, 떼부리해변, 죽노골해변, 큰마을 해변
		산림녹지자원	· 국사봉, 왕재산
		기타생태자원	· 강화 갯벌, 저어새 번식지
	문갑도	해양수변자원	· 문갑리항, 문갑해변, 한월리해변, 진모래해변, 어루너머 해변, 처녀바위, 병풍바위, 누적바위, 문턱부리사자바위, 할배바위, 벌집바위, 당공바위
		산림녹지자원	· 하루산, 깃대봉
		기타생태자원	· 호수공원

<표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덕적면	백아도	해양수변자원	· 보건소마을선착장, 발전소마을선착장, 기차바위, 오섬, 해식동굴
		산림녹지자원	· 남봉
		기타생태자원	· 남봉 등산로
	울도	해양수변자원	· 울도항, 목넘어 해변, 당개부리, 울도등대
		산림녹지자원	· 당산, 북망산, 당산 팔각정
	지도	해양수변자원	· 지도항, 몽돌해변
자월면	자월도	해양수변자원	· 자월1리항, 자월2리항, 장골해수욕장, 큰말해수욕장, 하늬해변, 진모래해변, 별난금해변, 갑진모래해변, 독바위, 떡바위, 먹통도 등대, 목섬 정자각 전망대
		산림녹지자원	· 국사봉
		기타생태자원	· 장골해안갯벌, 큰말해안갯벌
	대이작도	해양수변자원	· 대이작항, 계남항, 큰풀안해수욕장, 작은풀안해수욕장, 목장불해변, 예동해변, 큰삭금, 작은삭금
		산림녹지자원	· 송이산, 부아산
		기타생태자원	· 대이작도 해안산책로
	소이작도	해양수변자원	· 소이작항, 벌안해수욕장, 약진넘어해수욕장, 손가락바위, 풀등, 벌안정자각, 해변길 팔각정, 풀등전망대
		산림녹지자원	· 큰산, 큰산전망대
		기타생태자원	· 소이작도 갯티길
	승봉도	해양수변자원	· 승봉리항, 이일레 해변, 부두치 해변, 부채바위 해변, 쫓대바위 해변, 목섬, 남대문바위, 부채바위, 삼형제바위, 쫓대바위
		산림녹지자원	· 당산 산림욕장
		기타생태자원	· 주랑죽공원, 연꽃단지, 산림욕장

[그림 2-15] 주요 자연자원 현황



다. 역사문화자원

- 섬 지역의 특성상 육지에 비해 역사유적이 적게 나타나며 주로 패총(貝塚, 조개무덤) 등 해안지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인문자원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과거부터 지역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이에 어업과 관련된 관습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음
- 주로 선원들의 무사귀환 및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져 산세를 따라 제천단, 서낭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선의 출입이나 해적선의 출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봉수대가 사용되어 국사봉, 부아산 등에 봉수터가 남아 있음

<표 2-18> 도서별 역사자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덕적면	덕적도	· 북리 쑥개패총, 서포리 패총, 진리 패총(5), 덕적도 진리 추정 지석묘(2), 덕적진 터, 서낭당 터, 국수봉 제천단, 최홍련 주택, 진리 유물산포지(3), 덕적기미 3·1운동 독립만세 기념공원
	굴업도	· 굴업리 패총(2)
	소야도	· 나루개 패총(2), 턱골 패총(3), 분교 패총, 큰말 패총(2), 나루개 유물산포지, 큰말 유물산포지, 소정방유래지
	문갑도	· 문갑리 패총(2), 문갑도 유물산포지
	백아도	· 백아리 패총(2), 백아도 고인돌, 백아도 유물산포지
	울도	· 울도리 패총
자월면	자월도	· 어류골 패총, 사슴개 패총, 자월3리 패총, 국사봉 봉수터,
	대이작도	· 이작1리 패총(5), 부아산 봉수터
	승봉도	· 분무패총, 이일레해수욕장 패총(2)

[그림 2-16] 주요 역사자원 현황



라. 체험자원

- 덕적·자월군도는 도서 전역에 분포한 산지, 해안 등 지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자원이 발달하였음. 산악자원의 경우 트레킹코스과 더불어 덕적도 자전거라이딩 코스 등이 있으며 완만한 해안가를 따라 도보여행코스가 조성되어 있음. 대표적으로 덕적도 으름실 산책로, 소이작도 갯티길 등이 알려져 있음
- 한편 해양자원 경우 지역 주민조직인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어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자월도 장골갯벌체험학습장, 큰마을해변갯벌체험장 등이 있으며 바지락 캐기 및 맨손고기잡이, 바다낚시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며 어촌사회의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 방문객에게 어촌 교류의 기회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됨
- 덕적·자월군도의 축제자원으로는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주섬주섬 음악회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야도 굴축제, 문갑도 자구리 축제 등이 개최되어 굴 채취, 자구리 낚시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표 2-19> 도서별 관광자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덕적면	덕적도	· 트레킹코스, 자전거라이딩코스, 으름실 산책로, 호박회관, 덕적바다역시장, 에고에너지홍보관, 남항유어선, 주섬주섬 음악회
	소야도	· 소야도 굴축제
	문갑도	· 트레킹, 백패킹, 바다낚시체험, 자구리 축제
자월면	자월도	· 장골체험학습장, 큰마을해변 갯벌체험장, 자월어촌체험마을
	대이작도	· 해양생태관, 이작어촌체험마을
	소이작도	· 갯티길, 미술벽화길

[그림 2-17] 주요 체험자원 현황



마. 특화자원

- 덕적·자월군도의 주요 인물로는 임용우, 허광모 등 만세운동과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과 김광우, 박정수 등 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 활동하는 등 종교적 인물이 있음. 이외에도 김명호, 송명헌 등 학교 설립하거나 학문의 선구자, 교사로서 교육에 이바지한 인물 또는 전 미카엘과 같이 마을에 공덕을 쌓은 인물도 다수 전해짐
- 기암괴석이 다수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바위에 얹힌 설화가 전해 내려오며 주로 바위에 생겨나게 된 배경을 다루며 바다 생물이나 어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음
- 인천섬발전지원센터에서는 단호박, 굴, 바지락 등 각 섬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음. 덕적·자월군도에 위치한 소이작도 관광안내소에는 특산물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굴축제 등을 통한 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짐. 또한 덕적도에서는 별도로 호박회관을 운영해 특산물인 단호박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음

〈표 2-20〉 도서별 인물자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덕적면	덕적도	인물	· 김현호, 문홍근, 박정수, 송명헌, 이동웅, 이재관, 임용우, 정수창, 차경창, 허광모
		이야기	· 선돌바위 전설, 말바위 전설, 삿갓산 전설, 왕주물 전설, 선미도의 전설, 선단여의 전설
		특산물	· 단호박, 포도, 표고버섯
	소야도	인물	· 김연하, 배기주
		이야기	· 장사바위 전설
	문갑도	이야기	· 중의절굴 전설
		특산물	· 고구마, 굴, 우럭
	백아도	인물	· 황세윤
		이야기	· 백아도의 전설
자월면	자월도	인물	· 전 미카엘, 강경모, 강윤익, 김수길
		이야기	· 마귀할멈의 공깃돌, 장골 수레길, 벼락바위
		특산물	· 굴, 등굴레, 바지락, 수수
	대이작도	이야기	· 오형제바위
		특산물	· 감자, 전복, 콩, 해삼
	소이작도	특산물	· 건어물, 건조등굴레, 건조고사리, 굴, 바지락
	송봉도	이야기	· 부채바위 전설
		특산물	· 굴, 소라, 우럭, 전복

바. 관광편의시설

- 덕적·자월군도 내 운영 중인 관광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덕적도, 자월도, 대이작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관광도서로 알려진 섬에 집중되어 있음
- 그중 숙박시설은 대부분 펜션이나 민박으로 객실 유형, 규모 등이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식음시설은 숙박시설에 비해 개수가 적으며 위생,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요구됨
- 관광안내시설로는 대이작도 관광안내소 5개소,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1개소, 자월도 장골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덕적면 내에는 별도의 안내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외 관광안내판, 이정표, 등산로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음

〈표 2-21〉 도서별 관광편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식음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덕적면	덕적도	32	32	22	0
	굴업도	1	8	3	0
	소야도	2	6	4	0
	문갑도	0	4	4	0
	백아도	0	2	1	0
	지도	0	0	0	0
	올도	0	0	1	0
자월면	자월도	14	27	11	1
	대이작도	8	49	9	5
	소이작도	5	8	3	1
	승봉도	6	23	9	0
합계		68	159	67	7

[그림 2-18] 주요 관광·편의시설 현황



3.2 관광객 현황

가. 총 관광객 수

- 2024년 기준 용진군 관광객 수는 5년 전 대비 2.2% 감소한 69만 명이며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관광객수는 섬 거주민을 제외한 입도객 수로 집계되고 있음. 그중 덕적·자월군도의 관광객 수는 약 26만 명으로 용진군의 37.0%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군내 점유율 역시 상승하고 있음
 - 월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트레킹, 체험활동 등 야외 활동이 용이한 봄·가을철과 해수욕이 가능한 여름철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있음
- 덕적면의 총 관광객수는 약 12만 명으로 용진군의 1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5년 전 대비 2.8% 증가하였음
- 자월면의 총 관광객 수는 약 13만 명으로 용진군의 약 19.0%를 차지하여 2배 면적인 덕적면 관광객 수보다 군내 관광객수 점유율이 높음. 최근 5년간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전 대비 4.0%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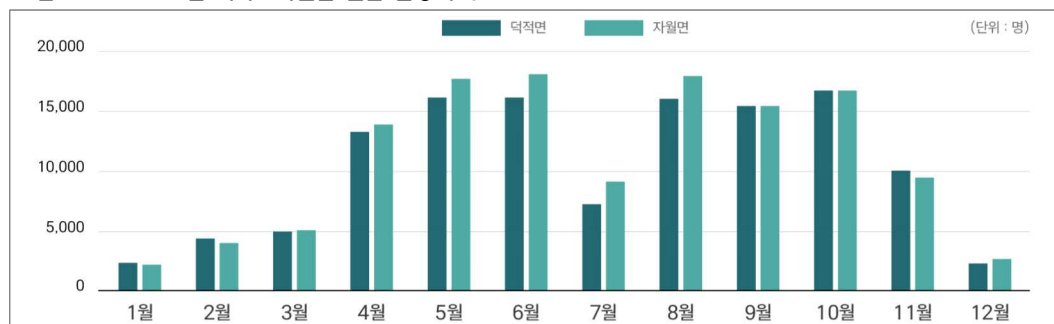
<표 2-22> 덕적·자월면 연간 관광객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진군	관광객수	708,830	705,509	726,849	673,378	693,328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덕적면	관광객수	121,214	123,088	134,116	125,041	124,563
	점유율	17.1	17.4	18.5	18.6	18.0
자월면	관광객수	126,935	110,727	135,216	130,917	132,042
	점유율	17.9	15.7	18.6	19.4	19.0

자료 : 관광자식정보시스템(know.tour.go.kr); 한국해운조합 내부자료

[그림 2-19] 2024년 덕적·자월면 월별 관광객 수



나. 도서별 관광객 수

- 덕적·자월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도서는 덕적도(106,211명)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년 1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음. 덕적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덕적도 관광객이 전체의 약 8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굴업도 13,274명(10.7%), 문갑도 1,858명(1.5%) 순으로 나타남
- 덕적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굴업도, 지도, 울도 등 증가 추세에 있음. 반면 소야도는 2018년 덕적도로 이어지는 연도교가 개통되어 2021년에 인천-소야도 운항이 중단되면서 입도객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됨
- 자월면의 경우 승봉도 관광객이 47,645명으로 자월면의 약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월도 40,496명(30.7%), 대이작도 30,386명(23.0%), 소이작도 13,515명(10.2%)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승봉도는 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2020년 대비 관광객이 29.4% 증가하면서 2024년 처음으로 자월도보다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음. 반면 그 외 섬들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월도는 2020년 대비 14.9% 감소함
 - 자월도는 2021년부터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의 대상지로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효과가 미비하고 천문공원 조성사업 또한 지체되면서 관광객 수 회복세가 부진함

〈표 2-23〉 2024년 덕적·자월군도 도서별 관광객수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2년	2024년	구성비
덕적면	덕적도	95,428	114,680	106,211	85.3
	굴업도	11,783	12,965	13,274	10.7
	소야도	9,621	983	494	0.4
	문갑도	1,762	2,321	1,858	1.5
	백아도	1,742	1,841	1,633	1.3
	지도	310	366	335	0.3
	울도	568	960	758	0.6
	합계	121,214	134,116	124,563	100.0
자월면	자월도	50,659	47,883	40,496	30.7
	대이작도	30,856	34,437	30,386	23.0
	소이작도	13,668	15,372	13,515	10.2
	승봉도	31,752	37,524	47,645	36.1
	합계	126,935	135,216	132,042	100.0

자료 : 한국해운조합 내부자료

4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집행환경 분석

4.1 상위계획 검토

가. 중앙부처 계획

- 섬과 관련한 계획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음. 특히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도서의 정주환경 개선,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이 추진 등 전반적인 개발 및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섬 관광과 관련된 주요 계획은 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K-관광섬’ 등이 있음. 현재까지 총 5개의 섬이 K-관광섬에 선정되었으며 선정 시 관광수용태세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섬 관광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표 2-24> 부처별 관련 계획

구분		주요 내용
행정 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8~2027)	· 비전 :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 · 목표 : 품격높은 삶의 터전으로서 섬,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섬, 영토수호 거점으로서 섬 · 추진전략 - 소득증대·일자리 확충으로 섬 활력 제고 -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증진 - 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육성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창출 - 중심마을 육성을 통한 주민생활 개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2011~2030)	· 비전 :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 · 웅진군 관련 : 모도~장봉도간 연도교 신설, 승봉도~대이작도간 연도교 건설,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접경(섬)지역 경관개선,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명품섬 베스트 10 (2011~2014)	· 총 10개 섬 선정 및 사업지원 · 섬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한 유형화 및 클러스터 사업 - 생태자원 체험관, 해양데크 및 낚시공원 조성, 돌담정비 등 · 인천광역시의 경우 2개 섬 선정 - 교동도(근대문화공간 조성), 대이작도(바다 생태마을 조성)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2016~2024)	· 섬 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특성화 사업 · 매년 걷기좋은 섬, 사진찍기 좋은 섬, 이야기 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선정 · 2023년 인천광역시 대상 섬 33개 중 교동도(이야기섬) 선정

<표 계속>

구분		주요 내용
국토 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인천 기본목표 : 공동체도시/일자리도시/관광도시/녹색해양도시 · 인천 발전방향(관광부문) -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 -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2021~2030)	· 비전 : 모두를 위한 일터, 함께 누리는 삶터, 서해안권 · 웅진군 관련 : 서해안권 10대 '보고싶은 섬' 조성(영흥도, 풍도, 장고도, 덕적도, 장지도, 장봉도, 가의도, 위도, 외연도, 어청도의 경관 특화 및 명소화), 인천 승봉~대이작도 연도교 건설(L=3.1km, 해상교량 1.1km+접속도로 2.0km)
	어촌지역소득증대사업 (1994~2013)	· 어촌기반 확충과 어촌관광 활성화(섬지역 어촌 포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008~2017)	· 186개 섬 대상 생활기반 확충, 소득 증대, 경관 개선사업 등
문화 체육 관광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22~2031)	· 인천 기본방향 : (수도·강원·제주권) K관광 선도지대 · 인천 개발방향 : 나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 지역고유 특성인 인천다움 발굴과 관광콘텐츠화 -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 - 지역내 산업연결망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2007~2011)	· 시설기반 구축,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안내, 주민 교육 등 - 외연도, 청산도, 흥도, 매물도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2009~2011)	· 상징공간 조성, 연계 관광코스 개발, 친환경 문화관광 자원 개발 - 가거도, 마라도, 독도, 백령도
	K-관광섬 (2023~2026)	· 비전 : 세계인의 매력있는 관광명소, K컬처의 섬 · 목표 : 더 많이, 더 오래, 더 즐거운 · 추진전략 -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한 K컬처 매력도 증대 -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체류기반 조성 - 창의적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 섬 지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실시 - 섬 관광 인증제도 도입 및 섬 관광 관리체계 마련 · 선정 대상 : 백령도(웅진군), 흑산도(신안군), 거문도(여수시), 울릉도, 말도·명도·방축도(군산시)
환경부	섬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997~2010)	· 섬 지역에 관정개발, 해수담수화시설, 관로 정비 등 지원 · 인천광역시에서 섬지역 식수원 확충을 위한 별도 사업 병행
해양 수산부	제3차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2021~2030)	· 비전 :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 목표 :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이르는 상생의 바다 · 추진전략 : 해양수산의 안전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 연안 조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어촌뉴딜 300사업 (2019~2022)	· 어촌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촌·어항 통합 개발 추진 (3년간 사업선정,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사업기간 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3~2027)	·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 어촌경제거점조성, 자립형어촌생활권조성, 생활안전시설개선

나. 인천광역시 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광역시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내·외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 2040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시민계획단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를 중요시하여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으로 정하고 3대 목표와 12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음
 - 핵심전략 중 ‘해양도시 위상 강화’ 는 육지와 바다를 잇는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대상지에 덕적·자월권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성이 높으며 세부사업으로 항·포구 친수기반 확충, 인천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이 제시됨
- 한편 생활권 계획에서는 웅진생활권 발전을 위한 별도의 미래상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섬 내부 순환교통 체계 개선, 연륙도 및 연도교 건설 지속 추진, 마리나 인프라 구축, 도서지역 유희부지 활용, 선착장 시설 개선·확충 등이 제시되었음

<표 2-25>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미래상	·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1> 다 같이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 성장관리형 토지이용계획 · 스마트 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
	·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 개발 ·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복지실현
	<목표 2>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
	· 해양도시 위상 강화 ·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 역사·문화벨트 조성
	<목표 3>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생활권 계획	· 자원순환 환경도시 조성 · 친환경 미래 교통기반 구축
	· 행복 체감 녹색도시 조성 · 고유의 경관가치 창출
	· 중부생활권 : 내항 재개발을 통한 시민개방형 친수공간, 워터프론트 조성 등
	· 영종생활권 : 인천국제공항 연계 항공산업 거점 마련 및 국제관광·휴양 기능 특화
	· 서남생활권 : 수도권 접근성(GTX-B 개통)을 활용한 국제·업무·관광기능 강화
	· 동남생활권 : 구월 구도심과 남동산단 간 물리적 단절 해소 및 제2경인선 철도 연계
	· 동북생활권 : 계양신도시~계양산단~서운산단~부평산단 연결 지식산업벨트 구축
	· 서북생활권 : 청라 중심지역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신개발지역 밀도 관리
강화생활권	· 강화생활권 : 자원 발굴 및 광역도로 연결성 확보를 통한 관광·평화도시 조성
	· 웅진생활권 :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족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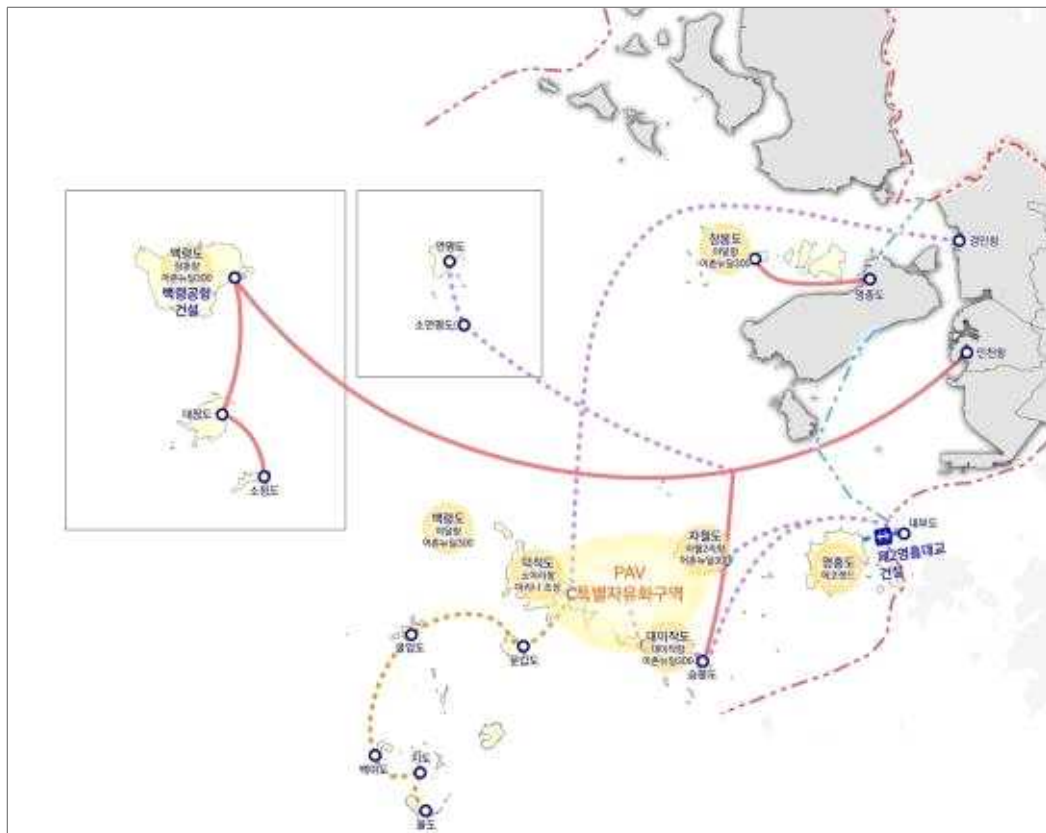
자료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24)

〈표 2-26〉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 용진생활권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미래상	· (용진생활권) 청정, 힐링의 섬
실행방안	·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지방상수도 보급, 해수담수화 등) - 도서지역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확립을 통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 · 해상교통망, 미래교통 확충 - 도서간 해상교통 노선(제2영흥대교 건설) 확충을 통한 육지부 접근성 제고 - 인천 도서 간 연결하는 미래항공기 PAV를 도입하여 섬 접근성 강화 - 덕적도~자월도~대이작도를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청정, 힐링의 섬 조성 - 초지도 북쪽, 굴업도 남서쪽 해상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 섬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 및 사회 복지 - 잦은 여객선 통제·대기로 불편 겪는 주민들을 위한 용진군민 전용 도미토리/호텔조성(연안부두 일원) - 섬 내부 순환교통 체계개선, 연륙도 및 연도교 건설 지속 추진 · 도서관광 확대 - 마리아 인프라 구축 : 소아리항, 대이작항에 소규모(20선석) 마리아 설치 - 도서지역 유희부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 및 주민-관광객 간 거버넌스 구축 - 선착장 시설 개선·확충을 통한 접안여건 개선

자료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24)

[그림 2-20] 용진생활권 구상도



Global Top10 City INCHEON

- 인천광역시는 2023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할 인천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에서 최적의 정주여건과 혁신성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국제적인 영향력과 연결성을 지닌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발전하기 위해 ‘Global Top10 City INCHEON’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투자유치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의 3대 목표를 기반으로 6대 추진전략과 22개 단기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 덕적·자월군도와 관련하여 ‘보물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실천과제 제시하고 있으며 인천의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정비하기 위해 덕적군도의 중심도서인 진리항 일원의 관문과 랜드마크 시설을 정비하는 ‘덕적군도 명소화 사업’이 포함됨

〈표 2-27〉 Global Top10 City INCHEON 추진전략

구분	주요 내용		
비전	· 세계인의 마음길을 여는 제3의 개항으로 “Global Top10 City INCHEON” 구현		
목표	① 투자유치 활성화	② 원도심 활성화	③ 글로벌 브랜드화
6대 추진전략	〈전략 1〉 Genesis :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		
	〈전략 2〉 Growth :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전략 3〉 Ground :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기대		
	〈전략 4〉 Gathering :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		
	〈전략 5〉 Glory :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		
	〈전략 6〉 Geography :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덕적군도 명소화 사업	· 덕적도 어촌마을 활성화 － 경제활성화: 어촌자원을 활용한 창업·창작센터 조성 － 정주여건개선: 마을환경정비, 어촌스테이션 등 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 바다역기능강화: 여객선+UAM(버티포트)+PM 등 도서관광객 환승거점화 · 1일 생활권 조성 － 해상교통에 의존하던 도서지역에 항공교통을 도입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응급의료 등 활용(도서↔육지, 도서간 순환노선) · 덕적권역 네트워킹 － 진리항에서 40분 내 도서를 연결하는 해상 및 공중교통망을 정비 (굴업도, 자월도, 대이작도, 문갑도, 백야도, 승봉도 등) · 소야도 문화예술거점 조성 － 랜드마크로 인천의 ‘해양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 예술섬 나오시마 벤치마킹 : 시설개선(부두정비, 지중미술관, 국제예술제 등) 및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노인 3천의 섬이 30만 관광지로’) · 자월·덕적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 섬의 가치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섬 특화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❶ 인천 섬 관련 정책

- 인천광역시는 <인천 정책로드맵 2040>을 수립하여 인천 미래 20년을 선도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고자 함. ‘인천 섬,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섬 만들기’를 비전으로 섬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해양정원·명품섬 10개 만들기, 해양관광 부가가치 10조 원 등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함
- 인천광역시는 계획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확대 개정하였으며 서북도서 선박 운항규정 개선, 인천해역 주변 해양레저 금지구역 재설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천 섬 브랜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정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접근성 개선, 대규모 관광개발, 홍보마케팅 등은 본 과업과도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바다패스, 해양정원 등은 인천 섬 브랜드의 주력사업으로 기존 계획 검토를 통해 보완 및 연계방안 마련이 요구됨

[그림 2-21] 인천 섬 브랜드 전략비전(안)



<표 2-28> 인천 섬 브랜딩 전략(안)

구분	전략과제명	주요 내용
전략과제 1	섬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인천 i-바다패스 시행 · 새로운 접근수단 서비스 도입
전략과제 2	인천 섬 해양정원 프로젝트	· 인천섬 i-해양정원 사업 · 해양관광태세 현대화 및 특색화 추진
전략과제 3	국제 섬 박람회 개최	· 세계 섬 박람회 유치 · 섬 르네상스 국제예술제 개최
전략과제 4	인천 섬 해양관광길 개발	· 인천 해양관광길(i-Ocean Route) 개발 · 해양스포츠 및 마리나 산업 활성화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❶ 인천 섬 주요 사업

- 인천 섬 주요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섬 특성화 사업과 인천 섬 체류형 관광상품인 ‘인천 섬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대표적임. 인천 섬 특성화사업은 ‘살고 싶은 섬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을 비전으로 주민이 사업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인천 섬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사업 역시 주민주도사업으로 참가자들은 섬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섬 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 202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까지 누적 참가자 수가 5,5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간 참가자 수 : 2021년 416명, 2022년 608명, 2023년 1,608명, 2024년 2,884명
- 두 사업 모두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섬 특성화 사업을 통해 섬 관광을 위한 마을 기반이 조성되고 이를 상품화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표 2-29> 인천 섬 주요사업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용진군	대이작도	· 해양생태관 조성, 해양탐방로 설치, 삼신할미약수터 조성 등
	덕적도	· 단호박 가공체험장 및 공동재배단지 조성 등
	문갑도	·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 등
	소이작도	· 여행자센터 조성, 경관개선사업, 갯티길 트레킹코스 개발 등
	승봉도	· 승봉힐링캠핑장,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조성, 연꽃체험단지 조성 등
	신도 · 모도 · 시도	·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 배후지 경관조성사업
	영흥도	· 진두마을 카페 터미널, 십리포 해수욕장 포토존 조성사업 등
	장봉도	· 갯티길 구성, 장봉도 여행자센터 조성, 선착장 경관개선 사업 등
	대청도	· 브랜드 개발 및 법인설립 사업운영지원 등 사업예정
	백령도	·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 등
	소청도	· 주민 설명회 실시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연평도	· 연평베이커리 조성, 이야기가 있는 상징물 설치 등
강화군	석모도	· 나룻부리항 경관개선사업, 해미지 체험관 조성 등
	교동도	· 교동 제비집 조성, 연산군 유배지전시관, 모노레일 조성 등
	불음도	· 저어새둥지 게스트하우스 운영, 해안생태탐방로 정비 등
중 구	소무의도	· 소무의도 스토리움 조성, 이야기 안내체계 정비사업 등
서 구	세어도	· 야생화 세어숲 만들기, 세어도 특화음식 개발

자료 : 거점 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2024)

다. 옹진군 계획

2040 옹진군 장기종합발전계획

- 옹진군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특화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2040 옹진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정자연 섬 매력과 여유가 풍성한 옹진’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함
- 비전과 더불어 3대 목표와 7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도시주택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 복지보건교육, 생태환경안전, 산업경제일자리, 농어업농어촌, 기획행정자치 사업 등을 구분하여 도출하였음
- 해당 계획에서 제시된 공간구상을 살펴보면 옹진군을 북부권·남부권·동부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덕적·자월권은 남부권에 포함됨. 남부권은 풍부한 자연해상자원을 기반으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선박·항로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2-30〉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		· 청정자연 섬 매력과 여유가 풍성한 옹진		
3대 목표		머물고 싶은 삶터	넉넉한 일터	이국적인 쉼터
분야별 사업	도시 주택 도로 교통	· 바다위를 달린다 섬과 바다를 하나로! 해상교통 도입 · 해상교통사각지대 및 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추진		· 섬 지역 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충 · 섬과 육지를 하나로 해저터널 건설 · 연륙연도 조성지역 내 섬 내부 순환교통 개선
	문화 관광 체육	· 7 Color of Island 프로젝트 · 옹진 Fun&Art 아일랜드 조성 영흥~북도 · 바다와 별과 꽃과 자유의 섬 덕적~자월 · 태고의 자연과 미식의 섬 연평 · 백령대청 상륙작전 프로젝트 · 신MZ 여행거점 조성 · 옹진 관광통합플랫폼 구축		· 도도한 옹진 워케이션 조성 · 생생할력 스포츠 아일랜드 조성 · 옹진 마린콘서트(해양문화예술) · 섬 엑스포 개최 · 바닷길과 하늘길 환승투어거점 조성 · 옹진 ㄹ디스커버리 · 옹진형 K-컬처 해양축제, 이벤트 육성
공간구상		· 옹진북부권 :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 주요사업 : 백령공항 국제선/면세점/배후지 개발, 농수산물 스마트 물류단지, 평화경제특구, 기독교 성지 순례, 백령호 생태복원 및 수상레포츠 강화 등 · 옹진남부권 : 덕적면, 자월면 - 주요사업 : 크루즈 항로 유치, 해상낚시공원 조성, 해상풍력단지 관광자원화, 야생화 단지, 최고령 아일랜드 정원, 컨셉형 숙박시설, 천문공원 스카이워크 등 · 옹진동부권 : 북도면, 영흥면 - 주요사업 : 자전거 이음길, 섬 자전거 대회, 낭만포차거리, 워케이션 거점, 산림 치유 휴양림, 반력동물 친화해변 및 테마파크, 관광플로깅 명소 조성 등		

자료 : 2040 옹진군 장기종합발전계획(2024)

❶ 웅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 웅진군은 섬 권역별 특색있는 중장기 관광진흥 구상에 역점을 두고 관광자원, 해상교통 체계, 관광행태 등을 분석하여 <웅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2019)>을 수립하였음
- 특히 웅진군이 향후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단계별(3단계)로 제시하였고 단계별 세부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였음. 6개 세부목표별 제시된 전략사업은 총 53개이며 거점시설 조성, 자연환경 기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였음

<표 2-31> 웅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사업추진 단계

1단계(2020~2022)	2단계(2023~2025)	3단계(2026~2030)
가보고 싶은 섬 위상 구축	수용태세개선 및 테마상품 확충	관광 휴양기반 확충
· 관광브랜드/이미지 구축 · 기존자원 활성화/매력 확충	· 공공주도 자원/상품 개발 · 물리적/인적 수용태세 개선	· 민자유치형 사업 · 기타 장기 추진사업

<표 2-32> 웅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세부목표 및 전략사업

세부목표	전략사업	
예술적 감성의 섬 (10개 전략사업)	· 웅진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 웅진 관광벤처 발굴 및 지원 · 소야도 문화관광거점 조성 · 문화가 있는 조망공원, 심청각 · 웅진 섬 문화 박람회	· 신시모 마을 공작소 · 디자인 섬 프로젝트 · 섬 자연미술 축제 · 웅진 아트 전망대 · 미술관 및 문화예술 시설 유치
순수 자연의 섬 (13개 전략사업)	· 달빛바람공원 · 십리포~장경리간 해안갯티길 · 시모도 감성 갯티길 · 물범 에코센터 조성 · 용기포 해양관광거점 조성 · 용트림바위 지질탐방로 · 지질관광기반 조성 및 투어 운영	· 습지생태공원 · 섬 트레킹 천국-웅진 육성 · 다시 찾는 해변 · 해상레저 육성 · 시도 카누 학교 · 해수 스파 조성
평화공감의 섬 (8개 전략사업)	· 평화의 항구 공공디자인 · 평화공감투어 운영 · 평화의 섬 아트 프로젝트 · 중화동 교회 복원	· 십자가의 길, 공소 스토리텔링 · 서정이 흐르는 선진포 부두공원 · 파사와 바다역 · 섬마을 스테이 육성
아름답고 편안한 섬 여행 환경 조성 (9개 전략사업)	· 섬 통합 공공디자인 · 아름다운 섬 마을 콘테스트 · 경관농업 및 경관농업축제 실시 · 입도 교통접근성 개선	· 개별여행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여행자센터 설치 및 운영 · 관광안내표지 통합 디자인 설치
관광휴양 인프라 확충 (4개 전략사업)	· 밋지름 에코휴양림 · 문갑 시인의 마을 조성	· 농어촌 민박 서비스 개선 · 민자 관광휴양시설 유치 추진
가고 싶은 웅진 홍보 전략사업 추진 일정 (9개 전략사업)	· 웅진 관광브랜드 홍보 · 섬 관광권별 핵심 관광경험 브랜딩 · 축제의 섬 육성 · 웅진 로컬푸드 상품화	· 웅진 아트굿즈 개발 · 영상 로케이션 홍보 ·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자료 : 웅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2019)

❶ 용진군정 방향

- 용진군은 민선8기 군정 비전을 ‘용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로 정하고 8대 과제와 34개 실천공약, 123개의 공약과제를 제시하였음
- 공약과제 중 교통부문과 관광부문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교통부문은 덕적도와 본토의 접근성 개선, 관광부문은 신규 관광지 조성 및 섬 관광명소화, 섬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성이 높음
- 특히 덕적도와 본토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항횟수를 증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지의 경우 자월도의 야생화(복수초, 바람꽃) 단지를 조성하여 자월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관광명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표 2-33〉 용진군 민선8기 공약 및 세부과제(교통·관광부문)

과제	실천공약	공약사업
군민편의 교통혁신	오고가기 편한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	· 북도면 배 운항시간 합리적 조정 · 덕적면 자도와 본토의 1일 생활권 확보 · 오전 출발 여객선 확보를 통한 주민편의성 향상
다시찾는 명품관광	관광명소 개발로 고품격 힐링섬 브랜드화	· 큰 야달항과 주변 무인도 관광상품 개발 · 하늬해변 수도권 생태관광 대표 브랜드화 · 구 용기포항의 환경개선을 통한 활성화 · 두무진 관광명소화 추진 · 덕적면 연안 무인도서의 관광명소화 추진 · 능동 자갈마당 복원 및 주변 관광명소화 추진 · 서포리 해수욕장 관광 명소화 추진 · 천문공원의 조기 관광과 운영대책 마련 · 자월 야생화(복수초, 바람꽃) 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명소화 · 자월3리마을 앞 해안가 관광명소화(해안데크 및 수상정자) · 십리포 ·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추진
	덕적면 자도 방문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 시행	· 덕적면 자도 방문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 시행
	문화 관광자원 발굴 및 문화인프라 확충	· 백령 근대문화공원 조성 · 소아리 문화공간 창출 및 둘레길 완성 · 계남 분교 복원 및 관광명소화 추진 · 영흥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박물관 유치 ·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 활성화
	낚시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 대청 낚시산업 활성화 · 덕적 해상낚시 공원 조성
	해수욕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웅암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진행 · 소아리 바지름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자료 : 용진군 내부자료

❶ 웅진군 주요 사업

- 웅진군에서 추진 중인 섬 주요사업들은 대부분 교통·관광부문의 사업이 많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음. 해당 사업은 건설과, 산림과, 교통과, 수산과, 관광문화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사업 중 덕적면·자월면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이작도~소이작도간 연도교 건설,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 자월도 힐링 꽃섬 조성,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인천 섬 명소화 사업 등이 있음
- 특히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의 경우 관광문화과 사업 중 ‘백령도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과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섬의 입지적·지형적 강점을 활용하여 천문과학관을 도입함으로써 섬 집객력과 명소화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섬 관광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공모사업 등의 국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기존사업과의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2-34> 웅진군 섬 주요사업(교통·관광부문)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소관부서
교통	대이작도~소이작도간 연도교 건설	자월면 이작리·2리	47,001	20~27	건설과
	덕적 외곽도서 선착장 정비	백아리2항, 울도선착장, 굴업리항, 지도항, 문갑리항	20,500	25~27	수산과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대·소이작도, 승봉도, 장봉도	200	25	수산과
	섬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	-	교통과
관광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덕적면	4,500	25	수산과
	자월도 힐링 꽃섬 조성(지방정원)	자월면	4,500	25~	산림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	덕적면	-	-	녹지과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자월면 자월리	5,500	22~25	관광 문화과
	인천 섬 명소화 사업	자월면 대이작도	3,150	23~25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7개면	320	25	
	관광개발사업 확충 및 정비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2,200	25	
	해상보행로 조성	연평면, 자월면	1,735.5	25	
	서포리 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사업	덕적면 서포리	5,000	25~27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	덕적면 서포리	5,900	23~	
	관내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	서포리 해수욕장, 대이작도	290	25	
	계남분교 복원사업	자월면 이작리	4,200	25~26	

자료 : 웅진군 주요업무계획(2025)

4.2 관련 법규 검토

가. 섬 관련 주요 법률

- 섬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 정주기반, 지역개발, 생태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주기반과 관련된 법률은 「섬 발전 촉진법」,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음
-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생태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섬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는 유인도서만 포함되어 있으나 덕적·자월권에 속한 무인 도서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도서에 한하여 국가 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통해 제도적 관리를 고려할 수 있음

<표 2-35> 섬 관련 주요 법률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정주 기반	섬 발전 촉진법	제1조 (목적)	·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지정섬)으로 지정함 ·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에 의하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제6조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섬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 섬지역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 섬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존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계속>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정주 기반	어촌특화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
		·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
		·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함 ·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함 ·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함
		제2조 (정의)
지역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해양관광진흥 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 투자활성화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 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생태 환경	무인 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6조 (종합관리 계획)

<표 계속>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생태 환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원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함
		제43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제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 가능성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독도 등 섬 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함
		제8조 (행위제한) ·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증축 -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 입목·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및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령에 제시된 국토외곽 먼섬 정의(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의하면 덕적도, 자월도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지원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6〉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구분		주요 내용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제5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의료·주거·문화·통신·수도·전기·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도로·항만·공항 교통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기반시설 설치 등)	· 국가 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시설 - 수도·전기·가스·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 도서관·박물관·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 양로원·보육원·병원 등 복지시설 -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국토외곽 먼섬)	·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함 -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다. 기타 관련 법률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사업의 육성으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지역 관광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으로 구성되며 본 법규에서는 관광 홍보 및 자원의 개발, 관광지 내 행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표 2-37> 관광진흥법

구분		주요 내용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 관련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하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관광객을 위해 음식/오락/운동/휴양/문화/예술/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이상의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가능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 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체육/레저 등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 관광지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등의 허가 필수

❁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자연공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내륙이 아닌 도서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조성할 수 있음. 덕적·자월권의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므로 자연공원 조성시 시립공원으로 조성되며 해당 법령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고시 등에 유의해야 함

<표 2-38> 자연공원법

구분		주요 내용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에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 시립공원은 시장, 구립공원은 구청장 각각 지정·관리함 ·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제4조의4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 군수는 군립공원·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 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	·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 공원구역의 면적 -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 공원구역 안의 토지 소유구분(국·공유및사유)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함 -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 지정연월일 -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❶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복지향상, 국가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은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핵심전략 중 인천해양지구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덕적·자월권에 사업 추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표 2-3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구분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해양치유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함
	해양치유자원	·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말함
	해양치유시설	· 해양,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함
	해양치유지구	·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함
	해양치유서비스	·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또는 육성할 수 있음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 -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제28조 (연안·여촌 주민 지원사업)		·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면·동에 소재한 여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유사사례 분석

5.1 사례분석 개요

가. 기본 방향

-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섬 또는 군도 등 유사한 환경적 요소를 갖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섬 인프라, 콘텐츠, 교통 그리고 지역 정체성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측면에서 국내·외 다양한 관광 도서를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선정된 조사 대상지별 개요와 일반현황 및 특이사항 등을 살펴보고 과업대상지인 덕적·자월군도와 관련한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특화발전방안의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의 기본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지 선정 및 분석 방법

- 조사 대상지는 연구진의 조사 및 내부 회의를 통해 섬 또는 군도로 이루어진 환경적 특징 및 이색적인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관광도서로서 인지도가 높은 섬을 중심으로 함
- 국내사례의 경우 관광도서로 인지도가 높은 자란도와 박지도를 선정하고 컬러마케팅과 이벤트의 측면에서 박지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민간투자 유치 기반마련 및 연계사업 측면에서 자란도의 사례를 살펴봄
- 해외사례로는 세계적인 관광도서인 마데이라섬과 몰타 공화국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체성 및 상징성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군도에서의 해상교통 체계 사례에 주목하여 덕적·자월군도 연계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표 2-40> 사례 대상지 개요

구분		위치	주요 키워드
국내사례	자란도	경상남도 고성군	· 웰니스, 민간투자 유치
	박지도	전라남도 신안군	· 컬러마케팅, 이벤트
국외사례	마데이라섬	포르투갈령 제도	· 지역성 활용 및 상품화
	몰타 공화국	남유럽 지중해	· 상징 브랜드, 해상교통

5.2 사례분석 결과

가. 자란도(하트섬)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규 모	· 0.36km ²
특 징	· 공모사업 선정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유치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하트섬으로 알려진 자란도는 2025년 관광지로 지정받아 해양치유 관광메카로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3년 해양치유센터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음
-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협력 지자체’ 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해양관광·휴양·오락시설·상가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 중임
- 투자유치 상품성 심화 컨설팅 참여, 한국관광공사 주관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전담조직인 관광진흥과 신설 등 민간사업시행자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활동 및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시사점

-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계획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한 관광단지 조성을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함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자란 관광만 구축) 등 공공에서 선(先) 투자함으로써 후(後) 민간투자 유치 형태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개발모델로서 기대되는 사례로 평가됨

[그림 2-22] 자란도(하트섬) 현황



나. 박지도(퍼플섬)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규 모	· 1.75km ²
특 징	· 컬러마케팅과 지속적인 이벤트 추진으로 사회적 이슈화

✪ 주요 내용

- 퍼플섬으로 알려진 박지도는 ‘바다 위를 걸어 보랏빛 섬여행’이라는 콘셉트를 지향하며 보라색을 중심으로 하는 컬러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음.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통일된 컬러로 도색하는 사업을 통해 젊은 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퍼플교 및 3천만 송이의 아스타 꽃밭, 문브릿지 등을 조성하여 컨셉을 유지하고 마을 곳곳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방문시 보라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이벤트를 추진함
-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했던 시기에도 20만 명이 넘는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해 2021~2022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바 있음

✪ 시사점

- 섬 전체를 ‘퍼플섬’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지역이미지 개선 및 사회적 이슈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정체성 개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또한 의상 컨셉, K-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전개함
- 반면 섬 내 숙박 및 식음시설 부족하여 관광객들의 소비활동이 주변 목포시로 유출되고 있음. 이에 군내 소비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시설 조성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

[그림 2-23] 박지도(퍼플섬) 현황



다. 마데이라섬

위 치	· 포르투갈령 제도
규 모	· 741km ²
특 징	· 지역성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주요 내용

- 마데이라는 포르투갈령 아프리카 대륙 대서양에 입지한 섬으로 포르투산투스섬, 셀바젱스섬, 데제르타섬 등과 함께 마데이라 제도라 불림. 유럽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혼재하여 마데이라섬만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보유함
- 유럽 국가에서 사계절 휴양지로 방문하는 섬이자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여건 등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한 사례임. 특히 해변, 화산 등을 활용한 트레킹 관광 명소로 알려지며 최근 럭셔리&웰니스 콘셉트를 지향하고 있음
- 유명 축구선수인 호날두의 고향으로 이를 홍보하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산품인 와인을 브랜딩하거나 마을에서 옛 집을 옮기던 썰매인 토보간(Toboggan)을 관광 탈거리로 개발하는 등 지역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광상품화하여 활용함

✪ 시사점

- 고유한 자연자원에 대한 소극적 개발을 지향하면서도 관광객의 니즈를 공략한 웰니스 아일랜드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해양프로그램 및 트레킹 상품에서도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화하여 지역성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 특산품, 출신 인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섬들과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였음
- 한편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관광 집중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함으로써 오버 투어리즘에 대응하고 있음

[그림 2-24] 마데이라섬 현황



라. 몰타 공화국

위 치	· 남유럽 지중해
규 모	· 246km ²
특 징	· 섬 상징 브랜드 활용과 선택지가 많은 해상교통 상품 사례

☼ 주요 내용

- 몰타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떨어진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몰타 본섬과 고조섬, 코미노섬 그리고 무인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국가임. 유적지 및 해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전개하며 유럽내륙 국가의 인기있는 휴가지로 발전하고 있음
- 몰타의 관광산업은 전체 GDP의 약 15~30%를 차지하며 연간 약 2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또한 트리나크리아(Trinacria)를 상징브랜드로 개발하여 섬 전역에서 다양한 모습과 상품으로 활용하면서 관광이미지의 통합 브랜드를 구축함
- 군도형태의 지역 여건에 따라 슬리에마항과 치르케와항을 중심으로 노선별, 시간대별 다양한 페리 및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해양교통(상품)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전개하고 있음

☼ 시사점

- 트리나크리아라는 지역 상징 콘텐츠를 군도 전역에서 조형물이나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등 관광 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상징을 통한 하나의 관광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발전을 도모함
- 거점항(슬리에마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교통체계를 마련하여 도서간 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연계관광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 해상교통 상품으로는 대규모 페리항과 관광보트(슬리에마항-치르케와항)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2-25] 몰타공화국 현황



6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

6.1 관광객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❶ 조사목적 및 방법

- 본 설문조사는 덕적·자월군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행태 및 관광이미지,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통해 종합적인 현황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 설정에 반영하고자 함
-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리서치 플랫폼인 오픈 서베이에 의뢰하여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자기기입식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응답수집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었음. 최근 5년 이내 덕적·자월군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200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함

❷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3문항), 방문행태(6문항), 관광만족도(4문항), 섬 관광 활성화 과제(6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 성격·의도에 따라 다양한 척도를 적용함
- 일반 특성 및 방문행태 등 명목척도로 측정된 문항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광만족도 문항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평균값을 도출하여 분석함.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 문항의 경우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함

〈표 2-41〉 관광객 설문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덕적·자월군도 방문경험이 있는 관광객, 유효표본 200개
조사기간	· 2025년 6월 23일~2025년 6월 25일(3일간)
조사방법	· 리서치 전문 플랫폼(오픈서베이)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항목	· 일반사항 : 인구통계학적 특성, 섬 방문행태 · 섬 관광 만족도 : 종합만족도, 불편사항 · 섬 관광 활성화 과제 : 수요자 입장에서 섬 관광을 위한 사업, 수용태세 개선 우선 순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방법	·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등

나. 조사 결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본 설문조사 대상자는 남성과 여성이 각 50.0% 비중으로 동일하게 모집되었으며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의 방문객이 27.0%로 가장 많음
- 방문객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방문객이 75.0%로 나타나 수도권 근교 목적지로서의 방문객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2-42> 인구통계학적 특성(N=200)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00	50.0
	여	100	50.0
연령대	20대	48	24.0
	30대	48	24.0
	40대	50	25.0
	50대	54	27.0
거주지	서울	50	25.0
	경기	50	25.0
	인천	50	25.0
	강원권	0	0.0
	충청권	14	7.0
	전라권	8	4.0
	경남권	20	10.0
	경북권	7	3.5
	제주	1	0.5

● 방문경험

- 덕적·자월군도 방문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회 방문한 응답자가 6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26.0%), 3~4회(11.0%), 5회 이상(3.0%)으로 나타남
- 방문한 섬 문항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0.0%가 덕적도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다른 도서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임. 특히 타 연령대 대비 50대 이상에서 덕적도에 방문한 응답자가 많으며 대외홍보 등 파급력을 보유한 젊은 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다음으로 대이작도(20.0%), 자월도(19.0%), 소이작도(19.0%), 소야도 (17.5%)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43> 방문경험(N=200)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방문횟수	1회	120	60.0
	2회	52	26.0
	3~4회	22	11.0
	5회 이상	6	3.0
방문 섬	덕적도	100	50.0
	대이작도	40	20.0
	자월도	38	19.0
	소이작도	38	19.0
	소야도	35	17.5
	굴업도	34	17.0
	백아도	33	16.5
	올도	28	14.0
	문갑도	22	11.0
	지도	21	10.5
	승봉도	21	10.5
	선갑도	8	4.0

방문행태

- 동반유형으로는 가족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지인(24.0%), 연인/배우자(21.0%) 등 순으로 나타남
-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1박 2일이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당일여행이 30.0%으로 나타남. 최근 i-바다패스로 인해 당일형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당일여행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44> 방문행태(N=200)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동반유형	가족	86	43.0
	친구/지인	48	24.0
	연인/배우자	42	21.0
	혼자	22	11.0
	단체/동호회	2	1.0
체류시간	당일	60	30.0
	1박2일	90	45.0
	2박3일	42	21.0
	3박 이상	8	4.0

❶ 방문목적

- 방문목적의 경우 휴식/힐링이 6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여행(41.5%), 특별한 경험(21.0%), 사진촬영(20.0%) 등 순으로 나타남. 섬이라는 특성상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섬 관광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콘텐츠를 살펴보면 감성체험이 6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40대 응답자의 비율이 높으며 감성체험으로는 밤바다 산책, 별빛 감상 등이 해당됨. 다음으로 생태체험(41.5%), 미식체험(40.0%) 등 순으로 나타남. 생태체험으로는 해양레저, 갯벌체험이 있고 미식체험으로는 섬 특산물 시식, 로컬맛집 탐방 등이 해당됨

<표 2-45> 방문목적 및 관광이미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방문목적 (n=332)	휴식/힐링	131	65.5
	가족여행	83	41.5
	특별한 경험	42	21.0
	사진촬영	40	20.0
	축제/행사	31	15.5
	기타	5	2.5
콘텐츠 (n=536)	감성체험	120	60.0
	생태체험	83	41.5
	미식체험	80	40.0
	해양레저체험	69	34.5
	트레킹체험	67	33.5
	웰니스체험	60	30.0
	로컬문화체험	57	28.5

❷ 관광이미지

- 관광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힐링이미지가 강하다고 응답함. 이와 유사한 이미지로는 고즈넉함(45.5%), 자유(43.0%) 등이 조사되었으며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힐링테마의 감성체험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육지에서 떨어진 섬 지역의 특성상 신비로움(27.5%), 비밀상(23.0%)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고립(19.5%), 불편함(15.5%), 심심함(10.5%), 답답함(7.5%) 등 부정적인 키워드도 다수 도출되었음

〈표 2-46〉 관광이미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관광이미지 (n=720)	힐링	121	60.5
	고즈넉함	91	45.5
	자유	86	43.0
	낭만	85	42.5
	감성	68	34.0
	신비로움	55	27.5
	비일상	46	23.0
	고립	39	19.5
	모험	39	19.5

❖ 관광 만족도

-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섬 관광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의견이 전체의 40.0%, 부정 의견이 전체의 10.0%로 나타남. 평균 만족도는 3.3점으로 전반적으로 긍정 편향 분포를 보이지만 ‘보통’의 응답 비율이 높으며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됨
- 반면 불만족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식음 및 편의시설 부족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놀거리 및 체험거리 부족(38.5%), 섬 내부 이동수단 미비(37.5%) 등 순으로 나타남.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으로 연결되는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
- 섬 지역 특성상 이동시 겪은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긴 이동시간(34.5%) 및 여객선 운항 횟수 부족(32.5%) 등의 응답률이 높음. 관광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2-47〉 관광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만족도	매우 만족	8	4.0
	만족	72	36.0
	보통	100	50.0
	불만족	17	8.5
	매우 불만족	3	1.5
평균		-	3.3
긍정응답		80	40.0
부정응답		20	10.0

<표 2-48> 불편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섬 관광 시 불편 사항	식음 및 편의시설 부족	92	46.0
	놀거리 및 체험 부족	77	38.5
	섬 내부 이동수단 미비	75	37.5
	과도한 물가	64	32.0
	안내 및 정보 부족	44	22.0
	지저분하고 위험한 환경	23	11.5
섬 이동 시 불편 사항	긴 이동시간 소요	69	34.5
	여객선 운항횟수 부족	65	32.5
	복잡한 항로 및 환승	29	14.5
	선내 환경 불편	18	9.0
	예약시스템 불편	13	6.5

❁ 관광 활성화 과제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응답으로는 접근성 개선이 51.5%로 가장 높으며 세부적으로는 운항 횟수 확충, 섬 내부 이동수단 개선 등이 해당됨. 다음으로는 관광 수용태세 개선(숙박, 식음, 편의시설 등)이 47.5%,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36.0%) 등 순으로 나타남
-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등) 설치비 지원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민주도형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25.0%), 여객선 공영제 확대 및 운항 지원(18.5%)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

<표 2-49> 개선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통접근성 개선	103	51.5
	관광수용태세 개선	95	47.5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72	36.0
	관광안내 및 정보시스템 구축	71	35.5
	특산물 활용 먹거리 개발	67	33.5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공공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84.4	42.2
	주민주도형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50	25.0
	여객선 공영제 확대 및 운항 지원	37	18.5

6.2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가. 의견조사 개요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는 총 3회 추진하였으며 그중 1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면서 지역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음. 각 의견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덕적·자월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시 반영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착수보고 주요 질의사항을 포함하여 덕적·자월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특히 덕적·자월군도의 현황 및 문제점,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실현 가능성, 정책적 의견 등을 논의하였음
- 지역관계자 의견조사에서는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정책담당 팀장 및 자월면장,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병행하면서 섬별 고유자원의 활용방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섬별 여건 및 잠재력 등을 파악하였음

<표 2-50>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구분	주요 내용
1차	· 일시 : 2025년 6월 16일 · 장소 : 인천연구원 · 대상 :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차	· 일시 : 2025년 6월 16일 · 장소 : 시정혁신단 위원 개인사무실 · 대상 :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3차	· 일시 : 2025년 6월 26~27일 · 장소 : 소이작도 및 승봉도 · 대상 :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정책 팀장, 자월면장, 승봉리 이장, 이작리 이장

[그림 2-26]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현황



나.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 인천연구원

- 현재 덕적·자월군도는 제한적 여객 항로 및 높은 결항률 등 접근성의 한계가 있으며 도서 내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수용태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명확한 관광산업의 주체가 부재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덕적도의 경우 관광사업보다 생활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DMO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대이작도의 경우 어촌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관이 위치하는 등 생태관광 잠재력을 보유함
-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발전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주민 참여의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함. 비교적 기반시설이 갖춰진 덕적도를 중심으로 섬 관광권을 구축하여 수용태세가 미흡한 주변 도서를 기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함
- 덕적도 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기존의 선착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적용보다 정무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굴업도 민자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인천시정혁신단

- 교통 문제, 인구소멸 문제,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며 특히 선박 운항횟수 문제의 경우 향후 노선을 직선화 하거나 기상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현재까지 덕적·자월군도의 사업은 정주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임
- 덕적군도의 경우 무인도가 다수 위치해 이를 활용한 해상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덕적도를 중심으로 한 Hub&Spoke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자월군도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태관광도로서의 활용이 필요함
- 덕적도 연안여객터미널 조성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현재 여건 상 크루즈 기항지의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덕적·자월군도의 광역연계개발의 관점에서 충남, 전남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연안크루즈 상품 등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간사업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계적으로 협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먼저 공공 개발이 이루어진 후 민간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 지역관계자 의견조사 내용

● 웅진군청/자월면사무소

- i-바다패스 시행 이후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섬내 즐길거리, 먹거리 부족으로 인해 주로 당일여행객들이 많고 관광객 소비활동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객들의 불법적인 입산물 채취 및 해루질로 인해 섬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자월면 도서 중 대이작도는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군도 내 타 도서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고 있음. 소이작도의 경우 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여행자센터 신축, 해변길 경관개선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하고 있음
- 관광활성화를 위해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즐길거리와 먹거리 다양화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함. 인근 도서 간 관광코스 개발, 도서 내/도서 간 이동 수단 마련을 통해 연계 협력을 고려해야 하며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스토리텔링 활용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적으로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신규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소아9경 관광탐방 기반 정비사업, 덕적 서포리 해양치유 센터 조성 등 2034 웅진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사업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함

● 승봉리 이장/이작리 이장

- i-바다패스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수혜 대상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시·군에서 여객선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섬 개발을 둘러싼 지역 소외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승봉도의 경우 주민의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패키지 관광 이용객이 다수 방문하고 있음. 소이작도는 국내 유일의 해적마을이 위치하며 특성화 마을 추진 당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논의되었던 곳으로 섬 고유의 테마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함
-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섬내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지 개발 및 신규 콘텐츠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에 도서 내 유희부지를 활용한 체험시설을 조성 및 테마 관광지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함
- 정책적으로는 먼저 i-바다패스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운임할인 요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섬 내 고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승봉도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함

7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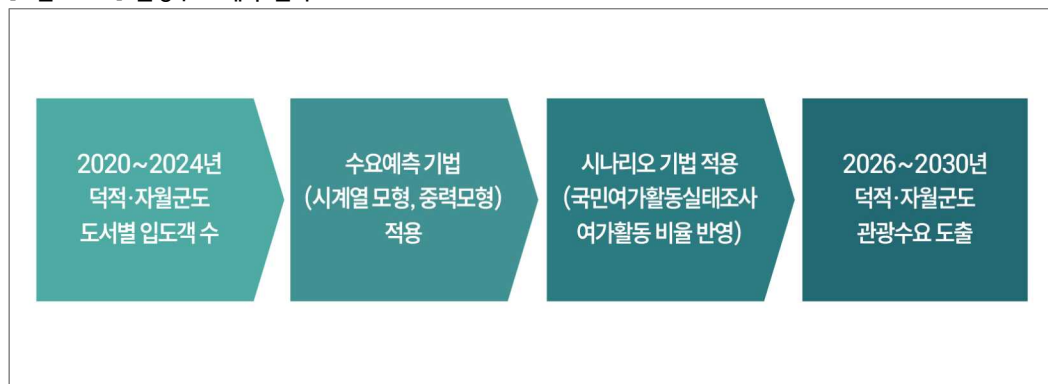
덕적·자월군도 수용력 검토

7.1 관광수요 예측

가. 수요예측의 전제사항

- 일반적으로 관광수요 예측 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관광지점 연도별 관광객 수 자료를 활용하지만 섬에 관광수요 예측에 필요한 도서별 관광객 수는 제공되지 않아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섬 관광수요 예측을 위해 인천광역시 해운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입도객 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서별 입도객 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도서별 관광객 수를 예측하였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행정구역(자월면, 덕적면)으로 관광수요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별 관광수요를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역주민을 제외한 입도객을 관광객 수로 집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수요예측 방법으로 시계열모형, 중력모형이 주로 사용되며 두 가지 예측기법을 모두 사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다만 섬의 경우 중력모형에 필요한 물리적 거리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과업에서는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였음
 - 시계열모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함수식(선형, 로그, 거듭제곱, 지수)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함
- 수요예측 결과에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의 여가활동 비율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수요를 제시함. 시나리오 기법은 다양한 예측상황과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과잉추정을 방지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그림 2-27] 관광수요 예측 절차



나. 수요예측 결과

시계열모형에 의한 수요예측

- 시계열모형을 사용한 수요예측 시 덕적도(약 10만 명), 승봉도(약 4만 명), 자월도(약 4만 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들의 입도객 수가 1만 명 이하로 나타나 도서간 차이가 매우 크며 일부 도서는 1만 명 이하로 나타나 도서별로 예측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덕적권, 자월권으로 통합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2030년 덕적권 관광객 수는 131,428명, 자월권 관광객 수는 144,791명으로 예측됨
 - 모형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하는 MAPE(평균절대비율오차)를 진행하였으며 검증결과 모든 모형이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함
- 2024년 관광객 수와 비교하면 2030년 덕적권 관광객 수는 6,865명, 자월권 관광객 수는 12,74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합산하면 총 19,615명(7.6%)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표 2-51> 시계열모형에 의한 수요예측

(단위 : 명)

구분	실측값	예측값					증가분 (B-A)
	2024(A)	2026	2027	2028	2029	2030(B)	
덕적권	124,563	128,912	129,572	130,208	130,825	131,428	6,865
자월권	132,042	136,605	138,686	140,737	142,769	144,791	12,749
합 계	256,605	265,517	268,258	270,945	273,595	276,220	19,615

시나리오별 예측값 비교

- 시나리오 예측값을 도출하기 위해 시계열모형 예측값에 시나리오별(보수적·낙관적)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가중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지역별 관광점유율을 적용하였고 최근 4년간(2020~2023) 인천지역 관광점유율은 4.2%로 파악됨
- 2030년 덕적자월권 관광객 수는 보수적 관점에서 134,057명, 낙관적 관점에서 150,58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52> 시나리오별 예측값 비교

(단위 :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적 시나리오(2%)	131,490	132,163	132,812	133,442	134,057
낙관적 시나리오(4%)	142,069	144,233	146,366	148,480	150,583

7.2 관광수용력 검토

가. 기본방향

⊗ 관광수용력의 정의

- 관광수용력은 ‘한 지역이 지속적인 관광자원을 제공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관광지 이용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원 훼손 없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의 능력임
- 유형별로 물리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으로 분류되며 관광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물리적 수용력은 관광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공간 규모를 의미하며 단위면적당 관광객 수, 각종 기반시설 점유율 등이 지표로 사용됨

⊗ 분석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를 토대로 덕적·자월권에 속한 개별 도서에 대한 수용력을 분석하였음. 관광수용력 분석 시 관광지 이용밀도, 혼잡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획일 집중률, 동시체재율이 적용됨
-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인천광역시에서 제공받은 도서별 입도객(지역주민 제외)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물리적 수용력 지표는 공간 원단위, 덕적·자월권 도서별 면적당 입도객 수가 적용됨
 - 도서 특성상 기반시설 종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수용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움. 이에 모든 도서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서별 면적당 입도객 수가 지표로 적용되었음
- 분석방법으로 우선 도서별 입도객 수에 계획일 집중률, 동시체재율을 적용하여 계획일 이용객 수, 동시체재 이용객 수를 산출하였음. 다음으로 동시체재 이용객 수에 유사사례에 따른 원단위를 대입하여 1차적으로 관광수용력을 산출하고 보정값을 적용하여 덕적·자월권의 최종 관광수용력을 도출함

[그림 2-28] 관광수용력 검토 절차



나. 수용력 측정 결과

❶ 계획일 이용객수

- 계획일 이용객 수 산출을 위해 2024년 도서별 입도객 수에 계획일 집중률(4계절형 0.01)을 적용하여 도서별 계획일 이용객 수를 산출하였음
 - 계획일 집중률은 1년 중 방문을 계획하고자 하는 적정 1일의 이용객 수를 의미하며 계절형별(1~4계절형)로 달라지는데 섬의 경우 4계절형(해안관람형)에 속함
- 분석결과 도서별 계획일 이용객 수는 총 2,566명으로 이는 일간 덕적자유큐권 내 2,566명이 방문하는 것을 의미함

<표 2-53> 도서별 계획일 이용객 수

구분	이용객 수(명)	구분	이용객 수(명)	구분	이용객 수(명)
합계	2,566	문갑도	19	자월도	405
덕적도	1,062	백아도	16	대이작도	304
굴업도	133	지도	3	소이작도	135
소야도	5	울도	8	승봉도	476

❷ 동시체재 이용객수

- 동시체재 이용객 수 산출을 위해 도서별 계획일 이용객수에 동시체재율(2시간형 0.31)을 적용하여 도서별 동시체재 이용객 수를 산출하였음
 - 동시체재율은 특정 단위시간에 관광자원 및 시설 이용객의 집중도를 나타내며 1일 총이용객 수 대비 최대 시 이용객수를 의미함. 체재시간별(1~6시간)로 달라지며 섬의 경우 2시간형(해안관람형)에 속함
- 분석결과 도서별 동시체재 이용객 수는 총 1,206명으로 이는 2시간 동안 덕적자유큐권 내 최대 1,206명이 방문하는 것을 의미함

<표 2-54> 도서별 동시체재 이용객 수

구분	이용객 수(명)	구분	이용객 수(명)	구분	이용객 수(명)
합계	1,206	문갑도	9	자월도	190
덕적도	499	백아도	8	대이작도	143
굴업도	62	지도	2	소이작도	64
소야도	2	울도	4	승봉도	224

❶ 도서별 관광수용력

- 관광수용력 산출 시 원단위가 필요하며 본 과업에서는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에서 제시한 유사사례에 따른 원단위를 활용하였음. 도서와 자원적 특성이 유사한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각 사례별 원단위 평균값을 활용하여 관광수용력을 측정할 수 있음
 - 원단위는 1인당 요구되는 관광자원의 개발면적을 의미하며 관광지 수용력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공간원단위를 적용하였음
 - 유사사례는 토산(제주), 태종대(부산), 당항포(보성)가 선정되었으며 각 사례들은 해안관광형 자원으로 바다 및 해안에서 휴게 및 휴식과 경관 관람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례로 선정하였음
- 도서별 관광수용력 측정에 사용되는 원단위는 $45.7\text{m}^2/\text{인}$ 이며 이를 동시체재 이용객수에 적용하면 전체 도서의 관광수용력은 55,076명으로 산출됨. 다만 단일 원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과대·과소 측정의 우려가 있어 물리적 수용력을 보정값으로 적용하여 최종 수용력을 도출함
 - 보정값으로 사용된 물리적 수용력은 도서별 면적당 입도객 수로 이는 도서 면적 1km^2 당 최대 수용가능한 입도객 수를 의미함
- 최종 관광수용력은 58,968명으로 이는 덕적자월권 전체 도서에서 수용가능한 최대 관광객 수를 의미함. 권역별로 살펴보면 덕적권은 20,706명을 최대 수용할 수 있으며 자월권은 38,262명을 최대 수용할 수 있음

<표 2-55> 덕적권 도서별 관광수용력

(단위 : 명)

구분	합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지도	울도
1차 수용력 (유사사례 원단위)	14,677	4,606	7,673	163	525	607	744	359
물리적 수용력 (면적당 입도객 수)	26,735	22,796	2,849	106	399	350	72	163
최종 수용력	20,706	13,701	5,261	134	462	479	408	261

<표 2-56> 자월권 도서별 관광수용력

(단위 : 명)

구분	합계	자월도	대야작도	소야작도	승봉도
1차 수용력 (유사사례 원단위)	48,184	5,578	11,823	9,321	21,462
물리적 수용력 (면적당 입도객 수)	28,341	8,692	6,522	2,901	10,226
최종 수용력	38,262	7,135	9,173	6,111	15,844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종합분석

1.1 강점(Strengths)

❶ 육지와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보유, 휴식부터 액티비티까지 다양한 수요 충족 가능

- 본 과업대상지인 덕적·자월군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지역과는 차별화된 자연생태자원 및 생활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경관감상, 휴식 등 정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해양레포츠, 캠핑, 트레킹·백패킹 등 액티비티 활동까지 다양한 타깃의 관광니즈를 수용할 수 있음
- 입지적 측면에서 덕적·자월군도라는 하나의 권역에 속해 있으나 군도를 이루는 개별 섬마다 특색있는 자연경관과 식생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세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❷ 수도권 입지를 바탕으로 타 도서 대비 양호한 접근성 및 배후시장 확보

- 과업대상지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양교통 중심지인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대상지 내 모든 유인도서로 접근 가능함. 이처럼 대상지는 타 서해도서 대비 양호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근교 여행지 선호 등 최근 국내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목적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약 2천 6백만 명)를 배후시장으로 보유하고 있어 향후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 및 이미지 구축 시 고정수요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❸ 덕적·자월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높은 참여의지 및 전문역량 보유

-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덕적·자월군도 일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섬 관광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옹진군에서는 관광명소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발굴을 핵심 공약으로 덕적면 연안 무인도서 관광 명소화, 서포리 해수욕장 관광 명소화 등의 다양한 섬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인천관광공사, 인천섬발전지원센터 등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문성 및 실행력을 갖춘 관광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2 약점(Weaknesses)

❶ 관광도서로서 대외 인지도 및 이미지 저조

- 본 과업대상지는 차별화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서로서 대외 인지도 및 이미지가 미흡함. 최근 트레킹·백패킹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일부 마니아층 외 대중들에게는 관광목적지로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임
- 특히 백아도, 울도, 지도 등 소규모 도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험 및 체류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의 관광사업이 미흡해 외지 관광객 유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도서별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권역 전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❷ 외지 방문객 유입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미흡

- 과업대상지는 섬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굴업도, 백아도, 울도, 지도 등 덕적권역에 속한 대부분 섬들은 당일 내 왕복 가능한 배편이 부재해 도서 내 숙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그러나 덕적도, 대이작도 등 일부 도서 외에는 관광객이 머무르는데 필요한 숙박 및 식음시설, 편의시설, 안내체계 등 기초적인 관광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해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또한 도서 내 개별 관광자원을 연결해주는 내부 교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 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지를 방문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광도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통, 숙박, 안내 등의 관광수용태세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❸ 개발규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관광사업 추진에 제약사항 존재

- 과업대상지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도로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의 개발 행위 시 별도의 허가절차가 요구됨. 뿐만아니라 구릉성 산지지형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상 울도, 백아도 등 일부 지역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굴업도 등 대상지 내 일부 도서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투자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관광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1.3 기회(Opportunities)

🔴 팬데믹 이후 섬이 지닌 관광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연친화적 여행지를 선호하는 관광행태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섬이 지닌 생태적 경관성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관광객이 붐비는 대중적인 관광지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명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섬 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힐링여행, 웰니스 관광, 탄소중립 여행 등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섬이 지닌 경관적·생태적·문화적 자원성과 높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덕적·자월군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으로서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섬 관광 개발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및 정책적 관심 확대

- 과거 지역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왔던 도서지역은 낙후된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섬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광·문화·생태의 핵심 공간’으로서 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함
- 특히 2021년 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도서주민의 생활기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섬 발전 촉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 관광인프라 확충 및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됨
-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K-관광섬 육성사업’, ‘섬 지역 특성화사업’ 등 도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덕적·자월군도 일대 관광 사업을 위한 추진동력으로서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교통 패스 개발, 직항노선 취항 등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 과업대상지는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제한적인 교통편과 긴 소요시간으로 접근성이 저조하다고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적 차원에서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광지로서 수도권 서해도서들이 주목받기 시작함
- 특히 바다 i-패스 사업은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중 하나로 도서 거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이외에도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과업대상지 내 개별도서까지 직행으로 운행하는 해누리호가 개통되면서 섬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

1.4 위협(Threats)

⊗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관 훼손 및 기상이변 심화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면과 해수온도 상승, 해안침식, 식생변화, 해양자원 감소, 기상이변 등 섬 경관 유지 및 생태계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특히 과업대상지는 해발고도가 낮은 해안지역을 다수 보유해 태풍, 지진해일 등의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내륙지역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관광객 유입 급증에 따른 지역갈등 심화

- 최근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업대상지 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서지역 인프라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위협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음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섬 고유의 자연경관 및 식생환경이 파괴되고 외지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고취될 위험이 있음. 이는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져 섬 관광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관광 활성화방안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

[그림 3-1] SWOT 분석



2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계획과제 도출

❶ 덕적·자월군도만의 관광 정체성 및 이미지 확립

- 덕적·자월군도는 자연친화, 웰니스, 트레킹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섬 고유의 생태·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단순한 방문지가 인천을 대표하는 섬 관광권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
- 이를 위해 관광 BI, 캐릭터,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향후 글로벌 관광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섬 관광 이미지를 구축함

❷ 관광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 도서 특성상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는 단발성에 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거점을 중심으로 도서 간 기능적 연계 및 콘텐츠의 통합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거점형 공간발전체계를 구축함
- 이를 위해 덕적도를 핵심거점으로 설정하여 군도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하고 거점화를 위해 숙박·편의·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기능적 보강과 함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❸ 덕적·자월군도 내 개별도서 간 연계 강화

- 단순 방문 중심에서 체류형·순환형 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덕적도·자월도와 같은 거점 섬을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섬과의 연계를 강화함
- 이를 위해 도서 간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형 관광코스를 개발하 단일 섬 방문에 그치지 않고 다도해 탐방형 관광행태로 전환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려 군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

❹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덕적·자월군도의 특화발전방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방향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주민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함. 이러한 사업구조는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관광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

IV

특화발전방안 기본구상

1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개발비전 및 목표

1.1 관광비전 설정

가. 비전 설정방향

❁ 덕적·자월군도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비전 제시

- 덕적·자월군도는 덕적도, 대이작도 등 도서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광도서로서 실질적인 인지도는 낮음. 이에 본 계획에서는 덕적·자월군도를 관광개발 초기단계로 인식하고 대상 도서가 지닌 정체성, 자원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타 관광도서와 차별화된 관광목적지로서 발전을 꾀함
- 또한 제반여건 분석 및 현안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발전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에 기반한 덕적·자월군도 관광개발 비전을 구축하고자 함

❁ 모두가 체감하는 관광비전 설정

- 현재 덕적·자월군도는 관광도서로의 발전을 꾀하는 후발주자로 대상 도서와 관련한 가치 및 비전, 콘셉트 등이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최근 관광 트렌드 및 중앙정부 문화관광 정책 변화,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민과 잠재관광객이 모두 체감하고 대상 도서 관광발전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비전의 제시가 필요함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핵심가치인 ‘First Ever(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를 수용하고 인천광역시 소재라는 위치적 특성, 대상 도서의 정체성, 관광 트렌드 등 특·장점을 고려한 관광비전을 설정하여 ‘국내 최고의 관광도서’로 발전을 최종 지향점으로 삼음

❁ 효용가치가 높은 개발비전 마련

- 덕적·자월군도의 관광활성화 비전 설정 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대상 도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반영토록 함. 이와 동시에 잠재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덕적·자월군도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대상 도서가 제공하는 궁극적인 편익(Benefits)을 내포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대상 도서의 특·장점은 물론 잠재력까지 수용하는 실효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으로서 대상 도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은 비전을 설정해야 함

나. 비전 및 콘셉트 설정

⊗ 비전 설정

- 비전 설정방향을 기반으로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개발비전을 “Global Top 10 City, 인천 실현을 위한 덕적·자월군도의 관광거점화 사업 발굴”로 설정함.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이라는 아젠다와 연계하여 덕적·자월군도를 서해안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비전 주제인 “Global Top 10 City, 인천 실현”은 덕적·자월군도의 관광개발이 단순히 지역차원의 발전을 넘어 인천시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함. 특히 다양한 자원과 섬 고유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항공, 해상을 통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꾀하며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 아울러 비전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관광거점화 사업 발굴’이라는 실행적 메시지를 제시하여 향후 홍보·마케팅, 인프라 조성, 정책적 지원사업 등 모든 추진과정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는 덕적·자월군도의 관광개발이 인천 미래 전략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브랜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관광거점화 사업 발굴은 단순한 사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인천의 도시 전략과 연계된 실행의 키워드이자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작용함

[그림 4-1] 덕적·자월군도 관광개발 비전



❶ 특화 콘셉트 도출

-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관광객, 지역주민 등이 대내외적으로 덕적·자원관광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스토리 아일랜드”로서 관광이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활용도, 대중성, 인지성, 상징성 등을 중시한 섬 관광 콘셉트를 제시함
- 본 계획의 개발 콘셉트는 ‘덕자의 섬’으로 ‘덕자’는 덕적군도와 자월군도를 잇는 통합브랜드이자 군도의 매력성과 정체성을 알리는 친근한 이미지를 표상함. 이러한 콘셉트는 지역명을 의인화하여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사례들을 모티브로 하여 도출됨
 - ‘강해영’은 강진·해남·영암 등 세 군의 머릿글자를 합쳐 탄생한 상상 속 인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듯 덕자 역시 12개 섬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 얼굴이 됨
 - ‘미남이네요 해남군’이 남쪽 마을의 다양한 미(味·美)를 강조하듯이 덕자의 섬은 각 섬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 맛과 향, 문화의 멋을 덕자의 이름으로 담아냄
 - 울산 중구의 ‘울산큰애기’가 지역의 대중성을 높인 것처럼 덕자는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섬 관광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임
- 덕자의 섬은 관광 홍보마케팅의 중심축으로 12개 섬의 고유자원을 ‘덕자’라는 인물 스토리 속에 녹여내고 있으며 이러한 덕자의 섬은 군도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대표 스토리 아일랜드”로 도약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음

<표 4-1> 콘셉트 모티브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강해영	· 전남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관광 공동 연계 협력사업 추진 ·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의 앞 글자를 다서 ‘강해영’이라는 상상의 인물을 창조하고 콘텐츠 중심의 다양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운영
미남이네요 해남군	· 해남군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남’이라는 남성을 뜻하는 “해남군”을 개발 ·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맛(味), 땅끝(尾), 자원(美) 등 ‘다양한 미가 있는 남쪽 마을’을 뜻하는 <미남>을 활용
울산큰애기	· 지역이 가진 정체성을 살리고 대중가요로 인지도 높은 ‘울산큰애기’를 의인화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었던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맞춰 울산 중구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울산큰애기’ 활용

[그림 4-2] 콘셉트 모티브 이미지



다. 특화발전전략

❶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매력적인 콘텐츠로 기획·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함. 덕적자원권의 고유 브랜드 확립, 제도적 기반 마련, 대규모 이벤트 개최 등과 같은 콘텐츠 중심의 접근을 통해 섬 지역에 단기적인 관광 붐(Boom)을 일으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 또한 해양자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립공원 또는 국립공원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더불어 섬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키고 폭발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함

❷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 섬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볼거리와 체류형 관광거점이 부족해 관광객 유입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전략은 덕적자원권의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대표 명소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체류형·체험형 관광환경을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함
- 핵심거점에는 해양·휴양·치유기능이 결합된 복합관광공간을 마련하여 체류 기반을 확충하고 일부 섬은 위케이션·레저가 융합된 새로운 체험모델로 특화 발전시킴. 또한 해상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섬 간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도서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해안경관과 전망이 뛰어난 곳을 명소화하여 대표 볼거리로 육성함

❸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 덕적자원권은 섬마다 자연경관, 생활문화, 역사적 자원 등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섬에 개발이 집중되어 섬 간 관광매력도 격차가 존재함. 특히 바다와 접한 독특한 경관, 전통 어촌생활, 지역의 역사·종교적 유산, 감성을 자극하는 경관자원 등은 차별화된 관광테마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 이러한 각 섬의 고유한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사업은 섬마다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이에 섬별로 핵심테마를 설정하고 해당 테마에 부합하는 경관 조성, 문화·예술 활동, 체험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등과 결합하여 특성화된 관광공간을 조성함

❶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 섬마다 각기 다른 자연환경, 생활문화, 역사적 배경 등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매력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유성이 섬 관광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매력성은 희석되고 관광객에게 반복적인 경험만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각 섬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테마화하여 섬 관광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성을 강화하고 독창적인 관광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섬별로 상징성을 담은 테마를 설정하고 섬의 고유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마련하여 섬 관광의 질을 제고함

❷ 정책적 검토 사업

- 섬 관광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에 더하여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민간투자 유치, 법·제도 개선 등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 구조를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지역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아울러 접근성이 낮고 인구가 적은 섬이 겪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함

〈표 4-2〉 전략별 추진사업

구분	추진사업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1-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1-2.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1-3.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2-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2-2.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2-3.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2-5.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3-1.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3-2.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3-3.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3-4.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3-5. 소이작도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3-6.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4-1.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4-2. 1섬 1테마 갖기 사업
	4-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4-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적 검토 사업	5-1. 덕자 마일리지 ON
	5-2. 실질적 민자유치사업(제안)
	5-3. 면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1.2 개발 목표

가. 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2030년 목표 관광객 수 30만 명(단기)

- 본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서로 발전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정량적 목표로 설정함
 - 관광정보지식시스템 기준 2024년 덕적·자월군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21만 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섬 관광객 수의 31%를 기록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색 콘텐츠 도입을 통한 신규 명소화,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 사업,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서로 발전을 꾀함

● 정성적 목표 :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서로의 발전

- 낚시, 트레킹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도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덕적·자월군도 관광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는 관광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내 자연자원 및 지역 정체성이 강조된 이색적인 사업을 전개하도록 함
- 덕적도, 자월도, 대이작도 등 기존 도서가 보유한 기본적인 인지도와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다양한 사업 전개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가깝고 매력 있는 관광도서로 발전을 꾀함. 특히 중장년층 중심의 방문행태와 더불어 젊은 계층, 외국인 관광객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덕적·자월군도만의 매력성을 강조하도록 함
-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해 가깝고 매력 있는 섬 이미지와 더불어 관광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기간 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공간·인프라·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적 목표 : 서해안 도서자원의 전체적인 발전의 마중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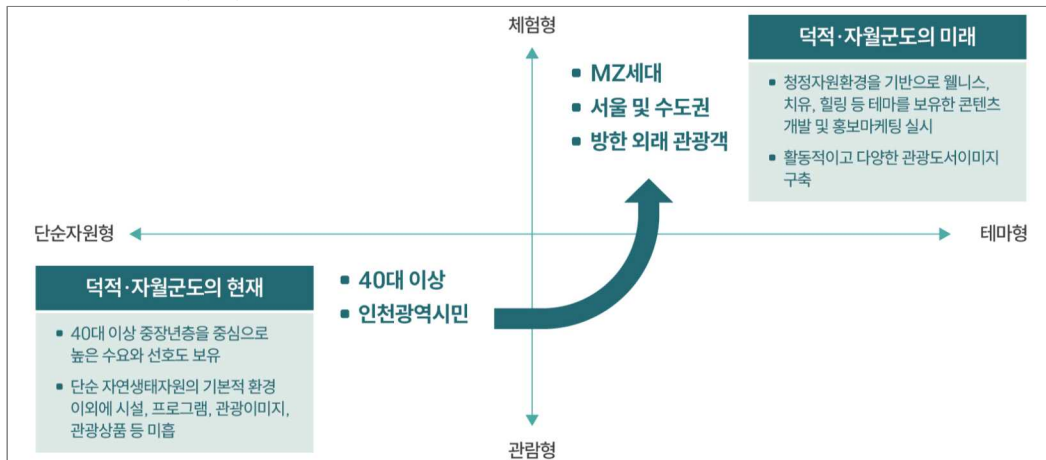
- 현재 백령도, 강화도 등에 집중된 인천광역시 도서관광 사업에서 해상교통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개선, 인천광역시의 도서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도서로의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서해도서자원 전체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오도록 함
- 덕적·자월군도 관광개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과 같은 관광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도전 및 선정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도시’ 등 공신력 있는 정책사업에 선정되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삼음

나. 목표시장 설정

❶ 포지셔닝(Positioning) 설정

- 덕적·자월군도의 기존 관광여건 및 이미지, 인천광역시 도서관장 발전 지향점, 대내외 환경과 트렌드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광시장 내에서 선점해야 하는 덕적·자월군도의 포지셔닝을 설정함. 이는 본 계획상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전략 도출, 사업 구체화 등의 과정에서 기반으로 가능하도록 설정함
- 대상지는 12개 섬과 수도권 입지를 바탕으로 자연생태관광 및 레저·휴양관광 목적지로서 지속적인 인지도를 구축해왔으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와 선호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자연생태자원의 기본적인 환경요소 이외에 시설, 프로그램, 관광이미지, 관광상품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계층의 방문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대부분 관광행태가 경관 감상, 낚시, 트레킹 등 단편적이고 정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백령도, 강화도, 영흥도 등과 비교 시 인지도가 낮아 향후 보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활동 기반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웰니스·치유·힐링 등의 테마를 보유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관광도서로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리적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특성, 방문목적과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관광활동을 선택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덕적·자월군도는 지역 고유의 관광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권역별·도서별 관광 활동이 가능한 관광도서로서 시장 포지셔닝이 요구되며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관광콘텐츠를 확충하여 경쟁력 및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4-3] 포지셔닝 설정



❶ 타겟(Targeting) 설정

- 본 계획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및 사업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덕적·자월군도의 관광여건 및 현황,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관광 빅데이터, 향후 개발 비전 및 콘셉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시장을 세분화함. 그중 도서방문 및 관광 의사결정 시 영향력이 높은 연령대 및 거주지를 중심으로 4개의 목표시장을 설정함
- 1차 타겟은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유한 MZ세대로 대상 도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방문 및 소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특히 이색적인 공간에서의 특색있는 경험, 가치있는 관광활동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이들 타겟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관광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2차 타겟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서남부 지역주민으로 시기별·목적별 근교 나들이 지역으로서 덕적·자월군도를 반복적·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인천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도서방문 혜택 등을 통해 ‘언제나 쉽고 저렴하게 방문하는’ 생활관광 목적지로서 발전을 꾀하도록 함
- 3차 타겟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기존 도서방문 수요를 보유한 점을 고려하여 등산, 트레킹, 낚시, 경관 감상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 경험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4차 타겟인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대한민국 대표 섬 관광지로 인지 및 방문하게끔 하는 홍보 및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함

<표 4-3> 단계별 타겟 설정

구분		주요 내용
1차	MZ세대 (20~40초)	· 목적 : 덕적·자월관광 발전을 위한 신규 관광객 유입 ·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영향력과 소구력을 보유한 트렌드 리더로 대상 도서의 사회적 이슈화 및 신속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주요 타겟으로 설정 · 트렌드에 민감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 반영
2차	인천광역시민	· 목적 : 근교 나들이형 관광지로서의 덕적·자월 방문 도모 · 인천광역시와 안산시 등 경기 남서부 거주자 방문 유도 · 지역 거주자들이 시기별·목적별로 자유롭게 방문하여 관광 및 소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관광 요소 개발 필요
3차	수도권 기존 방문객층	· 목적 : 기존에 높은 선호도를 보유한 타겟으로 지속적 재방문 유도 · 낚시객, 등산객 등 자연생태자원과 여가·휴식형 활동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관광객이 재방문하고 싶은 관광이미지 및 콘텐츠 발굴 · 관광관련 시설인프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방문객 유입
4차	방한 외래 관광객	· 목적 : 글로벌 섬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한 방한외국인 관광객 확보 · 덕적·자월도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로컬 콘텐츠, 치유 및 웰니스관광 콘텐츠 등과 연계하여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K-관광도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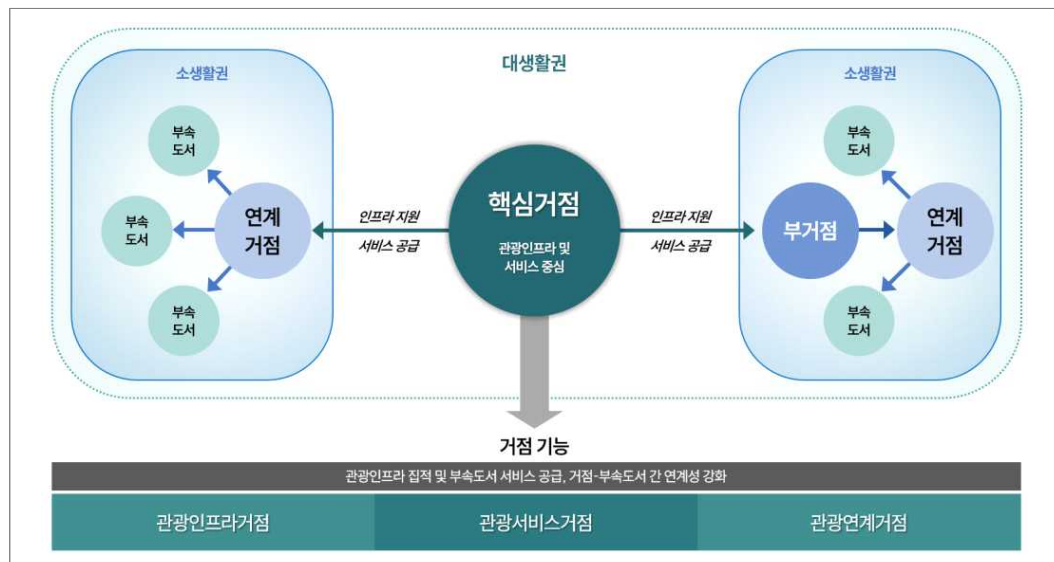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관광개발공간구상

2.1 공간구상의 전제

- 기존 계획상 덕적권역, 자월권역 등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공간적 단절과 더불어 통합적 발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두 권역에 대한 통합적 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해 덕적권과 자월권역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공간발전 체계를 구축함. 점은 부속도서와 거점으로 이루어지며 선은 거점과 도서들을 연결하는 축을 의미함
 - 거점은 핵심거점과 부거점, 연계거점으로 구성되며 특히 핵심거점은 관광서비스 기능이 집적 및 복합화된 거점으로 거점과 부속도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춘
 - 선은 항로를 기준으로 외부와의 연결, 내부 연결 기능을 갖춘 기능축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발전축으로 설정함
- 거점과 도서는 축을 기반으로 권역을 이루게 되는데 도서 간 연계를 중시하기 위해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 발전체계를 구상함. 또한 도서별 자원과 특색을 토대로 관광권을 설정하여 관광을 통한 지속적인 섬 발전기반을 마련함
 - 생활권은 부거점 및 연계거점과 도서를 포함하는 소생활권과 핵심거점과 소생활권 모두를 포함하는 대생활권으로 분류됨

[그림 4-4] 생활권 및 거점간 연계체계



2.2 공간체계 구상

가. 거점 및 축 설정

- 덕적·자월권 거점은 공간구상 전제를 기본으로 핵심거점-부거점-연계거점 형태로 구성되며 핵심거점은 내륙과의 교통이 연결되어 있고 생활 및 관광 인프라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임. 특히 핵심거점에서 항로를 통해 내부 도서간 이동이 모두 가능함에 따라 내부 도서 연결의 요충지라 할 수 있음
- 부거점도 내륙과의 교통이 연결되어 있고 핵심거점 다음으로 생활 및 관광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핵심거점과의 교통이 원활하여 연계거점에서 부속도서로 핵심거점의 기능을 전달함. 연계거점은 핵심거점 또는 부거점과 부속도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멀리 위치한 부속도서에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지원함
- 덕적·자월권 축은 4개 축으로 구분되며 핵심거점과 부거점을 연결하는 도서발전축, 내륙과 도서를 연결하는 내륙연결축, 거점 사이를 연결하는 거점연계축, 거점과 도서를 연결하는 도서연결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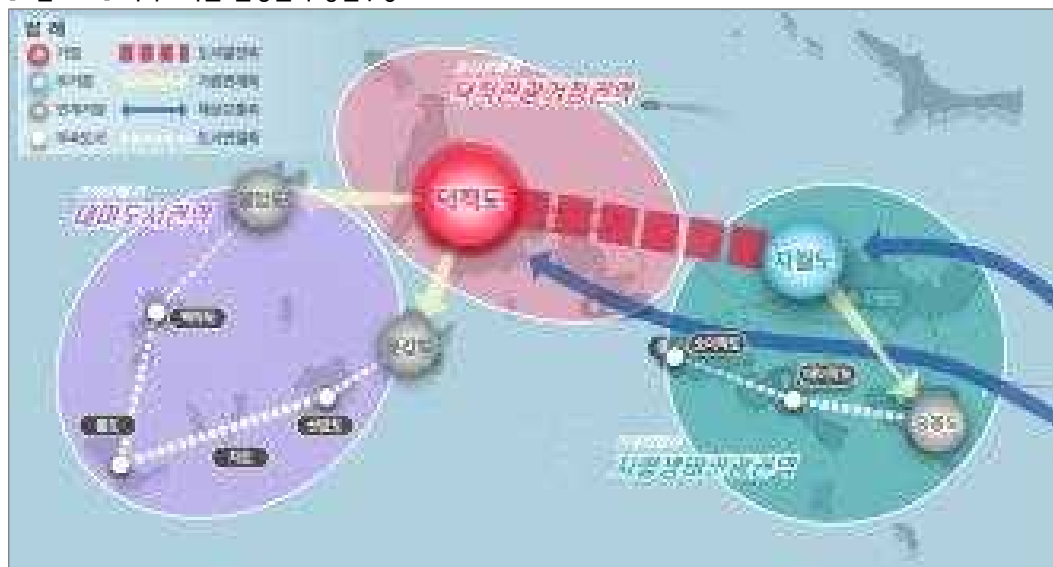
나. 권역 설정

- 덕적·자월권은 크게 생활권과 관광권으로 구분되며 생활권은 대생활권, 중심생활권, 연계생활권으로 세분화됨. 대생활권은 모든 생활권을 포함하는 통합생활권으로 덕적·자월군도 전역이 해당함. 중심생활권은 핵심거점이 포함된 권역으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생활권이며 2개의 연계생활권을 연결하는 권역으로 덕적도·소야도가 해당함
- 연계생활권에는 부거점 또는 연계거점과 주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덕적도·소야도가 제외되고 굴업도·문갑도·백야도·지도·울도는 덕적생활권, 자월도·승봉도·대이작도·소이작도는 자월생활권에 포함됨
- 관광권은 총 3개의 권역으로 분류됨. 우선 덕적관광거점권은 제2여객터미널, 크루즈 등 핵심교통 및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섬 관광의 중심 권역으로 덕적도, 소야도가 포함됨. 테마도서권은 산악과 해양경관이 우수하여 트레킹, 백패킹 성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웃도어 및 레저활동에 특화되고 도서 테마화, 무인섬 관광상품화 추진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문갑도·굴업도·백야도·지도·울도가 해당함
- 자월생태관광권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관광 개발 시 보존·활용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해당 권역은 해적섬, 신황정, 붉은달 등 지명에 얽힌 다양한 설화와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자월도·승봉도·대이작도·소이작도가 해당함

<표 4-4> 덕적자원권 공간체계

구분		주요 내용	해당 도서
거점		· 핵심거점 : 내륙과의 교통이 연결되고 생활/관광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한 거점, 내부 도서 연결의 요충지	덕적도
		· 부거점 : 내륙과의 교통이 연결되고 핵심거점 다음으로 생활/관광시설이 밀집한 거점	자월도
		· 연계거점 : 멀리 떨어지거나 핵심거점, 부거점과 연결되기 어려운 섬들을 연결하는 거점	문갑도, 굴업도, 승봉도
축		· 도서발전축 : 핵심거점과 부거점을 연결하고 덕적권과 자월권의 연결을 강화하는 통합 발전축	-
		· 내륙연결축 : 항로를 기준으로 내륙과 도서를 연결하며 섬 외부 교통의 중요한 핵심축	-
		· 거점연계축 : 핵심거점 또는 부거점과 연계거점을 연결하며 부속도서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축	-
		· 도서연결축 : 항로를 기준으로 부속도서들을 연결하며 섬 내부 교통의 중요한 핵심축	-
권역	생활권	· 대생활권 : 중심생활권, 연계생활권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생활권	덕적 · 자월군도 전역
		· 중심생활권 : 핵심거점이 위치하고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생활권	덕적도, 소야도
		· 연계생활권 : 부거점 또는 연계거점이 위치하고 거점과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생활권	덕적생활권, 자월생활권
	관광권	· 덕적관광거점권 : 힐링레저, 생태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이 다수 산재하여 복합적 관광사업 추진이 가능한 권역	덕적도, 소야도
		· 자월생태관광권 :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섬과 관련한 인문 · 역사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한 권역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 테마도서권 : 산악 및 해양경관이 우수하고 트레킹, 백패킹 성지 등으로 레저활동에 특화된 권역	문갑도, 굴업도, 백야도, 지도, 울도

[그림 4-5] 덕적 · 자월 관광권역 공간구상도



2.3 권역별 발전방향

가. 덕적관광거점권역

- 덕적관광거점권역은 덕적도, 소야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이 집적된 지역으로 내륙과의 접근성, 도서간 연계성, 관광인프라 집중도를 활용하여 서해 도서관광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숙박·식음·체험·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촉진함. 또한 관광활동 다양성 및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관광흐름을 고려한 도서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거점간 접근 동선을 체계화하여 덕적·자월권 전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관광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단일 섬 방문에 그치지 않고 연계 탐방이 가능한 광역관광권역으로의 확장시킴

나. 자월생태관광권역

- 자월생태관광권역에 속하는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는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과 섬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임.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과 체험의 균형을 중시한 개발 방식이 요구됨
- 로컬관광 및 생활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도 관광생태계를 조성함
- 전통어업, 해녀문화, 생활풍습 등 고유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여 관광객에게 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달함. 이를 통해 감성 중심의 체험형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다. 테마도서권역

- 테마도서권역에 속하는 문갑도, 굴업도, 백야도, 지도, 울도는 우수한 산악 및 해양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지인들에게 트레킹 및 백패킹 명소로 알려져 있음.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탐방 중심의 아웃도어 대표 관광지역으로 특화시킬 수 있음
-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경험하는 미니멀 야영지를 조성하여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친환경 체류공간을 구축함.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도서 특유의 생태적 가치와 정서적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해양레저 등 해양환경을 활용한 치유 중심의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정적체험과 동적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함. 이를 통해 신체적 회복, 심리적 재충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해양힐링특화권역으로 발전을 도모함



특화발전전략 사업

1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1.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전역
사 업 비	· 3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27년(단기적 개발 후 지속 활용)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세부사업	·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 관광브랜드 통합 홍보마케팅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섬의 매력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합브랜드 필요

- 덕적 · 자월군도 내 섬들은 각기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관광브랜드가 미흡한 상황임
- 또한 도서별 콘텐츠가 분산되어 있고 관광객과 지역 간의 정서적 연결이 약해 관광지로써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디지털 친화적 홍보수단이 부족하여 관광수요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섬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서별 특색과 이야기를 반영한 정체성(Identity) 중심의 관광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❷ 캐릭터 중심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통합형 홍보마케팅 추진

- 지역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섬의 고유한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형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관광객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과 공감도를 높임
- 또한 개발된 관광브랜드를 활용하여 통합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한 마케팅 체계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특히 온라인 홍보마케팅은 소셜미디어 친화형 캐릭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내고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유도함

[그림 5-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기존 사업들의 효과는 미흡하며 섬 관광객 대상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섬 관광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관광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백령도에서 K-관광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설 및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물리적 사업 외에도 인천 섬 포털 기자단을 운영하여 인천 섬 정보와 콘텐츠를 소개하고 실전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인천광역시는 2025년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섬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단순히 개별 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경관개선, 섬 통합 브랜드 개발, 섬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하고 있음. 시범사업으로 덕적도 선착장과 덕적바다역, 시장 등 주요 시설에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 다만 사업 관계자 인터뷰 및 의견 수렴 결과 시설물 디자인 위주의 접근으로 통합적 브랜드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인천 섬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덕적·자월군도의 통합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5-2] 인천광역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인천 보물섬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인천시,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본격화 - "168개 섬을 하나로" "지속가능한 지역거점으로" - 행안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대상지 덕적도·굴림도 등 인천섬 현황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인천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감소 및 고령화 등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시책사업에 공모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0%)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천시 관내 168개 섬을 단순히 개별적인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하나의 통합적 로컬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사업) 디자인
---------------	----------------------	---

다. 세부사업

❶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의 핵심은 덕적·자월군도의 콘셉트인 ‘덕자’를 의인화하여 캐릭터 중심의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BI(Brand Identity)를 정립하는 것이며 12개 섬의 특성이 반영된 개별 VI(Visual Identity)를 개발하여 시각적 완성도를 높임
- BI 개발은 덕자라는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매뉴얼과 덕자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덕적·자월군도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콘텐츠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VI 개발은 기존 단순 심볼형태에서 벗어나 덕적·자월군도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다채로운 홍보사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개발함
- 브랜드 개발 이후 우선적으로 덕자 캐릭터의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고 〈덕자의 섬노트-굴업도편〉 시범 제작, 섬별 캐릭터(덕자의 친구들) 12종 개발 등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표 5-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BI 개발	캐릭터 스토리텔링	· 이름/출생 : 덕자(Deokja) / 웅진군 · 나이 : 약 13세~16세 감성, ‘섬소녀’ 이미지 · 외형 : 자연 갈색의 긴 머리, 바다색 원피스와 조개핀 착용 · 소지품 : 손에 ‘섬노트’, 크로스백에는 작은 섬 지도, 연필, 조약돌
	콘텐츠 활용	· 덕자의 섬노트 : 섬마다 이야기를 담은 감성에세이 또는 홍보리플릿 · 덕자의 친구들 : 자월도(자이), 울도(울랑), 문갑도(문이) 등 섬 캐릭터화 · 덕자굿즈 : 노트, 엽서, 머리핀, 티셔츠 등 캐릭터 상품 · 덕자로드 : 12개 섬을 모두 돌며 완주하는 테마코스 · 덕자상회 : 지역주민이 만든 섬마을 공동브랜드, 굿즈/음식/공예품 등 판매
VI 개발		· 덕자의 친구들에 고유 VI 부여(덕자 캐릭터와 세계관/스타일 통일성 유지) - 예시 : 문이(달 형태), 자이(파도/항구), 울도(울창한 숲) · 색채 : 섬의 자연 또는 분위기를 반영한 대표 색상 지정 · 서체 : 섬 이름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서체(순글씨체/붓글씨체 혼합 가능)

[그림 5-3]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예시



❶ 관광브랜드 통합 홍보마케팅

-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를 활용하여 덕적·자월군도 통합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한 이원적 마케팅전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관광객 참여를 동시에 제고함
- 온라인 홍보마케팅은 '덕자'를 주인공으로 한 브랜드 미디어를 구축하고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중심으로 감성적이고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함으로써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부산에서 '부산언니'라는 소셜미디어 친화형 캐릭터를 제작·활용하여 부산의 맛집, 여행지, 문화축제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정보와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은 덕자의 네이밍을 활용한 캠페인, 이벤트 등을 통해 12개 섬 관광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섬 관광인프라에 덕자테마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덕적·자월군도 관광브랜드를 노출시킴

〈표 5-2〉 관광브랜드 통합 홍보마케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 SNS 콘텐츠 운영 : 덕자의 삶과 이야기를 공유(덕자라이프 시리즈) · 해시태그 캠페인 : 방문 인증샷 유도, 굿즈 리워드 제공, 완주 콘텐츠 확산 - 예시 : #덕자왔도 #덕자의 섬노트 #12섬 완주 챌린지 · 인플루언서 홍보 : 덕자패스 이용기, 굿즈 언박싱 등 바이럴 콘텐츠 제작 · 웹툰/영상 콘텐츠 제작 : '덕자의 섬 이야기' 웹툰/숏폼 영상 제작 · 관광챗봇 구축 : 카카오톡 챗봇으로 섬별 정보, 동선, 주요 행사일정 안내 - 챗봇 명칭 : 섬톡(Island Talk), D:Talk 덕자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덕자패스 도입 : 식음/숙박/체험 할인 제공(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연계) · 관광캠페인 : 덕자로드 완주 챌린지, 1섬 1마일리지 캠페인 실시 · 굿즈마케팅 : 관광안내소, 바다역 등에 덕자상회(굿즈샵) 설치·운영 · 인프라 활용 : 섬마을박물관, 공방 등 전시·체험시설에 덕자 테마 부여 - 예시 : 덕자의 섬 이야기관(섬마을박물관), 덕자 아뜰리에(공방) · 덕자 인증제 운영 : 식음·숙박시설에 덕자 로고 부착(덕자패스 사용처 중심) · 올해의 덕자 선발 : 지역주민 홍보대사 '덕자' 선발

[그림 5-4] 관광브랜드 통합 홍보마케팅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00백만 원으로 BI 개발(캐릭터 제작), VI 개발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사업비는 본 과업에서 제외함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은 사업내역이 다양하고 브랜드 개발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기와 비용책정에 대해 유연한 선택을 주기 위해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 BI 개발(캐릭터 제작)과 VI 개발 사업비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강진 관광브랜드 구축 및 BI/CI 개발(2022)> 150백만 원, <안동시 통합 VI 디자인 개발 및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2022)> 190백만 원 등

<표 5-3>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BI 개발(캐릭터 제작)	1	식	150	150
VI 개발	1	식	150	150
합계	-	-	-	300

사례 : 울릉도 관광브랜드

- 울릉도의 관광브랜드인 ‘울루랄라 울릉도’ 는 <가고 싶은 K-관광섬>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젊음(youth), 액티비티(activity), 글로벌(global)등 울릉도 관광의 주요 메시지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반영하고 있음
-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기념품) 개발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사업과 더불어 울루랄라 바다포차, 울루랄라 윈터마켓 등 오프라인 계절별 특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주간울릉통신’ 을 발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울릉군에서 열리는 행사, 지역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과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있음



캐릭터 올라(조형물)

올라 굿즈

올라 페이스북 홍보사업

1.2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전역
사 업 비	· 15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년 지정 목표(이후 국립공원 추진 지속)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세부사업	· 해양시립공원 지정 · 덕적 · 자월군도 해양생태권역화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덕적·자월 해양생태계의 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 마련

- 덕적 · 자월군도 내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대이작도 주변 해역 생태계는 2003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임
- 지속가능한 섬 관광활성화가 과업의 주요 목적이나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고려한 균형적 개발이 필수적임
- 모래 갯벌과 바위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천퇴(풀등)의 특이한 지형경관, 다양한 수산생물과 저서생물이 서식하는 덕적 · 자월군도가 지닌 생태가치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해양관광정책 사업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❷ 해양시립공원 지정을 통한 섬 관광발전을 위한 활용도 제고

- 국내 도서 중 시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전무하여 해양시립공원 지정 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광지로서의 덕적 · 자월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변 부속 도서들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생태계 및 도서지역 환경의 보존을 꾀하고 있음
- 보전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발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재 웅진군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시립공원 지정 이후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으로 확대되는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3년 6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공모에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갖춘 대이작도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지역이 포함되어 덕적 · 자월군도의 대표적인 해양생태관광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그림 5-5]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는 2525년 5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시에서 최적의 정주여건과 혁신성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국제적인 영향력과 연결성을 지닌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Global Top 10 City INCHEON〉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전략별 선도사업을 선정하였음
 - 전략별 선도사업 중에 ‘5. 고품격 문화의 매력도시 조성’에서 보물섬 관광 활성화를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꾀하고 있으며 그중 덕적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거점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본 사업의 지향점을 해양국립공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바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해양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여건을 분석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해양생물 보호 및 복원,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민선 6기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덕적·자월군도를 포함해 백령~대청권역 270km²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어업권 침해 우려 등 반대의견으로 인해 계획이 철회되었음
 - 반면 뛰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한 덕적·자월군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대이작도를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3곳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권역별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서산시 가로림만 등과 같은 타지역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다. 세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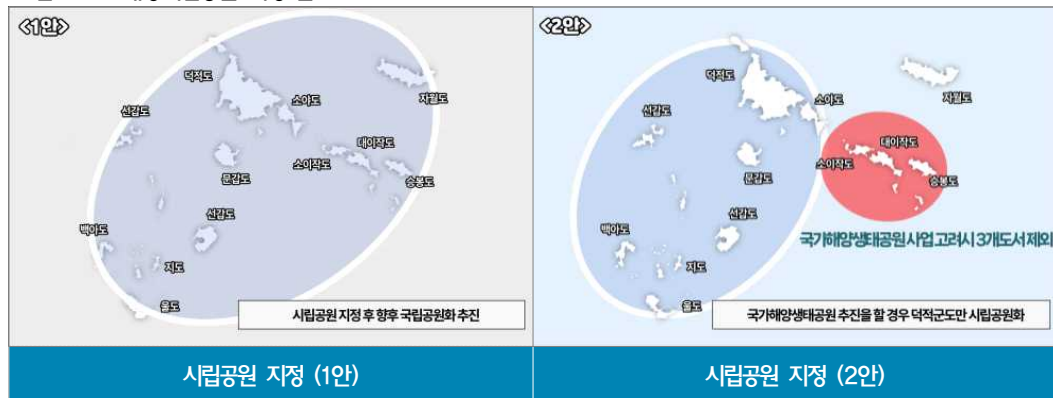
⊗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 해양시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라 시(市)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덕적·자월군도는 해양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의 절차와 지정기준에 따르게 된다.
 - － 시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및 관리할 수 있어 해양시립공원 지정 시 인천광역시장이 특별한 요건 없이 지정 가능함
- 해양시립공원을 지정 시 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함
 - － 대상지는 덕적·자월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 안(1안)과 대이작도 주변 지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시 덕적군도만 대상으로 하는 안(2안)으로 구분함
- 덕적·자월군도 해양시립공원 지정 후 자연생태계, 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표 5-4> 자연공원법상 시립공원 지정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시립공원의 지정 필요서류 작성	·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결정 도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 · 공원구역/공원용도지구/공원시설계획 결정(안)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원위원회의 심의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 시립공원 지정 구역에 관한 사항 · 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시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등
승인 및 고시	· 시립공원 지정 완료

[그림 5-6] 해양시립공원 지정(안)



❶ 국립공원 지정기준 및 절차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자연공원법 제2조)으로 국립공원 지정기준(자연공원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자연공원을 말함
-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의 형태에 따라 산악육지공원과 해상공원, 사적공원으로 구분됨. 이중 해상공원은 4개소로 지정 면적 중 2,782,375km²가 해면에 해당함
 - 산악육지공원(18개소) :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 사적공원(1개소) : 경주
 - 해상공원(4개소) :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한려해상
- 수도권 지역 국민들이 근거리에 입지한 덕적·자월 군도의 뛰어난 자연과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를 추진해야 함

<표 5-5> 국립공원 지정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주요 내용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천연기념물 · 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그림 5-7] 시립 및 국립공원 지정 절차



☼ 덕적·자월군도 해양생태권역화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를 포함하는 면적 55.7km²의 해역은 2003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의한 법률」과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대이작도 주변 해역 생태계보전지역의 2곳을 포함하여 2024년 말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 서산시(가로림만), 포항시(호미반도), 보성·순천(여자만), 신안·무한, 고성군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 지정요건 :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습지보전지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 －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 장관 지정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해양수산업발전위원회 심의
- 덕적군도만을 대상으로 해양시립공원 지정하는 안(2안)은 국내 최초의 해양시립공원 지정과 더불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덕적·자월군도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권역화를 목표로 함
- 시립공원 지정 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으로 이어지는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수도권의 해양생태관광지로서 덕적·자월 군도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함
 - － 인천광역시와 용진군에서 추진 중인 덕적·자월군도에 대한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여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 해양생태권역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체계를 구축함

〈표 5-6〉 해양생태권역화 단계별 로드맵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 해양시립공원 지정 추진(2026~2029년) - 해양시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및 시립공원 계획 수립 - 도서별 현황조사, 주민공청회, 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진행
2단계	· 국가해양생태공원 공모 신청(2027년)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소이작도 대상 지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해양시립공원과 연계방안 마련
3단계	· 국립공원 지정 추진 -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지역을 제외한 국립공원 지정 검토 및 추진 - 대상지역 : 덕적도, 소야도, 선갑도,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 제외지역 :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4단계	· 덕적·자월 군도 해양생태권역 설정

라. 사업추진방안

-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50백만 원으로 시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시립공원 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였음
 - － 국립공원 지정은 시립공원 지정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이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기와 비용 책정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 시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현황조사와 시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 〈진주시 방어산 군립공원 계획 수립용역(2018)〉 150백만 원,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2023)〉 200백만 원 등

〈표 5-7〉 해양시립공원 지정 관련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시립공원 타당성 및 현황조사	1	식	50	50
시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1	식	100	100
합계	-	-	-	150

사례 : 시립공원 및 해양공원

- 덕적·자월군도의 대외적 인지도를 개선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해양시립공원’ 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립공원
 -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시립공원(군립에서 변경), 포항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등
- 해상시립공원
 - － 화성시 해상시립공원(조례), 당진시 삼교호 함상공원(삼교호 관광지)
- 기타 해양공원
 - － 진해해양공원, 통영해양관광공원, 사천비토해양낚시공원 등



진해 해양공원

당진시 삼교호 함상공원

사천비토해양낚시공원

1.3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사 업 비	· 1,900백만 원
사업기간	· 2033년 또는 2035년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세부사업	· 섬 엑스포 유치기반 조성 · 섬 엑스포 유치 단계별 로드맵

가. 필요성 및 목적

● 지속가능한 섬 발전모델로서 인천 섬 엑스포 추진 필요

- 섬 엑스포는 전 세계 섬들의 생태·문화·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도시 간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섬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행사로 이를 통해 섬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됨
- 인천 섬들은 평화와 안보의 상징이자 생태적으로 우수한 가치, 서울과 인접한 입지, 항공·철도·해상 복합 교통망 구축 등 국제행사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이점을 살려 인천 섬 국제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인천항을 주 행사장으로 옹진군 섬을 부 행사장으로 하여 다수의 섬을 순환하는 다도해형 전시·체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이를 통해 덕적·자월군도를 비롯해 인천 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행사범위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덕적·자월 국립공원화 사업 등에도 탄력을 받는 계기를 만들

● 기존 섬 박람회를 검토하여 성공적인 인천 섬 엑스포 개최 추진

-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며 섬 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예산 확보 불안전성, 대규모 투자유치 부진, 교통·숙박 등 기반 인프라 미흡,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에 인천 섬 엑스포 추진 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교통·숙박 시설 확충, 국제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과제로 도출됨. 이를 위해 물리적, 제도적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함
- 특히 단기적으로 유치기반 조성과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시범행사 및 사전프로그램 운영, 장기적으로 엑스포 개최와 사후활용 방안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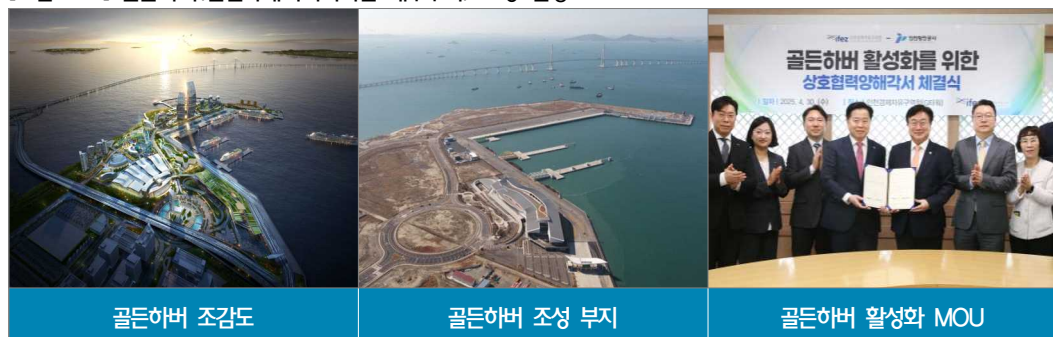
[그림 5-8]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 2012년부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약 42만㎡)를 활용한 ‘골든하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부지는 총 9개 필지로 구분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함. 국내 최초로 항만배후단지에 레저·휴양·쇼핑·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해양문화관광 시설 개발을 목표로 2033년까지 전 부지매각을 목표로 함
- 인천항만공사(IPA)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그간 부지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 되면서 장기간 정체 상태를 겪었음. 2025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IPA는 ‘골든 하버 관광·레저 집객시설 유치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업무협약’ 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PA로부터 사업부지 일부(Cs8, Cs9)를 매입하여 독일 테르메 그룹에 임대하고 스파시설 리조트 시설 유치를 계획 중임
- 골든하버는 인천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전시장, 숙박·상업 인프라 외에도 각종 부대시설을 제공함. 또한 엑스포가 지향하는 분산형·다도해형 운영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 육상과 섬을 연결하는 집객 및 환승 허브가 필요 하며 골든하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

[그림 5-9] 골든하버(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현황



골든하버 조감도

골든하버 조성 부지

골든하버 활성화 MOU

다. 세부사업

● 섬 엑스포 유치기반 조성

- 국내외 섬 박람회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충분한 물리적 인프라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임. 인천 섬 엑스포는 유치 단계에서부터 이를 충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물리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물리적 기반은 교통부문, 컨벤션부문, 숙박부문에 나뉘며 교통부문은 인천연안여객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철도·선박 등을 활용하여 육·해상 접근성을 확보함. 컨벤션부문은 인천항 부두 및 골든하버 내 전시·회의시설을 적극 활용함. 숙박부문은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소재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임시 숙박시설 도입을 검토함
- 제도적 기반은 〈인천 섬 엑스포 개최 지원 조례〉 제정과 〈인천 섬 엑스포 유치 추진 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며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함

〈표 5-8〉 섬 엑스포 유치기반 조성방안

구분		조성방안
물리적 기반	교통부문	· 인천국제공항-인천역(K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결성 강화 · 해상택시, 소형선, 쾌속선 운항체계 구축으로 섬 간 이동네트워크 구축
	컨벤션부문	· 골든하버 개발부지에 조성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 활용 · 다도해형 전시·체험공간 조성 : 섬별 테마 전시관, 모듈형 전시장 설치
	숙박부문	· 도심 숙박 : 인천 송도, 중구 내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활용 · 도서 숙박 : 덕적·자월군도 및 옹진군 섬 내 민박, 펜션, 리조트 활용
제도적 기반	조례 제정	· 목적 : 인천 섬 엑스포 개최의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 항목 : 목적, 정의, 추진기구, 재정지원, 시민참여, 국제교류, 사후활용
	위원회 구성	· 역할 : 인천 섬 엑스포 유치·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민관협력 창구역할 수행 · 구성 : 위원장(1), 부위원장(2), 위원(20), 자문단, 사무국, 분과위원회

[그림 5-10] 섬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안)



❶ 섬 엑스포 유치 단계별 로드맵

- 인천 섬 엑스포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부터 개최까지 총 3단계의 중장기 로드맵(2027~2033년)을 구성하며 3단계 추진 시 핵심 기반시설이 조성될 골든하버 부지매각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안 1은 골든하버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인천 개항 150주년을 맞는 2033년 개최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행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항 접근성을 활용해 해외 참가자 관람객 유치를 극대화함
- 대안 2는 골든하버가 완공되는 시점(2035년 이후)까지 엑스포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골든하버와의 시너지를 통해 엑스포 실현성과 사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표 5-9〉 섬 엑스포 유치 단계별 로드맵(안)

구분		목표	추진방안
1단계	기반조성 및 인식확산 (2027~2028년)	유치기반 조성 및 국제공조 기반 마련	· 인천 섬 엑스포 선포식 개최 · 인천 섬 엑스포 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 출범 · 국내외 섬 포럼/워크숍 개최(UNTWO 초청)
2단계	국제승인 및 실행계획 수립 (2029~2032년)	공식 유치 신청 및 국제 승인 확보	· 인천 섬 엑스포 승인 절차 추진 · 행사장 및 전시관, 부대시설 등 설계 · 전시체험 콘텐츠 사전 설계 및 시범운영 추진
3단계	인천 섬 엑스포 개최 (2033년 또는 2035년)	개최 준비 및 사후 활용방안 마련	· 주요시설(행사장, 전시관 등) 운영계획 수립 · 국내외 언론, 여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 사후활용방안 마련, 국제 섬 협력 포럼 정기 개최

라. 사업추진방안

- 각종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섬 엑스포 사전 홍보마케팅 비용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00백만 원으로 책정함
 - 홍보마케팅 비용에는 선포식/포럼 개최, 관람객 유치마케팅 등 비용이 포함됨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섬 엑스포 사전 홍보마케팅 사업비는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861백만 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마케팅〉 2,000백만 원 등

〈표 5-10〉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	식	900	900
섬 엑스포 사전 홍보마케팅	1	식	1,000	1,000
합계	-	-	-	1,900

사례 : 여수 세계 섬 박람회

-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로 섬의 문화·생태·경제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섬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행사는 여수시 돌산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기존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와 해양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8개의 주제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섬 연계 투어프로그램과 병행할 예정임
- 세계 섬 보유도시와 참여의향서(LOI)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필리핀’ 만 유일하게 참여가 확정되었음. 국제 인증을 위해 ‘UN 인증 전시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년 8월 8일 섬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박람회 홍보 및 사전 분위기를 조성함
- 최근 언론을 통해 부실한 준비 및 국제행사로의 위상 저하 우려가 지적되면서 대규모 행사 대비 예산 확보, 각종 인프라 확충, 국제 참가국 확대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5-11>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문제점 진단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문제점	인천 섬 엑스포 개최 유의사항
<박람회 위상 및 국제성 부족> 유엔 및 UNTWO 등 국제기구 승인 지연 실제 참가 확정 국가 2곳에 불과	<국제화 이슈화 및 공신력 확보> K-관광섬, 기후 정책 활용 국제적 이슈화 국제기구와 공동기획 또는 MOU 체결
<교통·숙박 등 인프라 미비> 주 행사장 접근성 미흡, 기반시설 설계 단계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 검토 단계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 신규 인프라 조성에 따른 계획 추진 불확실성 제거 인근 시설 및 개발부지 도입시설 활용
<섬 박람회 추진 예산 확보 불투명> 박람회 추진을 위해 확보된 예산 65억에 불과 필요 예산(248억) 자체 관광수입 충당	<예산 집행의 전략성과 파급력 확보> 기업 스폰서십 유치, 크라우드 펀딩 운용 중앙정부 재정사업 연계(섬발전종합계획 등)

인천 섬 엑스포 지향점

여수세계 섬 박람회의 한계를 넘어 인천 섬 엑스포는
“국제적 공감대와 실행력을 기반으로 인천섬 장기플랜 실현”



2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2.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도 진리항 및 소아도항 일원
사 업 비	· 162,75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30년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세부사업	· 덕적도 연안여객터미널 조성 · 소아리항 활용 연안크루즈 기항지 조성 · 연안크루즈 기반 섬 관광 활성화 · 보행 연도교 조성

가. 필요성 및 목적

● 서해 도서를 연결하는 핵심교통 거점으로서의 역할 미흡

- 덕적도는 서해5도~강화도~인천으로 이어지는 서해 도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서해 해상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연안도서를 연결하는 핵심교통거점으로서 역할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덕적도를 서해 해상교통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여 광역적으로 인천 연안도서간 연계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덕적·자월군도 내 도서간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리에 입지한 도서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한 덕적·자월군도 발전 토대 마련

- 기존 여객선 정박지인 진리항(도우항)은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의 규모 확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관련 계획을 통한 항만시설 정비 및 확충을 추진중에 있음
- 이에 진리항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진리항이 교통거점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과 인접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여 연안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덕적·자월군도 해양시립공원 지정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의 규모화와 크루즈 관련 인프라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그림 5-1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크루즈관광을 통한 지역관광과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항만·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기항지 관광상품 고도화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기항지 중심의 관광활동 확대 및 연안 크루즈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단순히 정박지가 아닌 새로운 관광지라는 인식으로 기항지와 인근지역을 관광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항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항지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사업자 연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와 용진군은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연륙교 및 연도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함
 - 2018년 덕적~소야교 개통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누리는 효과가 뚜렷함
-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TOP 10 도시를 추진 중이며 덕적도를 관광거점으로 하는 섬 개발 사업과 아라뱃길 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지로 선정하여 인프라 구축과 관광활성화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5-12] 인천 해양교통 사업 추진현황



다. 세부사업

● 연안여객터미널 및 내부 교통 인프라 조성

- 최근 ‘인천 i-바다패스’ 사업으로 인해 덕적·자월군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 및 향후 투자유치 등 향후 서해안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덕적도의 항을 서해도서의 모항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함
 - 모항 건설을 위해 매립을 통해 부지를 조성하고 연안여객터미널과 관련 부대시설을 조성함
 - 연안여객터미널은 여객터미널 기능과 관광안내 및 휴게기능, 문화향유 기능을 도입함
- 서(西)선착장은 외부 연계거점으로 활용하고 동(東)선착장은 내부 연계거점화하여 덕적·자월군도 내 도서간 이동을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함
 - 연안여객 이동로를 침해하지 않도록 소규모 인원이 탑승 가능한 소형선박을 도입(지역주민 소유 선박 활용)하고 선미도 관광단지 이동 등 투어상품 운영 시 이동수단으로 활용함
- 또한 선미도와 덕적도, 대이작도와 소이작도의 관광 연계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도서간 보행연도교를 조성함
 - 특히 선미도는 관광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덕적도와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선제적인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며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는 차량이동 중심의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보행 중심의 연도교를 도입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임

<표 5-12> 연안여객터미널 및 내부 교통 인프라 조성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안여객터미널	· 대상지 : 서선착장(진리도우선착장) 일원 · 매립지 규모 : 약 20,000㎡ · 시설 연면적 : 9,000㎡ - 1층 : 여객공간 (매표소, 관광안내소, 고객라운지) - 2층 : 문화공간 (K-아일랜드 뮤지엄(홍보관)) - 3층 : 식음/휴게공간 (식당, 전망카페, 선사사무실 등)
보행 연도교	· 선미도~덕적도 - 사업규모 : L=약 1.7km, B=3m (일부 구간 해변데크로 구성) · 대이작도~소이작도 - 사업규모 : L=약 750m, B=3m

[그림 5-13] 연안여객터미널 및 내부 교통 인프라 조성 예시



❶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 덕적·자월군도는 인천과 인접하여 한강 아라뱃길과 연계가 가능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래관광객을 섬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크루즈관광 기항지로서 적합함
- 소아리항은 주변 연륙교 및 기존 여객항로에 영향을 받지 않아 크루즈 기항지로 적합하며 수심이 낮고 모래와 펄이 많은 여건상 5천 톤급 규모의 연안크루즈를 도입하여 운영함. 소아리항 접안시설은 일반 선착장으로 적절한 규모이나 크루즈 선박 규모를 고려할 때 접안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며 셔틀버스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이동편의를 제고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크루즈관광 활성화 계획’ 과 연계하여 인천공항, 백령도 공항을 활용한 소아리항 연계 관광상품인 ‘플라이 앤 크루즈’ 패키지 상품을 개발함
 - 덕적도의 관광지 이수화 및 체류형 소비 확대를 위해 기항지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오버나잇크루즈(섬투어 등), 야간선상파티 등을 운영함
- 연안크루즈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아라뱃길과 서해5도를 연결하고 향후 연안크루즈 상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연계 및 협력사업으로 서해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여 서해안 숙박형 크루즈로 확대를 추진함

〈표 5-13〉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크루즈 기항지 조성	· 기항지 위치 : 소아리항 · 도입 크루즈 규모(안) : 5,000t급, 승객 120명 · 접안시설 증설 : 150m (크루즈 선박 크기를 고려)
연안크루즈 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 패키지 상품 판매 : ‘Fly&Cruise’ (크루즈관광 활성화계획 연계) - 오버나잇크루즈(섬투어 등), 야간선상파티 등 운영 · 연안크루즈 신규항로 개설 : 2개 항로 - ①아라뱃길~서해5도(덕적도 경유), ②인근 주변도시 순환항로(덕적도 경유) · 숙박형 연안크루즈 상품 개발 - 크루즈 항로 : 인천~덕적~태안~군산~목포 - 개항지 : 근대역사문화도시 연계코스 상품화(인천~군산~목포)

[그림 5-14]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덕적·자월군도 서해교통 거점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62,750백만 원으로 H/W 사업은 연안여객터미널 조성, 보행 연도교 조성,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162,550 백만 원, S/W사업은 연안크루즈 상품 개발 및 관광활성화로 200백만 원이 투입됨.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적용함
- 연안여객터미널과 보행 연도교, 크루즈 기항지 조성비, 연안크루즈 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덕적도의 서해교통 모항화를 위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함
 - 〈거제 사곡지구 매립 계획〉, 〈속초 국제여객터미널공사비〉, 〈소무의 인도교 조성사업비〉,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공사(2022)〉등을 참고하여 반영함

〈표 5-14〉 덕적·자월군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연안여객터미널 조성	(공유수면 매립)20,000	m ²	2.4	48,000
	3	층	13,600	40,800
보행 연도교 조성	대아작도~소아작도 : L=750m, B=3m	m ²	12.4	28,000
	선미도~덕적도 : L=1.7km, B=3m	m ²	7	36,000
크루즈 기항지 조성	150	m	65	9,750
연안크루즈 상품 개발 및 관광활성화	1	식	200	200
합계	-	-	-	162,750

사례 : 전라남도 연안 크루즈

- 전남도는 섬관광 활성화 및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의 견인을 위해 '전남연안 크루즈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을 통해 4박5일 간 여행하는 5,000톤급 크루즈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최근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부업을 위해 전국 최초의 섬 크루즈 여행인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 를 시범 추진하여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꾀함



2.2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일원
사 업 비	· 9,53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29년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세부사업	·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 ·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 해양웰니스거점 조성을 위한 오랜 정책 추진 의지

- 제7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서는 덕적군도의 발전 방향을 친환경 해양생태문화와 휴양기반, 치유의 섬, 웰니스관광으로 설정하고 해상관광 및 휴양 인프라 조성계획 등을 계획하고 있음
 - － 옹진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등 덕적도에 의료·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덕적도는 육지와와의 접근성, 수용태세, 서포리해수욕장과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해양 웰니스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핵심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무산된 바 있음

● 기존 계획 검토 및 보완을 통해 해양(웰니스) 거점 조성 재추진

- 옹진군 해양치유센터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20)에 반영된 서포리 해양치유지구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여건변화와 주변 시설 간의 관계 및 신규시설 조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연계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도록 함
 - － 대상지는 서포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지구 용도 및 건축 기준에 따른 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 덕적도는 주변 도서를 연결하는 중심지이며 덕적·자월권역 특화발전의 요충지로 권역의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필요함
- 특히 서포리해수욕장과 자연휴양림 등 덕적도에 위치한 자연·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웰니스 관광지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덕적도 복합 해양힐링센터를 조성함

[그림 5-15] 덕적도 복합 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을 통해 7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였으며 덕적도는 해사, 갯벌, 기후·경관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서포리 관광지 내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는 상가시설과 주민장터, 야외광장이 입지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수기에 이용자가 감소하여 공간 및 기능 개선이 시급함

<표 5-15> 덕적도 해양치유자원 및 효능

구분	임상결과	덕적도 관련 사항
해양기후 및 경관	· 수면질, 만족도, 인지기능 ↑ · 혈압(심박수) ↓, 비타민 D 생성 ↑ · 이명지수 ↓, 스트레스 호르몬 ↓	· 서포리 해변(길이 1km, 폭300m), 해송숲(0.03km ²)으로 해양치유 관련 다양한 활동 가능
해수	· 보행속도 등 운동능력 ↑	· 해수욕장 수질평가 적합 - 청정해수욕장 20선 선정('16)
염지하수	·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	-
해사	· 보행속도 등 운동능력 ↑, 통증 ↓	· 토양분석 기준이하 및 불검출(양호)
피트(퇴적물)	· 보행속도 등 운동능력 ↑ · 통증 ↓, 균형능력 ↑	· 해저퇴적물 관리기준 우수
머드·소금	· 전립선 지수 ↑, · 통증·염증수치 ↓ · 안구건조 증상 ↓	· 머드(갯벌)은 중금속 농도 및 해조류 기형도 0.3% 이하(매우 청정)
해조류	· 장내 미생물 다양성 ↑	· 구멍갈파래, 다시마, 미역, 서실, 불등풀가시리, 주름까막살 등

자료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계획(해양수산부, 2020. 1. 15.), 웅진군 해양치유센터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웅진군, 2020. 6.)

[그림 5-16] 서포리 관광지 내 사업대상지 현황



다. 세부사업

❶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

- 기존 계획의 해양치유센터 대상지는 현재 오토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수욕장, 상업 시설, 주차장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야외광장 부지(군유지)를 활용한 복합 해양힐링센터 ‘(가칭) 덕적 칠링 하우스’ 를 조성함
 - 해당 부지는 군에서 추진 중인 서포리 해수욕장 관광 명소화 추진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지로 해수욕장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
- 덕적 칠링 하우스는 3층 규모의 시설로 휴식과 웰니스, 관광, 아웃도어 등이 결합된 기능을 부여하여 1층은 지역 특산물 쇼핑과 먹거리, 2층은 웰니스 체험, 3층은 위케이션, 야외에서는 해양 액티비티를 윈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함
- 해수욕장은 유아, 어린이,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풀장으로 조성하고 슬라이드와 물놀이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함
- 숙박시설은 추가 조성 없이 오토캠핑장과 덕적도 자연휴양림, 주변 민박 또는 펜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추후 덕적도항 연안크루즈 기항시 체류형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비수기 이용객을 확보함

<표 5-16>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 개요	· 위치 :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134-30 일원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해양힐링센터 (덕적 칠링 하우스)	· 시설 연면적 : 1,800㎡ · 1층 : 상업 및 휴게시설(주민장터, 카페테리아, 힐링프로그램 안내센터 등) · 2층 : 체험시설(테라피살-스파, 마사지, 건강진단 등) · 3층 : 위케이션 및 창업(위케이션 관련 공간 조성)
해수욕장	· 해수욕장 및 부대시설 조성

[그림 5-17]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예시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개발

- 해양힐링센터는 서포리해수욕장, 서포리웰빙산림욕산책로, 덕적종합운동장 등의 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이를 연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덕적도의 해변, 해사, 갯벌은 해양치유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서포리 해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양힐링센터와 연계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함
- 덕적도를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힐링센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 이때 운영 프로그램은 센터의 공간 기능과 주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상함
-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관광객의 휴식 및 힐링에 대한 목적성이 높고 당일형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체험형 프로그램과 건강·테라피 프로그램, 서포리 바다를 활용한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덕적도의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중심성을 강화함

<표 5-17>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일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 대상 : 체류기간이 짧고 웰니스 체험이 낮은 관광객 · 족욕체험 : 족욕 솔트를 사용한 치유체험(등산 및 트레킹 프로그램 연계) · 해풍요가 또는 명상 : 바닷바람이 부는 테라스와 해변에서 전문가와 함께 요가 또는 명상수업 · 웰빙식단 체험 :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식 제공 - 비건식단, 당뇨식단, 지중해식, 키토식 메뉴 등
해양재활 프로그램	· 대상 : 노년층,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나이별, 질환별 구분) · 식이요법 교육 : 저염식 식단 구성법, 현지 식재료로 만든 식사 제공 · 저항도 운동 : 해안산책과 해수욕을 활용한 수중 관절 운동체험 · 해변 노르딕 워킹 : 관절염 등의 치유효과, 찜질 치료와 함께 병행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	· 대상 : 서포리 바다를 즐기는 모든 관광객 · 카약, 패들 섭(SUP)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상공간 조성 - 해양 액티비티 관련 동호회 수요 유입 가능

[그림 5-18]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덕적도 복합 해양힐링센터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9,530백만 원으로 HW사업으로 해양힐링센터와 해수풀장 조성에 9,500백만 원, SW사업으로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30백만 원이 투입되며 토지매입비는 제외함
- 해양힐링센터와 해수풀장 조성사업비는 유사사례의 조성단가 기준과 적용하고 관련 계획 사업비를 준용함
 - 〈조달청 유사사업 공사비〉, 〈부동산원 및 LH의 조성비 단가자료(2024)〉, 웅진군 공약사항 〈서포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추진〉사업의 2025년 사업비를 반영함
-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예산군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용역(2022)〉 19백만 원, 〈정선 상설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용역(2025)〉 39.6백만 원 등

〈표 5-18〉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해양힐링센터 조성	3	층	1,500	4,500
해수풀장 조성	1	개소	5,000	5,000
해양힐링센터 프로그램 개발	1	식	30	30
합계	-	-	-	9,530

사례 : 완도해양치유센터

-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센터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2017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해양치유산업 협력 지자체로 선정되어 완도군 명사십리해수욕장 인근에 2023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하며 2025년 상반기 372만 명을 유치하고 있음
- 해수를 이용한 딸라소(Thalasso=바다)풀과 명상풀, 거품테라피, 해조류스파, 스킨테라피 등 총 16종류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기후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통해 해양기후치유, 오감치유 등 차별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딸라소풀



해조류거품테라피

2.3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도 북리 560 일원
사 업 비	· 95,0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30년
사업주체	· 웅진군, 민간(기업)
세부사업	· 보물섬(Treasure Island) 리조트 조성 · 요트정박장 조성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서포리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북리 관광활성화 사업 필요

- 덕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은 진리항을 통해 입도하여 대외적으로 유명한 서포리 해변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리 지역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관광관련 사업이 부재함
 - 북리지역은 1920년대부터 1960대까지 민어파시의 중심지였으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방, 극장, 약방, 여관, 공중목욕탕 등이 생겨났던 곳으로 서해바다의 황금시대를 기억하는 지역임
- 덕적도 북서부 지역은 능동자갈마당, 소재해변, 파리금이 등 아름다운 해안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서포리 중심의 관광개발 및 활성화 사업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방문이 저조함에 따라 북리의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❷ 선미도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기대

-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선미도가 최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약 3,08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해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선미도 관광단지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고 덕적도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향후 덕적도 북서부 지역은 진리와 서포리, 선미도로 이어지는 관광루트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리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선미도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음
 -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요트정박장을 북리선착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통해 향후 서포리~북리~선미도로 이어지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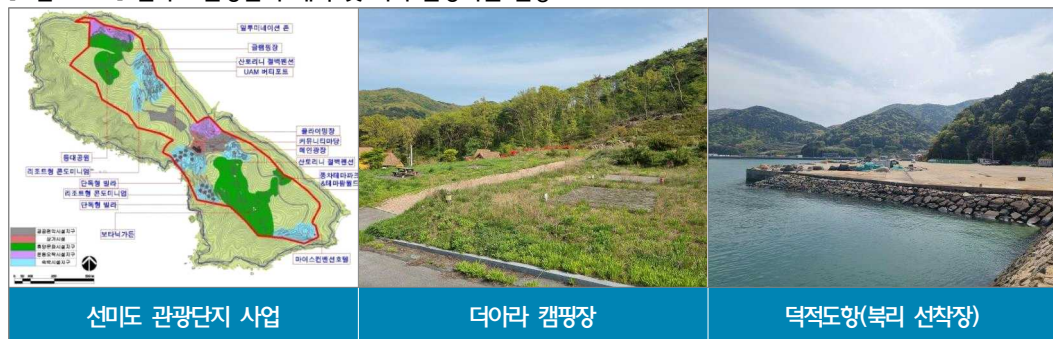
[그림 5-19]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선미도 관광단지 지정은 2012년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이후 12년 만에 추진 되는 것으로 덕적·자월 군도의 관광활성화를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선미도만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시설이 조성 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민간 개발자, 웅진군과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 덕적도항이 위치한 북리는 과거 피난민의 유입으로 항구 주변에 15,000명 이상이 상주 하였으며 1971년대 초까지 민어파시로 유명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관광객은 외부에 잘 알려진 바다역 시장이나 서포리 해변 등을 방문하고 있어 북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관광객을 위한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용객이 적어 시설이 방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숙박시설, 먹거리, 체험거리 등이 부족한 상태임
- 덕적도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방파제, 야적장 등 기본적인 기능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향후 국가어항 통합개발계획의 레저·관광 특화사업 지역으로 추진하여 관광레저시설, 상업시설 등 북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이 가능함

[그림 5-20] 선미도 관광단지 계획 및 북리 관광자원 현황



다. 세부사업

● 보물섬 리조트(Treasure Island) 조성

- 민어 파시의 중심지였던 북리의 역사 및 정체성 배경으로 서해 황금시대 덕적도를 재현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추진함. 특히 덕적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보물섬을 키워드로 휴양형 리조트를 조성함
 - 덕적도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관광문화를 추진하고 있어 ‘보물섬 리조트’를 자연 및 지형 친화적이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리조트로 조성함
- ‘보물섬 리조트’는 해외 휴양지 중 섬에 조성된 리조트를 벤치마킹하여 풀빌라와 워터카티지(Water Cottage) 형태로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외부접근이 어려워 알려지지 않은 북리의 해변을 연계한 리조트를 조성함
 - 워터카티지는 물 위에 지어진 작은집을 의미하며 바다나 호수 위에서 머무는 듯한 분위기를 선사하여 북리 해변의 절경과 어울림과 동시에 타 숙박시설 등과 차별화할 수 있음
- 리조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 휴양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리조트와 연결된 해변을 활용한 이벤트와 본 계획에서 소이작도에 추진 예정인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도입 등 다양한 관광활동을 계획함

<표 5-19> 보물섬 리조트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물섬 리조트	· 대상지 : 덕적면 북리 일원 · 부지면적 : 30,000m² · 숙박시설 풀빌라(50실), 워터카티지(10동), 인피니티풀, 테마가든, 레스토랑 등
보물섬 관광프로그램	· 히든 해변 관광 프로그램 - 부부 또는 커플 이용객 대상의 프라이빗 런치 프로그램 운영 - 리조트 이용객 대상의 해변 파티 운영 · 보물섬 탐험대 -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와 연계한 액티비티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그림 5-21] 보물섬 리조트 조성사업 예시



❶ 북리 marina 조성

- 북리 일대는 수도권내 도서와의 크루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위치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포리 해변, 선미도 관광개발 등 주변의 해양관광 및 레저 여건이 우수하여 marina시설을 조성을 추진함
 - 과거 서포리에 추진되었던 marina 개발은 지역 거점형 marina를 개발하는 것으로 장래 중국과의 교류를 감안하여 국제 수준의 거점형 marina항을 개발하고 1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음
- 북리marina는 주변의 marina 항만(왕산·방아머리·제부·전곡 등)과 연계한 크루징 루트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상시계류 보다 소규모의 중간기항지 및 피난항의 기능을 부여함
 - 북리항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 레포츠형 marina 항만의 수준의 절반인 50척 규모로 조성하고 덕적도의 새로운 관광요소가 될 수 있도록 북리선착장과 보물섬 리조트와 연계함
- 또한 덕적도가 가지고 있는 바다역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서해지역의 marina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위치적 강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구축함
- 북리 marina는 덕적·자월 군도뿐만 아니라 서해지역의 marina 환승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로 이용함과 동시에 레저보트 이용, 임차크루징, 해양관광체험 등 민간 수익사업을 추진함

〈표 5-20〉 북리 marina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	· 덕적면 북리 선착장 일원
주요시설	· 시설면적 : 약 20,000㎡ · 개발규모 : 해상 30척, 육상 20척 · 해상시설 : 기본시설(외곽, 수역/계류시설) · 육상시설 - 기능시설 : 육상보관시설, 수리/역무시설, 주차장 등 - 서비스편의 : 해양공원, 전시장, 상업시설 등

[그림 5-22] 북리 요트marina 조성사업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95,000백만 원으로 보물섬 리조트 조성 사업에 75,000백만 원, 북리 마리나 조성사업에 20,000백만 원이 소요됨. 사업비는 개발규모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제외하였음
- 보물섬 리조트와 북리 마리나 조성비는 대상지 및 개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전라남도 무안군 왕산리 리조트 건립 사업〉 75,200백만 원, 〈덕적도 마리나항만(2015)〉 37,440백만 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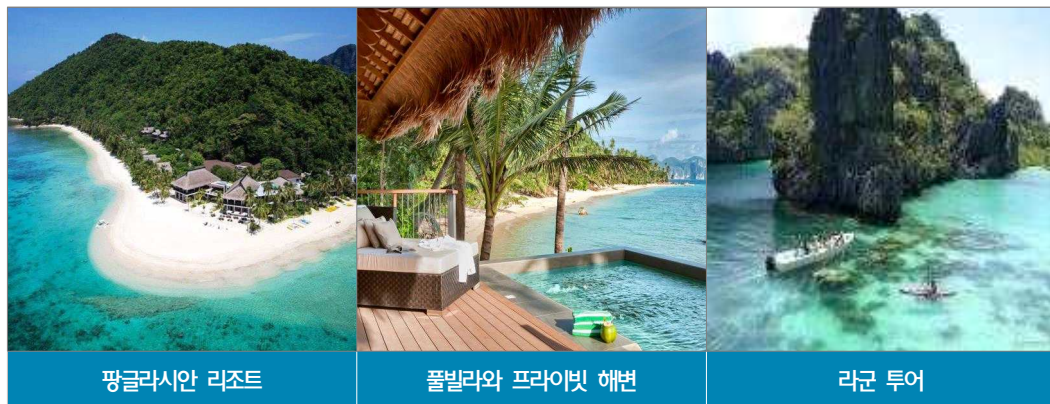
〈표 5-21〉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보물섬 리조트 조성	30,000	m ²	2.5	75,000
북리 마리나 조성	20,000	m ²	1	20,000
합계	-	-	-	95,000

사례 : 필리핀 팡글라시안 리조트

- 필리핀 팔라완 엘니도에 위치한 팡글라시안 리조트는 지속 가능한 럭셔리 관광의 모범사례로 '환경보호구역'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환경적 책임과 품격있는 휴양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풀빌라와 워터카티지, 인피니트 풀 등 다양한 숙박 및 편의시설과 레스토랑, 프라이빗 해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스노클링, 카약 등 친환경 해양활동을 지원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지침을 제시 하여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산호 복원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 및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팡글라시안 리조트

풀빌라와 프라이빗 해변

라군 투어

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대이작도 일원
사 업 비	· 12,090백만 원
사업기간	· 2028~2030년
사업주체	· 웅진군
세부사업	·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 웅진군의 e스포츠 아일랜드 육성사업 계획 보유

- 웅진군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스포츠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e스포츠 아일랜드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계획은 e스포츠 특화교육과정 운영, 중소규모 e스포츠 대회 및 이벤트 유치, 선수들의 훈련 및 체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위케이션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젊은계층 유입 도모

- 국내 위케이션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인천광역시 ‘인천 섬 위케이션’ 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감성으로 젊은 계층의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 e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편안한 휴식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며 대이작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위케이션 사업 추진이 가능함

[그림 5-23]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e스포츠 산업 및 선수 현황

- 우리나라의 e스포츠 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규모가 2,569억 원으로 조사되고 있음
 - 현재 e스포츠 게임단은 약 40개, 운영팀 수는 87개이며 등록된 프로선수는 2024년 11월 기준 총 361명이며 10~20대가 64.2%를 차지함
- 2024년 게임과학연구원에서 e스포츠 선수들의 스트레스 및 번아웃 실태보고를 통해 스트레스 요인을 발표하였으며 실행력, 과훈련, 대인관계, 신체적·심리적 고갈상태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조사됨
 - 시즌 중 휴식과 휴일 없이 진행되는 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신체, 심리 등의 건강문제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 섬지역 위케이션 추진현황

- 2023년 한국섬진흥원(KIDI)은 ‘섬 지역 위케이션 도입방안 연구’ 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위케이션 인프라 마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 지역 위케이션 도입을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함
- 섬 지역은 독특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일상과 다른 근무환경 제공이 가능하여 위케이션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섬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함
- 인천광역시는 무의도에 ‘포네 위케이션센터’ 를 운영중이며 최근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인천 체류형 관광상품 공모전’ 을 통해 신규 위케이션 상품을 개발하였음
 - 해당 상품은 ‘인천 섬 위케이션’ 으로 대이작도에서 위케이션으로 머물며 관광과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e스포츠 위케이션 인프라를 조성할 경우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그림 5-24] 섬 위케이션 현황 및 e스포츠 선수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 현황



다. 세부사업

☉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 e스포츠 시설은 종목의 경기, 연습, 관람 등을 위한 전문시설을 뜻하며 PC방, 경기장, 훈련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주경기장은 대회개최 중심이며 훈련센터 등은 작은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여 위케이션 기능과 결합한 훈련센터를 조성함
 - e스포츠 시설에 대해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는 위케이션 기능이 포함된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조망권이 확보되는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e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기능 외에 e스포츠 팬 및 일반인을 위한 기능을 도입함
 - e스포츠 선수(단)의 이용을 우선하여 운영하고 시설이용 및 예약 현황 등을 참조하여 일반 위케이션 방문객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훈련센터는 3층 규모로 조성하고 1층에 전시 및 홍보공간, 2층에 휴식 및 숙소, 위케이션 공간, 3층에 e스포츠 훈련공간으로 구성함. 또한 내부 시설은 퍼시스(데스크) 등 위케이션 공간 참여 경험에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모션데스크, 게이밍 의자 등 가구를 활용한 실내 공간을 구성함

<표 5-22>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 개요	· 위치 : 대이작도 일원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e스포츠 훈련센터 (연면적 4,050㎡)	· 1층 : 전시 및 홍보공간 - e스포츠 역사관, 게임단 홍보전시관, 굿즈 판매시설 등 · 2층 : 휴식 및 숙소, 위케이션 공간 - 원룸형 숙소, 체력단련시설, 위케이션 라운지 등 · 3층 : e스포츠 훈련공간 - 연습시설, 온라인 경기 진행시설, 방송송출 시설 등

[그림 5-25]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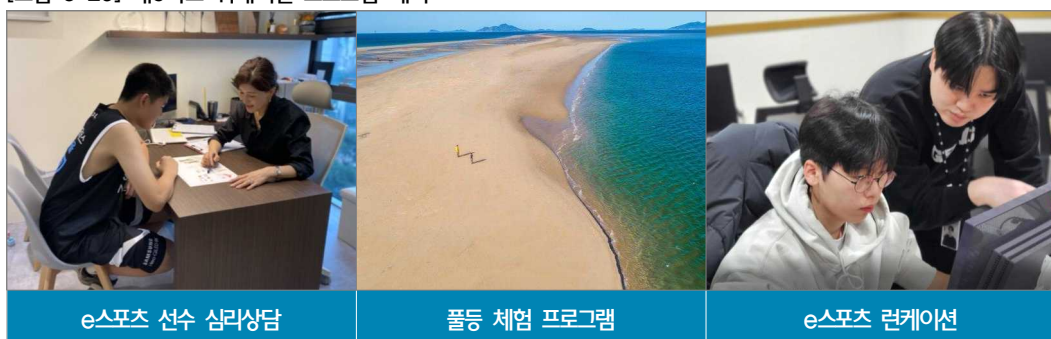
❶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를 이용하는 주타깃은 e스포츠 선수(단)이며 훈련과 체력단련 외에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 케어프로그램을 도입함
- e스포츠 시즌 중 선수(단)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인천 섬 위케이션’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 일반 위케이션 참여자와 더불어 e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임직원의 위케이션을 유도함
- 최근 위케이션에서 나아가 런케이션(Learning+Vacation)이 주목받고 있으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e스포츠를 즐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함
 - 2021년 기준 한국의 게임이용자는 3천만 명 수준으로 e스포츠 선수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프로선수에게 게임과 관련한 전략을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

<표 5-23>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e스포츠 선수 전문케어 프로그램	· 대상 : e스포츠 게임단 소속 프로선수 · 힐링산책 : 대이작도 해변(작은풀안해변, 큰풀안해변) 및 트레킹코스 산책 · 요가 및 명상 : 훈련센터 및 해변에서 전문가와 함께 요가 또는 명상수업 · 액티비티 : 배낚시, 자전거 하이킹, 수상활동(하절기) · 1대1 심리상담 :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멘탈케어 프로그램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 대상 : 관광객 및 위케이션 참여자 · 인천섬 위케이션 프로그램 연계 : 나만의 풀등섬 만들기, 바지락 캐기 등 · 갯벌체험 : 피조개, 대맛조개, 떡조개, 바지락 캐기 등 · 풀등체험 : 풀등에 상륙하여 자연 탐방(30분 체류) · 힐링산책 : 대이작도 해변(작은풀안해변, 큰풀안해변) 및 트레킹코스 산책
대e작도 런케이션 프로그램	· 대상 : e스포츠 팬 및 게임 유저 · e스포츠 게임대회 : 위케이션 참여자와 e스포츠 선수가 팀을 구성하여 리그전 및 토너먼트 진행 · 게임전략 배우기 : e스포츠 프로선수에게 배우는 게임과외

[그림 5-26]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2,090백만 원으로 H/W사업으로 위케이션형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에 12,000백만 원, S/W사업으로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90백만 원이 투입되며 토지매입비는 제외함
- 해양힐링센터 사업비는 <조달청 유사사업 공사비(문화체육복합센터 등)>, <LH의 조성비 추정자료(2024)>를 반영함.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는 타지역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반영함
 - <강원 위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용역(2024)> 90백만 원

<표 5-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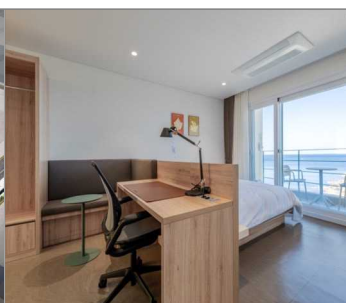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e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3	층	4,000	12,000
대e작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1	식	90	90
합계	-	-	-	12,090

사례 : e스포츠센터 및 위케이션

- 예천군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심판 연수, 아마추어 아카데미, e스포츠 체험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
- 강원 위케이션 사업은 서핑, 요트체험, 바다낚시 등 해양 액티비티와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맨그로브 고성은 '워크 앤 스테이' 공간으로 러닝, 요가,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횡성군은 스포츠에 특화된 런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으며 1박 2일 동안 전문 강사에게 수영과 볼링 등을 배우고 지역 관광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예천군 e스포츠센터



맨그로브 고성



스포츠 런케이션(횡성군)

2.5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내 무인도서
사 업 비	· 2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30년
사업주체	· 웅진군, 민간(주민)
세부사업	·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추진체계 · 무인도서 관광투어 상품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무인도서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

- 덕적 · 자월군도는 무인도서가 다수 분포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덕적군도 내 가도, 각홀도, 선갑도 등은 인위적인 개발이 거의 없고 원형에 가까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 높음
- 무인도들은 덕적도(본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본섬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❷ 안정적인 무인도서 관광상품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 대부분의 무인도서들은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어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어렵고 상품 개발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무인도서 관광상품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무인도서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품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코스를 점진적으로 확장함

[그림 5-27]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덕적도에서 굴업도를 지나면 가도를 접할 수 있고 항로를 따라 내려가면 각홀도, 선갑도를 순서대로 접할 수 있음. 이 섬들은 동선상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 하나의 연계 코스로 운영하기 용이하며 섬 간 이동거리가 짧아 지속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음
- 무인도서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도는 조용하고 외딴 섬으로 모래사장, 갯벌, 암반이 어우러진 해안선이 특징임. 각홀도는 기암괴석 절벽과 해식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바다낚시 명소로 알려짐. 한편 선갑도는 ‘오징어 게임’ 촬영지로 알려져 있고 앞서 두 섬보다 규모가 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
- 이 섬들을 관광상품화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섬 간 연계성이 뛰어나고 덕적도에서 출발하는 소규모 선박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관광객 체류 특성에 맞춘 투어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며 코스 확장성과 상품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5-28]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대상지 현황



다. 세부사업

🔴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추진체계

- 무인도서 관광상품화는 단계별(1~3단계) 확장 전략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함. 또한 관광상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심의 지역주민 주도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단체 및 청년예술가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상품의 차별성과 계절별 특색을 강화함
 - 1단계는 덕적군도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핵심코스 개발·운영, 2단계는 자월군도 내 무인도서로 범위 확대, 3단계는 나머지 무인도서를 포함한 무인도서 관광투어 코스를 완성하여 당일형/1박2일형/장기 체류형 등 다양한 상품을 구성함
-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MZ세대 감성을 반영한 프라이빗·고급형 선박 등 해상 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한정판 투어, 테마형 크루즈 등 프리미엄 상품을 운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과 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함

❶ 무인도서 관광투어 상품 개발

- 덕적군도 내 무인도서인 가도, 각홀도, 선갑도를 대상으로 각 섬의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함. 덕적도 진리항에서 출발하는 소규모 선박을 운행하여 당일형 테마투어를 개발하고 도서별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탐방·휴양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이동의 지루함을 줄이고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체험을 제공함
- 아울러 무인도서의 희소성과 한정성을 부각하기 위해 하루 입도 인원을 제한하는 프라이빗 예약제 투어를 핵심 운영방식으로 도입함. 이를 통해 한정된 인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섬 관광을 구현하고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만족감을 제공함
 - 맞춤형 전문 가이드, 프리미엄 서비스, 전용 해상교통수단을 결합하여 기존 해양관광과는 차별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킴
- 당일형 테마투어와 프라이빗 예약제 투어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8시까지 제공되는 투어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덕적도에서 출항하는 배편이 없으므로 덕적도 내 숙박 시설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5-25> 무인도서 관광투어 상품 개발 운영계획(안)

구분	상품 내용
당일형 테마투어	· 상품명 : “섬섬놀자, 덕자 호핑투어” · 개요 : 덕적군도 무인도서를 하루 동안 둘러보는 연계형 해양투어 · 코스 : 덕적도(진리항) 출발 → 가도(해변 산책, 갯벌 체험) → 각홀도(기암괴석 절경 관람, 바다낚시 체험) → 선갑도(트레킹, 생태탐방) → 덕적도 복귀 · 특징 : 관광어선 운용(어선 개조/최대 20명 승선), 섬별 약 1시간 체류하고 이동(포토타임 제공), 지역특산물 도시락 또는 특제 선상식 제공
프라이빗 예약제 투어	· 상품명 : “럭셔리 덕자 아일랜드 투어” · 개요 : 입도인원을 제한(1일 1팀, 최대 12명)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프리미엄 투어 · 코스 : 덕적도(진리항) 출발 → 가도(프라이빗 해변 체험) → 각홀도(전용 포인트 낚시, 드론 촬영) → 선갑도(선상파티 및 다이닝) → 덕적도 복귀 · 특징 : 고객 맞춤형 일정·체험선택 가능, 전용 선박 라운지, 프리미엄 식음서비스, 기념 굿즈 제공, 인스타그램머블 포인트 방문(MZ세대 선호 콘텐츠 강화)

[그림 5-29] 무인도서 관광투어 상품 개발 이미지



라. 사업추진방안

- 무인도서 테마상품 운영시 선박 개조 및 매입비가 발생하는데 매입비는 선박의 크기 및 외형, 사양 등에 따라 비용 편차가 커 비용 산정이 어려움. 이에 선박 개조비, 투어상품 개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00백만 원으로 책정함
 - 사업 초기 주민 어선(3톤급)을 일부 개조하여 운영하고 추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프라이빗 예약제 투어에 활용되는 소형선박 매입을 검토함
- 선박 개조비는 관련 설치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투어상품 개발비는 타지역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투나잇 통영! 야간관광 여행상품 개발·운영(2023)> 82백만 원, <인천~서울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2025)> 80백만 원 등

<표 5-26> 무인도서 상품화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선박(어선) 개조비	2	개	50	100
투어상품 개발비(용역)	1	식	100	100
합계	-	-	-	200

사례 : 세부&보라카이 호핑투어

- 호핑투어는 배를 타고 바다 위 여러 포인트(주로 섬)를 이동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투어로 세부, 보라카이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명함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균일하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섬을 이동하면서 체험 후 다시 항구로 복귀함. 주요 체험으로 보트파티, 스노클링체험, 섬에서 현지식 체험, 포토타임, 해양생물 관찰, 일몰 감상 등이 있음
- 동남아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체로 호핑투어를 체험하며 별도의 일정계획 없이 하루 동안 현지 자연과 문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음



3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3.1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도 서포리 일원
사 업 비	· 1,477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28년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천주교 인천교구(협업)
세부사업	· 서포리 마을 일원 테마화사업 · 진리공소 주변 개선사업 및 명소화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덕적도의 고유 스토리자원으로서의 최분도 신부

- 덕적도가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유대감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덕적도와 관련된 인물 중에 현재까지 관련 시설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1966년 4월 덕적도 천주교 본당으로 부임하였던 최분도 신부가 있음

❷ 기존 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 현재 옹진군은 덕적면 서포리 255 일원을 중심으로 (구)유베드로병원을 활용하여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사업(5,900백만 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병원 근처 천주교 공동묘지에 최분도 신부의 묘소가 있으며 덕적면 진리에는 진리 공소 등이 있어 이를 함께 연계하여 천주교 성지(聖地)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그림 5-30]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최분도 신부(Father Benedict A. Zweber)는 미국 메리놀외방선교회 사제로 1962년 인천교구에 부임하여 1966년 덕적도 성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하였고 ‘인천의 슈바이처’ 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덕적도에서 1976년까지 일명 〈덕적도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바 있음
 - 1962년 연평도 주임이 인천과의 첫 인연을 맺었으며 1990년 미국으로 돌아가 2001년 뉴욕 요양원에서 선종하였으며 선종 20주기에 추모미사가 봉헌되면서 현재의 최분도 신부 묘소가 마련되었음
- 최분도 신부는 단순히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덕적 지역주민과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하에 〈덕적도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 소재로 남아 있음
 - ‘인천의 슈바이처’ 가 가장 유명한 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덕적도내 최초 전깃불 도입, 상수도 설치, 해태양식 최초 성공 등의 업적이 현재의 덕적도의 삶에 그대로 남아 있음
- 덕적도 성당, 진리 공소 등과 더불어 최분도 신부묘역, 유베드로 병원 등이 시설 형태로 남아 있으며 관련한 다양한 사진 자료 등도 남아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5-27> 최분도 신부 관련 스토리자원(요약)

구분	주요 내용
1966.4	· 덕적도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덕적도 본당에 부임
1967.4	· 유베드로병원 신축 개원(60병상의 병원) · 연평균 외래진료 12천 명으로 서해도서 주민들의 생명을 구호하는데 기여 · 복리(쑥개) 콜레라 대처, 결핵환자 돌봄 등으로 서해안의 슈바이처로 불림
1967	· 덕적도내 발전소 설치를 통해 전깃불 도입
1968	· 수원지 조성 및 상수도 설치
1969	· 농경지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 지속 추진과 해태양식 최초 성공
1971	· 여객선 선착장 공사 및 진출입 도로 조성
-	· 덕적도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 - 연극공연, 스포츠 행사, 어린이 돌봄 유치원, 야학 운영, 중국인 양로원 운영 등

[그림 5-31] 최분도 신부 콘텐츠 이미지



다. 세부사업

❶ 서포리 마을 일원 테마화 사업

- 덕적도에는 덕적도 성당, 유베드로 병원뿐만 아니라 서포2리 공소, 소야공소, 복리공소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소 등은 매각되면서 지역유산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옛 유베드로 병원 건물을 천주교 역사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전국 143번째 천주교 성지로 변화·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서포리 일원에 덕적 주민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쓴 최분도 신부님을 기리는 차원에서 마을 자체를 테마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향후 천주교 신자를 중심으로 한 방문객을 유인함과 동시에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킴

〈표 5-28〉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위 치 : 덕적면 소포리 255일원 · 소유자 :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규 모 : 병원 1동, 건평 360.33㎡
목적	· 최분도 신부의 업적, 덕적도의 역사·문화·종교 등 생활사 전반 전시
추진내용	· 덕적도 성당 내에 위치한 (구)유베드로병원을 활용하여 천주교 역사 기념관 조성 · 사업비 : 5,900백만 원(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준)

[그림 5-32] 서포리마을 관련 자원



- 기존 웅진군 사업과 연계하여 덕적 성당, 유베드로 병원, 최분도 신부 공덕비에 이르는 마을을 천주교 성지화를 위한 테마화 사업으로 추진함. 지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마을개선 사업형태로 추진함과 동시에 천주교 테마를 활용한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 현재 마을 둘레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십자가의 길”을 테마로 한 14개(처) 공간에 대한 관련 조형물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천주교인이 찾는 종교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함. 또한 주변 가옥(천주교인 중심) 등을 대상으로 천주교를 상징하는 오브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 전체가 테마화될 수 있도록 함

[그림 5-33] 천주교 콘텐츠 오브제 이미지



진리공소 주변 개선사업

- 진리공소는 다른 덕적도의 공소처럼 향후 철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요구됨. 우선적으로 진리공소 외관 채색 및 주변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공소 앞 공터에는 천주교를 상징하는 장미를 테마로 한 장미정원 조성(250㎡)과 포토포인트 기능 및 휴식할 수 있도록 gazebo(가제보)를 소규모로 조성함
- 또한 덕적성당과 함께 성지화 사업을 위하여 진리공소에 최분도 신부님을 형상화한 동상을 조성하여 천주교인의 방문을 독려하도록 하고 최분도 신부님을 알고 있는 덕적도 어르신들의 아이때 모습을 최분도 신부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구현하여 덕적도의 대표적인 지역 콘텐츠로의 정당성을 확립하도록 함

[그림 5-34] 진리공소 주변 개선사업 이미지



라. 사업추진방안

- 서포리 성지테마화 사업의 경우 기존 웅진군의 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마을 주변 개선사업과 함께 천주교 방문객을 위한 ‘십자가의 길’ 조성(14처 조형물), 마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오브제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함.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211백만 원으로 책정함

- 진리공소의 경우 주변경관 개선 및 공소건물의 채색사업이 요구되며 일반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도록 장미정원을 조성함. 또한 최분도 신부 동상을 조성하여 덕적 성당과 연계하여 천주교 성지로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하며 총 266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함

<표 5-29> 최분도 신부마을 조성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서포리 마을 개선	1	식	1,000	1,000
십자가의 길 조성	14	공간(조형물)	15	210
마을주택 오브제 조성	50	개	20천 원	1
진리공소 채색 및 개선	1	식	120	120
장미정원	250	m ²	105천 원	26
가제보	1	식	20	20
최분도신부 동상	1	개	100	100
합계	-	-	-	1,477

사례 :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

-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자원화된 천주교 성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성당과 순교성지를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순교성지는 종교관광의 일환으로 천주교인의 지속적 방문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 충남 서산해미 순교성지, 부산 오륜대 순교성지, 인천 강화갑곶 순교성지가 대표적임
- 최근 안성시는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2021)>, <안성시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2024)>을 통해 지역 호수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면서 미리내성지와 이웃하고 있는 미산호수를 ‘섬과 종교’의 호수로 개발하는 계획이 마련되었음. 현재 솔피길 약 1.56km 구간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작은 호수성당 설치, 십자가의 길 등을 조성하여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호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포토포인트 및 감성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신안군 12사도 예배당

서산 해미순교성지 상징조형물

안성 미리내성지(미산호수)

3.2 썸인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소야도 일원(때뿌루 해수욕장 등)
사 업 비	· 1,5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28년
사업주체	· 웅진군
세부사업	· 이색 경관연출사업 ·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존 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덕적도 관광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야도의 변화 필요

- 덕적소야교 개통 이후 소야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향후 덕적도 관광활성화에 따라 관광객 유입 잠재력이 높으나 현재 인지도 높은 관광자원은 미흡함
-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미지조사 결과 소야도와 관련된 노출 자원은 <카페 아일랜드 소야> 등이 있으며 카페와 관련된 감성적 분위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을 통한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함
 -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죽노골 해변, 은빛 모래사장 및 넓은 잔디 등이 있어 캠핑과 야영을 즐길 수 있는 때뿌루 해변 등이 대표적인 자원임

❷ 젊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전략적 개발

- 덕적소야교 개통으로 인한 소야리항의 비활성화와 관광객의 덕적도 방문으로 인하여 소야도의 외지인 방문은 트레킹을 즐기는 방문객이 대부분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5성급 캠핑 성지'로 부르고 있음
- 트레킹 외에 때뿌루 해변과 같은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테마나 관련 인프라, 편의시설 등은 미흡함. 이에 따라 소야도가 가진 환경과 부합하는 이색적 분위기 연출사업과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관광행태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젊은 계층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최근 양양의 서피비치, 통영의 선셋요트 등 젊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 장소와 관련된 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소야도를 감성적이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도서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음

[그림 5-35] 썸인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MZ세대의 해양관광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MZ세대 해양관광 트렌드 키워드로 다양성(DIVERSE)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추진이 제기되고 있음
 - DIVERSE는 디지털 기술결합형 생태계(D), 소규모 개별여행객(I), 가치소비형 해양관광(V), 활동적인 체험활동(E), 휴가·일·놀이의 결합(R),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S), 로컬 지향형(E)을 의미함
- 덕적소야교 연결로 소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나 덕적도와 연계되는 소야도의 관광인프라 부족에 따라 웅진군은 1998년 2월 폐교된 소야분교 부지에 폐교 문화재생 사업으로 ‘소야랑’ 조성을 추진 중임
 - 기존 폐교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을 통해 안내 및 전시공간, 체험공간, 공유주방,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사업을 추진함
- 때부루 해변은 700m가 넘는 백사장과 해당화 군락, 해변을 둘러싼 해송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며 최근 캠핑사이트와 해변관련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림 5-36] 해양관광 트렌드와 소야도 관광활성화 추진 현황



다. 세부사업

❶ 이색 경관연출 사업

- 소야리 마을 및 장구섬이, 간헛섬 등이 보이는 해변가 일대를 이색적인 테마경관 연출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함.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갯섬과 소야리 및 주변의 해변을 이용하여 소야도의 자연경관과 테마경관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함
- 마을경관 개선사업과 해변 일원에 카리브해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관연출사업을 실시하여 카리브해 및 남미 스타일의 느낌으로 차별화된 테마를 적용함
 - 보사노바(Bossa Nova), 레게(Reggae) 음악 등과 어울리는 이국적인 경관 및 풍경 연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색채, 음악과 악기, 엔틱형 스트리트 퍼니처, 이국적 경관연출을 위한 소품과 오브제를 활용함
- 젊은 계층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 액티비티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 및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식음료 브랜드 등과 협업을 통해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관광지로 조성함

<표 5-30> 이색 경관연출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해변테마 경관 조성 사업	· 공간 및 경관 연출 : 건축 및 조경 요소와 소품, 장식 등을 활용 - 컬러풀 비치 파라솔, 해먹존, 비치바, 아트월, 포토존, 빈백소파 등 설치 - 미디어파사드, 키키토치 조명 등 · 액티비티 및 이벤트 : 해변공간을 활용한 공연 및 이벤트 추진 - 해변 액티비티 : 음악공연, 비치요가, 패들보드, 카약 등 - 먹거리 : 타코, 세비체, 바비큐, 열대과일 등 푸드트럭 운영 - 협업 콘텐츠 : 식음료 브랜드 및 패션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운영
마을 경관 개선 사업	· 아트&경관 사업 추진 - 컬러마케팅(지붕, 외벽), 벽화, 그래피티, 경관조명, 거리 예술품 전시 등 · 테마 디자인 시설 설치 : 가로등, 안내시설 등 - 카리브해 연안의 도시들의 영감을 받은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등의 색상과 소재를 활용

[그림 5-37] 이색 경관연출 사업 예시



❶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캠핑존 사업

- 최근 몇 년간 국내 해수욕장은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기존 해수욕장의 활성화 방안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양양 서피비치, 강릉 나이트 비치, 명비치 등으로 특성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음
 - 해수욕객 이용객의 감소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 물품 대여 및 사용료, 호텔 수영장의 일반화, 여름철 해외여행 대중화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임
- 현재 때뿌루해변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나 위치 및 경관의 분위기가 관광자원으로 잠재력이 높아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이색적인 해변을 연출함
 - 해변공간과 캠핑공간에 보사노바 음악을 테마로 한 공간을 조성하고 빈백, 해먹, 스피커, 굿즈 등 감성 자극용 아이템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
- 이국적인 느낌의 해변으로 조성하여 젊은 계층이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타깃으로 관광 명소로의 발전을 도모함. 특히 보사노바를 메인 콘텐츠로 음악과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 관련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5-31>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 존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때뿌루 해변 테마화	해변공간	· 기본방향 : 편안함, 자연친화, 여유로움을 느끼는 공간 조성 - 보사노바존 : 해변 우드데크, 빈백, 해먹, 스피커 설치 - 시설요소 : 목재, 자연석 활용, 파스텔톤의 색상 및 간접조명 적용
	부대시설	· 기본방향 : 음악과 식음료를 즐기는 공간 조성 - 보사노바 카페&바 설치 : 커피, 칵테일, 굿즈 판매, 체험 등 - 오픈스테이지 조성 : 캠핑장과 연계
	이벤트 및 관광 프로그램	· 기본방향 : 음악과 서해 노을을 테마로 발굴 - 보사노바 음악&댄스회, 때뿌루 선셋 힐링캠프, 슈하스코 광장, 캠핑대회 등
캠핑존 개선 사업		· 캠핑장 시설 확장 및 개선 - 글램핑 존 조성 : 라탄, 원목, 패브릭 등 감성적 인테리어 반영 - 음악 테마 캠핑사이트 구성 : 보사노바 곡 테마 및 컨셉 부여 · 편의시설 개선

[그림 5-38]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 존 사업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500백만 원으로 해변테마 경관조성사업 300백만 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500백만 원,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존 사업 700백만 원 등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됨
 - 각 사업내 이벤트 및 관광 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이벤트의 종류와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이후에 이벤트 및 프로그램 내용이 확정되면 비용책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 해변테마 경관조성사업비는 해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유사사례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반영함
 - <왕산해수욕장 경관 특화사업> 1,600백만 원, <웅진군 섬마을경관개선사업>의 예산을 기준으로 500백만 원, <만리포 경관 개선 및 해변쉼터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반영함

<표 5-32>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해변테마 경관조성사업	1	식	500	300
마을경관 개선사업	1	식	500	500
이색적인 때뿌루 해변 및 캠핑존 사업	1	식	800	700
계	-	-	-	1,500

사례 : 태국 파타야 TuTu Beach

- 많은 해수욕장에서 차별화를 주기 위하여 Pink색 콘셉트 해변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태국 파타야의 투투비치(TuTu Beach)는 파타야 해변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 해변으로 알려져 있음
- 핑크색을 테마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간이며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 사이에 인스타그램 명소로 유명함



핑크 파라솔 및 빈백

핑크 음료 및 디저트

핑크 포토존

3.3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문갑도 문갑리 마을 일대
사 업 비	· 4,22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28년
사업주체	· 웅진군, 민간(주민)
세부사업	·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 ·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가. 필요성 및 목적

⊗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아름다운 마을 조성

- 덕적군도를 순환하는 여객항로는 일회 운항하여 덕적도를 제외한 섬을 방문할 경우 숙박이 불가피하나 문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2시간 체류가 가능함. 문갑도는 현재 순환 항로의 첫 번째 기항지이며 돌아오는 여객선은 문갑도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테마 발굴이 필요함
- 문갑도 마을은 섬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마을이 밀집된 형태로 해변에서 한눈에 들어 오는 마을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컬러마케팅 등의 경관계획 요소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마을 형성이 가능함

⊗ 마을경관을 기반으로 문갑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 덕적군도 내 마을 중 외형적·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건물 채색 등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문갑도가 보유한 관광자원, 특화자원, 축제 등에 컬러를 더해 마을이 지닌 특색을 부각 시키고 감성적이며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도록 함
-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체험부터 장시간 머무르며 몰입할 수 있는 체험까지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문갑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관광객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을 내 방치된 시설을 활용하여 문갑마을의 경관적 특색을 살리고 모험과 재미요소를 결합한 어드벤처형 체험시설로 새롭게 조성함

[그림 5-39]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 2018년 ‘풍경이 아름다운 섬’이라는 주제에 맞춰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낙후된 도서지역의 통합적인 색채경관 형성을 위해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 특화사업 3개소를 추진한 바 있음
 - 강화군 이강3리, 옹진군 덕적도 북1·2리, 중구 소무의도 3개 마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마을별 지붕색채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마을경관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섬마을의 풍경을 제공하였음
- 또한 옹진군은 행정안전부의 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문갑도는 잘사는 섬(농산물 공동재배단지 조성), 특별한 섬(섬마을 꽃길), 즐거운 섬(빙구나물 축제, 트레킹) 만들기를 테마로 3단계 승급에 도전하고 있어 컬러마케팅과 연계할 경우 기존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컬러마케팅 관련 사업은 여수, 신안 등 성공적인 선례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여수시는 관광객에게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웅벽과 비탈면 개선, 주택 지붕, 벽면 도색 등을 추진하여 컬러빌리지를 완성하였음
 - 2018년 완료된 컬러빌리지 사업은 여수 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SNS를 통해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을 유입되어 여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림 5-40] 문갑도 마을 현황



다. 세부사업

⊗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 2011년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관리의 미흡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현재는 마을 내 미관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임. 새롭게 추진되는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을 기존에 추진했던 마을경관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여 통일된 색채를 마을 전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문갑도 컬러를 발굴함
- 선착장에서 마을에 이르는 주요 동선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여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함
 - 컬러 적용 대상은 지붕, 돌담, 외벽, 방파제, 도로, 선착장 등 마을의 경관요소에 적용하며 대상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색채를 구분함

<표 5-33>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 선착장/방파제 : 코발트 블루(#0047AB) + 페일 블루(#CFE2F3) - 블루타일 벽화, 컬러 포토프레임 설치, 블루조명 · 도로 : 페일 블루 - 파도 및 물결 패턴 블루라인, 리듬감 있는 바닥 도장 · 주택 외벽/돌담 : 페일 블루 - 파란 벽화, 파도 또는 구름 일러스트 삽입 · 골목/계단길 : 코발트 블루 + 페일 블루 - 블루플랜드, 파란문, 도자기 소품, 스토리 타일 등 설치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 주민참여 지원 : 마을경관향상 공간대 형성, 계획에 적극 참여 유도 - 컬러디자인 캠페인 : 주택의 간판, 화분, 대문 등을 개성있게 꾸미기 - 블루 디데이 행사 : 하루동안 마을 전체의 블루 콘셉트 적용 · 마을 홍보 마케팅 : 마을 굿즈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인지도 제고 - 문갑마을 굿즈 개발 : 문갑마을을 상징하는 파란 수공예품, 머그컵, 우산 등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판매 - 마을 홍보영상 제작 : (가칭)문갑, 색을 입다/마을 색 변화 전·후를 기록하고 인물 중심의 스토리 영상 제작

[그림 5-41]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 예시



문갑도 컬러 적용 예시

신안 퍼플섬 마을 전경

어울림마을 굿즈

☉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 문갑마을 컬러마케팅을 기반으로 문갑도 여객선 운항 횟수를 고려하여 단기 및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병구나물축제에 대한 브랜딩 사업을 추진함
 - 1시간 이내 짧게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해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을 운영하고 문갑도에 1박 2일 체류를 희망하는 관광객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함. 특히 매년 4월 열리는 병구나물 축제에 대한 컬러브랜딩을 통해 축제의 차별성을 부여함
- 문갑마을에는 마을 특산물인 병구나물 채취를 위해 엄나무 농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편리한 작업을 위해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병구나물 채취는 4월 중 일주일만 가능하며 연중 대부분 기간 모노레일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즐길거리 확보를 위해 모노레일의 리뉴얼을 통한 탈거리 사업을 추진함
 - 마을의 공동체사업으로 추진된 500m 길이의 모노레일은 마을의 주요 뷰포인트에 위치하여 뒷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이색적인 경관 연출이 가능함
- 기존 모노레일 운행구간을 점검 및 개보수하고 속도와 소음 등의 문제가 있는 가솔린 엔진 기반의 농업용 모노레일을 '배터리형 견인식 모노레일' 로 교체를 추진함

〈표 5-34〉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체험 콘텐츠 개발	당일형 콘텐츠	· 블루 키친 클래스 : 블루 디저트 클래스, 해조류 푸드아트체험,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 등
	체류형 콘텐츠	· 마을농장체험 : 고구마 캐기, 해초 채취, 굴 따기 등 마을자원과 결합한 체험 · 블루게스트하우스 운영 :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감성형 숙소 체험, 마을 테마 색을 적용한 인테리어 · 깃대봉 블루리본 등산 챌린지 : 깃대봉을 등산하며 주요 스팟에 설치된 블루리본을 모두 모아 정상 도달
	컬러 브랜딩	· 병구나물 축제 컬러브랜딩 - 포스터/현수막, 포토존, 조형물, 부스 디자인, 스태프 복장 등 컬러 브랜딩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 모노레일 노선 개보수 · 모노레일 교체 : 배터리형 견인식 모노레일 설치

[그림 5-42]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시



카프리스 블루 키친 클래스

모로코 스타일사우엔 숙소

한라산 관광 모노레일

라. 사업추진방안

-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220백만 원으로 문갑마을 컬러 마케팅 사업 4,000백만 원, 체험 콘텐츠 개발 100백만 원,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사업 120백만 원으로 구성·계획됨
-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사업비와 체험 콘텐츠 개발 사업비는 타지역 유사사례 및 계획의 사업비를 반영함
 -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2023)〉 200백만 원, 〈신안 반월·박지도 사업〉 200백만 원을 반영함
-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사업비는 타지역 유사사례의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 〈문경 가은 모노레일 유지보수 관리 용역(2020)〉 19백만 원, 〈한라산 국립공원 모노레일 교체사업(2016)〉 250백만 원의 사업단가를 적용함

<표 5-35>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문갑마을 컬러마케팅	1	식	4,000	4,000
체험 콘텐츠 개발	1	식	100	200
하늘길 문갑 프로젝트 사업	운행구간 점검 및 개보수 : 1	식	20	20
	모노레일 교체 : 2	대	50	100
합계	-	-	-	4,220

사례 : 컬러마케팅 적용 관광지

- 전세계적으로 컬러마케팅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안군의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됨
- 해외의 유명 컬러 마케팅 적용사례는 '파란진주'로 불리는 모로코의 셰프샤우엔과 베네치아의 부라노섬이 대표적이며 단순히 예쁜 색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역사, 문화, 예술 등과 연계한 매력 있는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신안 퍼플섬

모로코 셰프샤우엔(마을)

이태리 부라노섬

3.4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문갑도 한월리 해변 일원
사 업 비	· 24,0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8~2030년
사업주체	· 웅진군, 민간(주민)
세부사업	· 어촌전통마을 조성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문갑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자원 조성 필요

- 문갑도는 봄철 병구나물을 중심으로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자원을 발굴·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문갑도에는 문갑 해수욕장, 한월리 해수욕장 2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나 전반적인 관광수용태세 미흡으로 주변 도서와 비교하여 관광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❷ 화려했던 과거를 가진 문갑도

- 1960년대 섬 근해에서 새우와 민어, 조기가 많이 잡히는 풍요로운 섬이었고 주변 선갑도, 문갑도 등과 함께 파시가 열렸는데 특히 새우파시가 성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현재도 한월리 해변지역 근처에 새우젓 웅기 가마터가 남아 있어 이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주변 도서와 비교하여 물이 풍부하여 ‘물갑도’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섬 주변으로 낚시터가 많아 외지인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그림 5-43]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대표적인 농어촌 관련 관광사업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이중 어촌에서만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음. 전국에 약 100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용진군은 2개가 지정되어 있음
 - 용진군은 선재도, 영흥도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인천광역시에는 근무리어촌체험휴양마을, 세어도어촌체험휴양마을,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있음
- 그러나 대부분 농어촌 체험시설과 더불어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업 중심으로 어촌문화를 콘텐츠로 한 관광자원의 기능보다는 나들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 숙박 영업 등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관광자원으로서 또한 옛어촌 문화의 지역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적인 어촌테마 마을 성격의 관광공간 및 자원화 사업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문갑도는 예전 파시문화의 기록 등과 새우젓 독 저장고(항고), 1958년 문을 닫은 웅기가마터 등을 보존 및 활용하고 현재의 해수욕장 활성화, 병구나물 등 산나물을 활용한 어촌전통마을을 재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5-44] 문갑도 콘텐츠 이미지



옛 파시 모습

문갑도 웅기

웅기 가마터

다. 세부사업

⊗ 어촌전통마을 조성

- 문갑도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새우파시를 테마로 한 어촌전통마을을 조성하도록 함. 본 사업은 근대시대 어촌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함. 조성 위치는 웅기가마터가 위치한 한월리 해변 주변을 활용하여 문갑도항에서 접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음
- 근대의 어촌전통마을을 재현한 시설물 및 인테리어를 조성하여 과거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파시 콘텐츠를 활용하여 파시와 객주촌을 재현한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을 팔고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표 5-36> 어촌전통마을 조성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항구공간	· 문갑파시 체험관(실내) · 파시 해변문화공원 조성
생활문화공간	· 근대시대 어촌마을을 재현한 마을, 주막거리, 상가 조성 · 객주집, 여각 등의 형태를 가진 숙박시설 조성
체험공간	· 웅기 가마터 복원 및 가마터까지의 산책로 조성 · 바지선 등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식음시설 조성

[그림 5-45] 어촌전통마을 이미지



어촌전통 프로그램 기획

- 본 사업은 문갑도 파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근대 어촌마을 재현을 목표로 포구 및 객주촌 등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촌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재현하여 각 공간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 산악자원과의 연계, 문갑마을(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블루빌리지) 등을 연계하여 문갑도 전역이 관광으로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함

<표 5-37> 어촌전통마을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어촌마을 하루스테이	· 체험공간 및 생활문화공간 활용(숙박시설 활용) · 근대시대 어촌마을 모습을 재현하여 파시문화 체험
파시축제	· 실제 새우가 많이 잡히는 계절에 새우파시축제 개최 · 새우와 관련된 음식메뉴 개발 및 판매 · 축제시 젓갈시장 운영
연계탐방코스	· 가마터 및 주변 산지를 이용한 산책코스 개발 · 문갑마을(블루빌리지)과 연계한 포토포인트 관광코스 활용
새우콘텐츠 활용	· ‘새우깡(농심)’ 과 협업한 팝업스토어 조성 · 새우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 추진과 오브제(결과물)의 적극적 활용

라. 사업추진방안

- 문갑도 파시 어촌전통마을 조성사업은 어촌전통마을 조성과 어촌전통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4,000백만 원으로 책정함. 토지매입비는 제외함
- 어촌전통마을은 체험관 및 상가, 숙박시설 등의 건설이 요구되며 공원 및 산책로, 전통 가옥 등의 시설을 조성함. 타지역 사례인 <장계향 문화체험 교육원 조성사업(2011)>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총 23,800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함
- 어촌전통 프로그램은 어촌전통마을의 시설을 활용하여 새우파시를 테마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 유사사례인 한국관광공사의 <평화빌리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2010)>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총 2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함

<표 5-38> 문갑도 파시 어촌전통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문갑 파시 체험관	1	개소	3,800	3,800
파시 해변문화공원 조성	1	개소	2,000	2,000
어촌 테마마을 조성	70,000	m ²	15,000	15,000
어촌마을 체험공간 조성	1	식	3,000	3,000
어촌전통 프로그램	1	식	200	200
합계	-	-	-	24,000

사례 : 농어촌 관광마을

- 국내 농어촌관련 마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전시관 등 실내시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야외에 실제 농어촌을 재현한 관광지는 많지 않음. 역사와 민속 그리고 생태계가 어우러진 농촌형 관광마을로는 순천 낙안읍성이 대표적으로 현재 88세대 175명의 지역민이 거주하면서 한해 100만 명이 찾고 있으며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 이와 반대로 야외 어촌전통마을은 전국적으로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촬영지로 이용되는 세트장 개념으로 바닷가에 조성된 경우가 있음(완도 청해진 세트장), 그 외에 제주민속촌이 비교적 제주의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어촌테마 중심의 테마마을로는 보기 어려움



청해포구 촬영장(완도군)



낙안읍성민속마을(순천시)



제주민속촌(서귀포시)

3.5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소이작도 휘청골 일원
사 업 비	· 5,5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29년
사업주체	· 웅진군
세부사업	·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 · 테마파크 진입로 개선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상징성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소이작도는 과거 해적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적도(夷賊島)로 불리다 이작도(伊作島)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해적이 거주했던 마을 형태와 흔적이 남아 있음. 이러한 해적마을에 재미와 체험 요소 등을 추가하여 해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섬 고유 테마 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갯티길 일부 구간을 해적과 앵무새를 컨셉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해적 마을 관광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사업추진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소이작도는 천혜의 해안 절경과 섬 고유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트레킹 중심의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관광형태를 보완하는 관광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섬지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추진하고 소이작도에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자연자원에 한정되어 관광객 활동의 선택지가 제한적임

❷ 소이작도 역사적 배경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 해적마을 일대는 미개발되어 방치된 상태로 소이작도의 고유자원 및 해적마을과 관련한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테마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음
 - 해적이 은신처로 삼았다는 전설, 보물 동굴에 얹힌 이야기, 은밀한 해안지형 등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테마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자산임
- 주민이 운영 주체가 되어 해적극 공연, 먹거리 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 기반의 로컬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관광경쟁력을 확보함

[그림 5-46]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는 ‘Global Top 10 City INCHEON’ 을 구현하기 위해 6대 추진전략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실천과제 중 ‘보물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친수도시 조성’ 을 통해 덕적·자월군도 레저스포츠 및 관광 거점 섬 개발사업을 제시하였음
- 덕적·자월군도와 서해5도를 포함하여 섬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이며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신규 관광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주섬주섬 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덕적·소야도)자전거 대회, (자월도)붉은달 페스티벌 등을 계획중임
- 인천관광공사는 2019년 소이작도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해적마을에 대한 사업을 반영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섬 특성화 사업을 통해 소이작도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해적마을 사업은 제외됨. 섬 특성화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적마을에 대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추진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4단계 소이작도 섬 특성화 사업은 섬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소득 사업 발굴을 통해 방문객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은 181% 성장을 달성함

[그림 5-47] 섬 테마 관광 활성화 및 섬 특성화 계획 추진 현황



다. 세부사업

⊗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

-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적마을이 위치한 지역의 유희공간 일대를 해적과 연관된 스토리를 활용한 테마빌리지로 조성함. 실제 조선시대 마을의 구조를 활용하여 해적 마을 공간을 조성하고 테마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여 해적섬의 이미지를 연출함
- 테마파크는 약 15,500㎡의 부지면적을 활용하여 공간별 도입 기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다른 테마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섬 전체를 거대한 이야기 무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시설을 도입함
 - 4개의 구역은 스토리 기반의 테마파크 동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해적마을의 이야기가 확장 되도록 하고 전시·체험·놀이·공연 등을 결합한 몰입형 콘텐츠를 개발함
- 소이작도의 해안절경, 동물, 숲, 해변 등 자연 요소 자체를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여 모험·체험·휴식이 결합된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낮에는 탐험과 체험중심으로 밤에는 공연·축제·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해 24시간 체험 가능한 관광지로 조성함

〈표 5-39〉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A구역〉 해적 촬영존	구역면적	· 부지면적 : 7,000㎡
	도입기능	· 도입 및 교류공간
	도입시설 및 콘텐츠	· 해적입도게이트 : 마을입구/해안가에 설치, 포토존 겸 입장 인증 장소 활용 · 해적촌 광장 : 주민 참여형 미니 연극 공연(해적단, 유령선 테마 등) · 먹거리존&굿즈샵 : 해적 카레, 보물꼬치, 해적 빵, 해적주화, 배지 등 판매
〈B구역〉 해적마을존	구역 면적	· 부지면적 : 2,500㎡
	도입기능	· 역사 및 놀이공간
	도입시설 및 콘텐츠	· 해적마을 복원 : 목조건물, 초가집 등 주거시설 복원(민속촌 참고) · 해적스토리관 : 소이작도 해적 전설 소개, 조선시대 해양 역사 전시 · 해적체험 : 해적의상 체험, 포토존 조성, 보물찾기 미션놀이 등
〈C구역〉 보물미션존	구역 면적	· 부지면적 : 1,500㎡
	도입기능	· 놀이 및 탐험 공간
	도입시설 및 콘텐츠	· 동굴탐험 : 해식동굴 속 보물탐험 콘텐츠 제공 · 해적훈련소 : 해적 밧줄던지기, 해적 깃발 그리기 등 체험
〈D구역〉 해적캠핑존	구역 면적	· 부지면적 : 4,500㎡
	도입기능	· 체류 및 휴식공간
	도입시설 및 콘텐츠	· 야외캠핑 체험 : 해적텐트, 나무침상형 숙영체험(여름철 제한) · 야간조명 연출 : 랜턴, 조명망루 설치로 해적야영 분위기 조성

[그림 5-48]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시



테마파크 해상 진입로 조성

- 현재 해적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도로 이동 후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길을 타고 진입하여야 함. 임도는 비포장 되어 일반 승용차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 이동이 불편함
 - 해적마을 입구에서 테마파크 조성 대상지까지의 구간은 급격한 경사지로 관광객이 도보로 이동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새로운 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 임도를 이용한 진입로의 대안으로 해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작 마을의 소이작도 선착장에서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해변까지 레저보트 또는 모터보트 사용시 5~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해상으로 진입 시 소이작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어선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상으로 진입할 경우 테마파크 조성지역의 수심이 얕아 접안이 어려워 부잔교 및 도교를 설치하여 테마파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대상지 앞바다의 수심(3~6m)과 간조·만조시의 해안선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잔교는 길이 30m, 폭 5m, 도교는 길이 15m, 폭 2m 규모의 시설을 설치함

라. 사업추진방안

-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500백만 원으로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300백만 원, 테마파크 해상 진입로 조성사업에 200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제외함
-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는 공간조성, 체험형 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 내용과 규모를 고려하여 타지역 유사사례인 <대구광역시 남구 빨래터공원 일대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2,750백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함

- 테마파크 해상 진입로 조성사업은 해안의 만조와 간조에 따른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고 타지역 유사사례인 <홍성군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어사항(2025)>의 218백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함

<표 5-40>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해적섬 스토리 테마파크 조성	15,500	m ²	342천 원	5,300
테마파크 해상 진입로 조성	부잔교(L=30m, B=5.0m) 도교(L=10m, B=2.0m)	식	200	200
계	-	-	-	5,500

사례 : 몰타 뽀빠이 마을

- 몰타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마을로 영화세트장을 관광지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 뮤지컬 영화 ‘뽀빠이(Popeye)’ 를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이며 촬영 이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테마파크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영화에 나온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는 등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내부는 뽀빠이 만화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여 집 · 선물집 등 이색적인 건물이 위치하여 포토포인트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물찾기, 해적체험, 미니골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등 특정 시즌에 맞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또한 바다와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어 보트투어, 바다수용장 등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인 스토리 기반의 체험형 테마파크로 뽀빠이 캐릭터와 영화세트를 활용한 스토리 자원의 관광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체험 중심의 콘텐츠 제공,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재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마을 내부

액터 양성(지역주민)

보트투어 체험

3.6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승봉도 신항정 및 목섬 일원
사 업 비	· 1,4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7~2029년
사업주체	· 웅진군
세부사업	·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인천광역시 웅진군의 전략적 사업의 단계적 추진

- 현재 인천광역시 및 웅진군은 섬을 대상으로 한 ‘정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대표적인 도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정원 만들기와 관련하여 대이작도 풀등 자원을 테마로 한 생태정원 사업 등이 계획되었으며 자월도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국사봉을 중심으로 ‘힐링꽃섬 지방정원’ 사업이 추진되어 2025년 6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로 승인받음
- 섬이 가지고 있는 식생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원 조성계획 상 다음 단계의 섬 정원 사업계획이 요구됨

❷ 섬의 고유성·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정원형 관광콘텐츠 개발

- 승봉도 동쪽 끝에 위치한 신항정은 승봉도 관광의 필수코스로 정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우수함. 승봉도의 일몰명소 중 신항정은 일몰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명소이자 섬의 유래가 있는 고유자원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관광콘텐츠화가 가능한 자원으로 판단됨
- 승봉도는 파스텔색을 가진 다양한 야생화와 해안가 식생 특성이 있어 이를 테마로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함. 특히 신항정 오름길과 기존에 설치된 포토존, 부두치 해변으로 연결되는 해안데크 등 연계가 가능하여 걷고 보고 즐기는 정원형 관광지로 육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신항정에 오르는 트레킹 로드를 중심으로 부두치 해변과 신항정으로 연결되는 선형(線形)의 갤러리형 정원과 해변지역의 면형(面形) 정원을 조성하여 승봉도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함

[그림 5-49]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는 덕적·자월군도 내 마을 주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서지역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용진군은 2024년 승봉도 전역의 해안도로, 올레길, 등 약 5,000평 면적에 1만 개가 넘는 수국 화분을 심는 ‘수국의 섬 승봉도 만들기 사업’ 을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용진군은 ‘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 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승인받았으며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노력과 더불어 자월군도의 섬 정원화 추진 가능함
- 승봉도 동부에 위치한 해안 트레킹 코스는 부두치 해변에서 해안데크를 통해 쫓대바위까지 연결되며 기암괴석과 해안 절경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알려져 있음. 또한 신항정은 승봉도 관광의 필수코스로 정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우수하여 정원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경관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함

[그림 5-50] 인천·용진의 정원만들기 및 승봉도 해안 현황



다. 세부사업

⊗ 비상(飛上)의 정원 조성사업

- 신항정과 목섬을 중심으로 경관식물을 식재하고 주제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테마를 발굴하여 특화 공간을 조성함
 - 승봉리 81 일원 진입로, 촛대바위, 목섬까지 정원 조성 대상지로 설정하고 기존 승봉도의 식생을 활용한 정원을 조성함
- 승봉도(昇鳳島: 昇 - 오를 승/ 鳳 - 봉황)는 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봉황이 날아 오르는 형상의 길조의 섬이란 유래를 지니고 있음. 이에 봉황을 상징하는 희망, 비상, 회복, 생명력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섬 정원 테마로 활용하며 ‘비상의 정원 : 봉황이 깃든 섬’을 정원의 테마로 설정함
- 봉황을 이미지화한 테마에 따라 정원공간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명칭과 조경 등을 반영함
 - 1구역은 봉황의 등지를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고 신항정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함
 - 2구역은 트레킹 로드와 해변의 경사지를 활용하여 봉황을 상징하는 정원을 조성함
 - 3구역은 노을해변과 목섬을 중심으로 낙조를 테마로 장소성을 강화한 정원을 조성함

<표 5-41>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원테마 발굴	· ‘비상의 정원 : 봉황이 깃든 섬’을 테마로 지정 - 승봉도는 봉황이 날아오르는 형상의 길조의 섬이란 유래를 지님 - 봉황을 상징하는 희망, 비상, 회복 생명력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섬 정원 테마 활용
정원 공간계획	· 테마에 따른 정원공간구획 : 총 3개 구역 (정원면적 : 10,000㎡) · 1구역 : 봉황의 등지 - 봉황의 깃드는 등지를 형상화 한 생태 연못, 바위 정원 등 조성 · 2구역 : 비상의 꽃 언덕 -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수레국화, 황금코스모스 등 봉황을 상징하는 초화류 식재 · 3구역 : 목섬해안정원 - 해안 식생을 활용하고 노을 해변(낙조 포인트) 등으로 장소성 강화

[그림 5-51]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대상 식재요소



[그림 5-52]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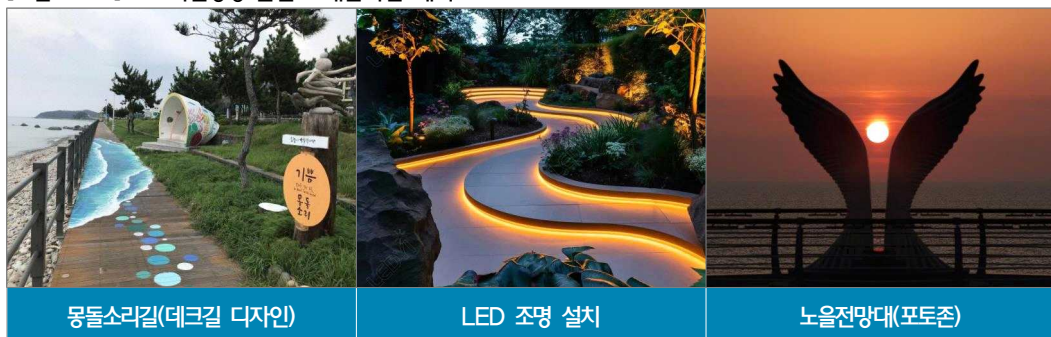
❶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및 인스타그램머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함
- 콘텐츠의 주요 테마를 봉황의 여정으로 설정하고 봉황의 깃들, 비상, 창공을 누비는 여정의 순서에 따라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개발함
 - 데크길에 날개 깃털 문양을 입혀 감각적 디자인을 연출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봉황의 비행궤적을 연출하여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함
- 기존 노후화된 포토존과 편의시설을 보수하여 테마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요 동선에 추가 설치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표 5-42>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봉황의 여정 스토리 개발	테마	· 봉황의 여정 : 봉황의 깃들, 비상, 창공을 누비는 여정
	사업구간	· 부두치해변~신항정 산책로 입구 : 약 600m 구간
	사업내용	· 데크길 디자인 반영 : 날개 깃털 문양 디자인 및 페인팅, 경관조명 · LED 조명 설치 : 봉황의 비행 궤적 연출
시설 개보수		· 포토존 설치(3개소), 쉼터(3개소) 및 벤치(10개) 보수

[그림 5-53]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사업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400백만 원으로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에 1,000백만 원,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사업에 400백만 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비는 제외함
- 비상의 정원 조성 사업비는 신항정과 목섬 일대의 현황과 트레킹 로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공원, 녹지)>의 기준을 적용함
-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사업은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타지역 유사사례인 <대전 대덕구 대청로 수변 데크로드 사업(2023)>의 430백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함

<표 5-43>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비상의 정원 조성	10,000	m ²	100천 원	1,000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1	식	400	400
합계	-	-	-	1,400

사례 : 신안군 1섬 1정원

-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최대의 플로피아 섬 가꾸기(섬 꽃 축제)를 목표로 76개 유인도 모두를 대상으로 1섬 1정원화를 추진 중임
- 수선화의 섬 선도, 라벤더의 섬 반월도와 박지도, 붉은 맨드라미의 섬 병풍도 등이 대표적이며 현재 정원 조성이 완료된 섬들은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5월 라벤더, 6월 버들마편조, 9월 아스타로 축제화로 2024년 연간 관광객 40만 명 유치
- 지역주민들이 직접 묘목을 생산·관리·식재하면서 재료비, 공사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누적 수익이 약 80억 원에 달함



신안군 퍼블릭 라벤더 축제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



선도 수선화 축제

4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4.1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자월도, 대이작도, 덕적도, 문갑도
사 업 비	· 2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30년
사업주체	· 웅진군, 민간(주민)
세부사업	·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리뉴얼 · 섬마을박물관 2차 조성지 제안

가. 필요성 및 목적

● 섬마을박물관 역할 재조명 및 체계적인 조성방안 필요

- 인천광역시에는 섬이 지닌 고유한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섬마을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시설은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섬 문화의 앵커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한편 섬마을박물관은 섬 문화를 수집·보존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군립 섬 박물관' 건립의 전초기지이자 기초 인프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과 도입시설 구성 등 체계적인 조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섬마을박물관 기능 강화 및 주민주도적 운영구조 마련

- 섬마을박물관은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되었으나 기조성된 박물관의 경우 전시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나머지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당초 조성 취지와 다른 상황으로 복합문화거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기능 강화가 필요함. 또한 섬 고유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콘텐츠 개발 시 각 섬의 문화·역사·환경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함. 이를 통해 시설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 섬 문화 보존·활용의 가치를 실현함

[그림 5-54]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섬마을박물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용진군청,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등 3개 기관에서 협력하여 매년 섬마을박물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부터 선정, 조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용진군청은 유희부지 확보와 시설 운영, 인천문화재단은 도서지역 조사 및 인천 섬 생활사 조사 보고서 발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전시회 개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섬마을박물관은 신시모도, 자월도에 각각 조성되어 있으며 영흥도에 신규 조성이 예정되어 있음. 현재 조성된 자월도의 섬마을 박물관의 경우 1층은 휴게 및 전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층은 현재 출입이 불가능함
- 또한 시설 이용객을 관찰한 결과 해당 시설이 휴게공간 이외에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며 주중에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시설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덕적·자월군도 내 모든 섬에 박물관을 조성하기보다는 수요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뉴얼이 요구됨. 추후 조성되는 박물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고려한 도입시설 구성과 함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그림 5-55]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현황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박물관 내부

전시공간

다. 세부사업

❶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리뉴얼

-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리뉴얼은 하드웨어 시설의 리뉴얼이 아니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추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시기능, 교육·체험기능, 휴게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박물관이 가진 단순 전시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함
- 건물 외형·규모는 유지하되 내부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상설·기획 전시관, 체험공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 휴게·전망공간 등 공간별 기능과 활용도를 극대화 함. 1층은 휴게·전시 및 안내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자 관광객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함. 카페테리아(관광안내소 겸용), 상설전시관, 로컬마켓, 키오스크 등이 있으며 섬 관광 정보 안내와 지역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함
- 2층은 교육·체험 기능을 중심으로 어촌마을 생활방식과 전통어업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전통체험공방, 푸드랩 등을 설치하여 전통공예, 섬 특산물 가공, 요리체험 등 다양한 상설·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옥상 및 외부공간은 내부공간의 제약을 보완하여 기획전시, 루프탑 시네마 등 도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수용하는 개방형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함

<표 5-44> 섬마을박물관 리뉴얼(안)

층별/기능		도입시설
1층	휴게·전시 및 안내	· 카페테리아 : 지역특산 음료 및 간식 판매, 관광안내소 기능 겸용 · 상설전시관 : 고유 역사·어업·생활 등 유물 전시, 디지털 해설 제공 · 로컬마켓(덕자마켓) : 주민이 만든 수공예품·특산품 판매, 팝업스토어 운영 · 키오스크 : 섬 내 관광지 정보, 여객선 시간표, 체험프로그램 예약 지원
2층	교육·체험	· 전통문화공방(덕자공방) : 매듭·어구·수공예 제작체험, 전통기술 시연 · 푸드랩 : 전통음식 및 섬 특산물을 활용 요리체험(섬식당 연계 레시피 개발) ※ 전통체험공방/푸드랩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체험상품은 기념품으로 지급
옥상/외부공간		· 기획전시 : 건축, 어업, 제례, 설화 등 섬 생활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개최

[그림 5-56] 섬마을박물관 도입시설 이미지



로컬마켓(덕자마켓)

전통문화공방

옥상공간(루프탑 문화공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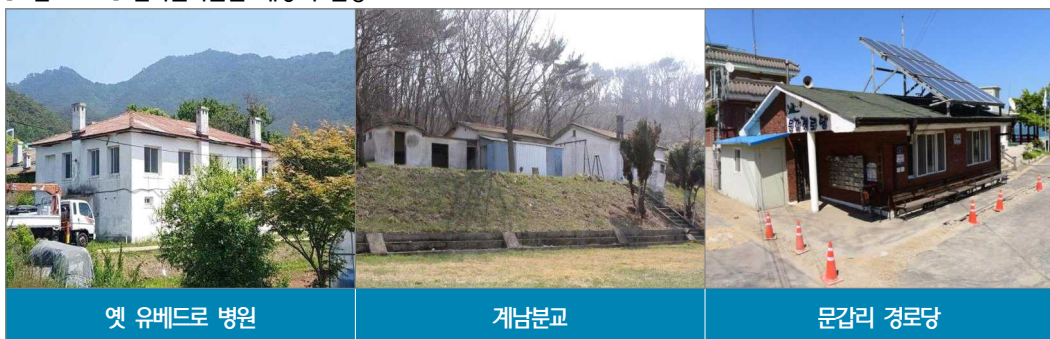
❶ 섬마을박물관 2차 조성지 제안

- 섬마을박물관이 지속 조성될 예정이나 추가 조성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 과업에서는 도서별 유희시설 및 활용가능한 공공·민간시설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을 섬마을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추가 조성지로 덕적도, 대이작도, 문갑도를 선정하였으며 덕적도와 대이작도는 유희시설을 활용하고 문갑도의 경우 시군 소유의 유희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재배치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덕적도는 옛 유베드로 병원, 대이작도는 계남분교, 문갑도는 문갑리 경로당을 활용하여 섬 마을 박물관으로 조성하도록 함
- 각 시설은 기존 용도, 역사적 배경, 입지 특성에 따라 독창적인 테마 설정이 가능한데 덕적도는 근대 의료 및 천주교 역사자원을 반영한 '섬 의료·선교문화관', 대이작도는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교육유산을 활용한 '섬 교육·영상문화관', 문갑도는 지역 산나물 자원을 테마로 한 '섬 생태·산나물체험관' 으로 특화할 수 있음

〈표 5-45〉 섬마을박물관 2차 조성방안

구분	활용시설	테마 및 콘셉트	
덕적도	옛 유베드로 병원	테마	“바다 위의 작은 성당, 섬을 지킨 신앙의 발자취”
		콘셉트	· 유베드로 병원의 설립 배경과 의료·선교 활동 기록 전시 · 천주교 선교사와 섬 주민들의 교류, 신앙 공동체 형성 · 순례관광과 연계한 '섬 신앙의 길' 해설프로그램 운영
대이작도	계남분교	테마	“섬마을 교실, 그때 그 시절”
		콘셉트	· 1960~70년대 섬마을 학교생활과 교사·학생 이야기 복원 ·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 당시 사진·영상 아카이브 전시 · 교실 재현, 손글씨 편지쓰기, 옛 교복체험 등 교육 운영
문갑도	문갑리 경로당	테마	“섬과 산이 주는 봄, 문갑도의 산나물 이야기”
		콘셉트	· 산나물의 종류, 채취시기, 조리법, 전통지식을 전시·체험 · 산나물과 지역문화(절기, 마을 행사, 제례) 관계 전시 · 산나물 채취 체험, 손맛 전수 요리교실, 나물 저장법 교육

[그림 5-57] 섬마을박물관 대상지 현황



라. 사업추진방안

- (자월도)섬마을박물관 리뉴얼 사업비는 2층 및 옥상 공사비를 포함하며 (문갑도)섬마을 박물관 신규 조성 사업비는 문갑리 경로당 리모델링비를 포함하고 두 곳 모두 콘텐츠 운영비가 추가 포함됨.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0백만 원으로 계획함
 - 콘텐츠 운영비 개소당 100백만 원, 대이작도·덕적도는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 추진
- 섬마을박물관 리뉴얼 사업비는 ‘자월도 섬마을박물관’ 조성 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섬마을박물관 신규 조성(리모델링비)은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대구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2019~2022)〉 120백만 원(개소당), 〈횡성군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2025)〉 170백만 원(개소당) 등

<표 5-46>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섬마을박물관 리뉴얼	1	식	100	100
섬마을박물관 신규 조성	1	식	100	100
합계	-	-	-	200

사례 : 신망리 마을박물관

-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신망리 마을박물관’은 경원선 간이역인 신망리역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시설로 마을역사 및 주민생활, 지역문화 등에 대한 사진자료 및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음
- 휴전 직후 피난민 정착지였던 정체성을 반영하여 내부 인테리어 및 마을로고 디자인, 마을굿즈 제작 등을 진행하며 기획전시를 비롯해 생활예술 프로그램, 박물관 해설, 마을 투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와 협력하여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주거, 창작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음



4.2 1섬 1테마 갖기 사업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전역
사 업 비	· 22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27년(단기적 개발 후 지속 활용)
사업주체	· 용진군
세부사업	· 1섬 1테마 발굴 · 12달 섬마을 축제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 섬 관광활성화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테마 발굴

- 현재 덕적 · 자월군도를 비롯한 섬 관광은 자연경관 감상과 단순 체험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움. 특히 덕적도, 자월도 등 일부 인지도가 높은 섬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나머지 섬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관광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섬의 고유한 자원과 특색을 반영한 테마를 발굴하여 섬의 정체성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테마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방문동기를 부여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음. 나아가 테마를 기반으로 통해 섬간 연계관광을 촉진함으로써 권역 내 관광객 흐름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섬 테마를 활용한 콘텐츠 및 이벤트 도입

- 섬마다 고유한 테마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섬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섬의 테마를 기반을 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이벤트를 개발 · 운영해야 함
- 덕적 · 자월군도의 경우 지리적 ·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관광적 측면에서는 통합 관광 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이에 섬마다 테마를 부여하는 ‘1섬 1테마’ 전략은 각 섬의 고유자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권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권역 테마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이러한 권역 차원의 핵심테마는 개별 섬 테마와 콘텐츠를 통합하는 관광 프레임워크로 작동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각 섬의 프로그램을 공동 축제, 권역형 이벤트, 연계형 마케팅으로 확장 · 운영하여 권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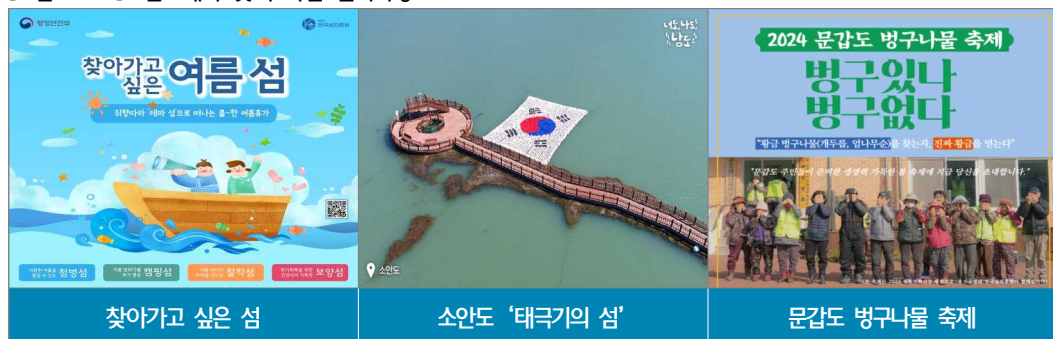
[그림 5-58] 1섬 1테마 갖기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은 섬마다 고유한 테마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섬 관광활성화 전략임. 매년 선정된 섬들은 차별화된 테마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 유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치유의 섬’ 승봉도, ‘태극기의 섬’ 소안도, ‘비밀의 섬’ 비안도 등은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섬 1테마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에는 유사한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을 지닌 섬들이 많아 관광객입장에서는 방문동기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섬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를 부여하면 섬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해당 섬을 ‘찾아가는 목적지’로 만들 수 있음
- 한편 테마는 축제에 적용될 때 축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문갑도 병구나물 축제는 연중 열흘간 채취할 수 있는 귀한 봄나물인 ‘병구나물’의 희소성과 향을 살려 ‘미식’과 ‘자연생태’가 결합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이처럼 테마는 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5-59] 1섬 1테마 갖기 사업 벤치마킹 요소



다. 세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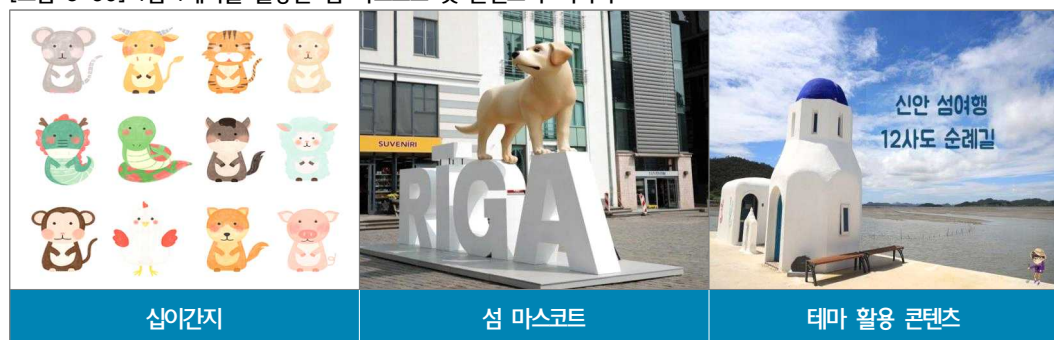
❶ 1섬 1테마 발굴

- 1섬 1테마 발굴은 섬 자원을 기반으로 한 테마 발굴과 덕적·지월군도의 상징성을 강조한 테마로 구분하여 발굴함. 이러한 분류체계는 테마의 차별성을 더하고 섬 관광브랜드 개발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섬 자원을 기반으로 한 테마 발굴은 섬별 자원 조사를 통해 섬별 특색과 차별화 요소를 분석한 후 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테마를 확정함
- 군도 전체의 상징성을 강조한 테마는 12개 섬과 연관된 이미지를 토대로 각각의 섬에 하나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12개의 하위 테마를 발굴하는 과정임. 본 과업에서는 ‘십이간지(十二干支)’라는 12개의 띠를 12개 섬과 연결하여 테마를 부여할 수 있음
 - 12개 띠는 무속이나 신앙과는 다른 순수한 ‘마스코트’ 개념으로 추후 섬을 찾을 땀을 위한 외래 관광객을 고려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로컬스러움(한국다움)을 강조할 수 있음
- 1섬 1테마를 콘텐츠 및 이벤트에 적용할 수 있으며 체험형·전시형·교육형 콘텐츠, 관광객 대상 섬 방문 홍보이벤트로 진행 가능함

<표 5-47> 1섬 1테마 발굴(안)

구분	테마	슬로건	콘텐츠 요소
덕적도	느림의 섬	“덕적에서 천천히 쉬어가다”	· 다도체험, 숲길 트레킹
굴업도	자연의 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섬”	· 백패킹, 모닥불 캠핑
소야도	음악의 섬	“바다 위에 흐르는 선율”	· 해변 버스킹, 음악회
문갑도	미식의 섬	“산과 바다가 차린 한 상”	· 파시체험, 산나물 채집
백아도	신비의 섬	“하얀 섬에 내린 성탄의 기적”	· 라이트업, 눈썰매, 소원등
지도	정원의 섬	“바다가 키운 작은 정원”	· 야생화정원, 원예체험
울도	문화의 섬	“섬마을 전통이 흐르는 곳”	· 전통 어업체험, 민속놀이
지월도	청춘의 섬	“붉은 달 아래, 청춘이 머무는 곳”	·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대이작도	낭만의 섬	“풀등에서 특별한 낭만을 찍다”	· 사진공모전, 인증샷
소이작도	모험의 섬	“해적단과 떠나는 신나는 모험”	· 보물찾기, 섬탈출, 코스프레
승봉도	힐링의 섬	“바다와 노을이 감싸는 섬표”	· 낙조투어, 족욕체험
선갑도	고요의 섬	“나를 위한 고요한 여행”	· 무소음체험, 명상, 리트릿

[그림 5-60] 1섬 1테마를 활용한 섬 마스코트 및 콘텐츠화 이미지



❶ 12달 섬마을 축제 개발

- 각 섬의 고유한 테마를 반영한 월별 축제를 개발하고 일 년 내내 매월 한 개의 섬이 주인공이 되는 ‘12달 섬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섬 관광의 비수기를 타개하고 관광 수요의 균형적인 분산을 유도함
- 12달 섬마을 축제는 섬별 테마와 콘텐츠 요소와 월별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함. 섬에는 공식적인 ‘탄생일’이 없으므로 12달 섬마을 축제를 통해 개최 월일을 ‘(각 섬별) 방문의 해’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함

〈표 5-48〉 12달 섬마을 축제 개발(안)

구분	섬명	월별 특징	축제명
1월	선갑도	· 전국적으로 해돋이 수요가 많은 시기	“선갑도 해돋이 힐링 축제”
2월	굴업도	· 백패커들이 돌아오는 시기	“백패킹 홈커밍 축제”
3월	지도	· 봄꽃 · 정원 감상이 절정인 시기	“지도 해양가든 페스티벌”
4월	문갑도	· 연중 병구나물이 채취되는 시기	“(기존)문갑도 병구나물 축제”
5월	울도	· 제철어종이 많아 어업이 활발한 시기	“바다의 삶, 울도의 이야기”
6월	소야도	· 해가 가장 길어 야간행사 가능	“섬머 섀넌 뮤직축제”
7월	자월도	· 젊은이들의 열기가 타오르는 시기	“자월도 붉은 달 축제”
8월	대이작도	· 풀등이 길고 넓게 드러나는 시기	“황금 풀등 포토축제”
9월	승봉도	· 성수기를 피해 차별함을 즐기는 시기	“승봉도 노을빛 섬표 축제”
10월	덕적도	· 슬로라이프 체험의 최적의 시기	“가을 웰니스 페스티벌”
11월	소이작도	· 야외활동으로 추위를 달래는 시기	“해적단 겨울 대탈출”
12월	백야도	· 연말의 고요와 차별함을 살린 시기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라. 사업추진방안

- 12달 섬마을 축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이 축제 기획 ·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모든 섬마다 주민워크숍을 진행함.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20백만 원으로 계획함
- 섬마을 축제 개발 용역비, 주민워크숍 운영비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온산 도시재생 마을축제 기획,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2024)〉 45백만 원, 〈2025년 영동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2025)〉 36백만 원 등

〈표 5-49〉 1섬 1테마 갖기 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합동 주민워크숍	12	회	10	120
섬마을 축제 개발(용역)	1	식	100	100
합계	-	-	-	220

4.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일원(자월도 시범)
사 업 비	· 1,05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30년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민간(주민/외지인)
세부사업	·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 ·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 식음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통한 섬 관광 기반 강화

- 덕적 · 자월군도를 비롯한 인천 도서지역의 관광은 최근 트레킹과 캠핑 등 체류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내 식음 인프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특히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은 섬들은 식음시설이 부재하며 단체 관광객은 숙박 · 식사가 통합된 패키지를 통해서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장조사 결과 관광객이 섬에서 한끼 식사에 14~18천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메뉴의 다양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할 때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은 구조임을 시사함
- 이에 섬 내 빈집, 폐교, 창고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식음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식음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섬 관광의 기본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트레킹·캠핑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특화 먹거리 개발

- 섬 관광객의 상당수가 트레킹족, 캠핑족으로 이들이 섬 관광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음식임. 특히 섬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단순히 '맛있는 한 끼' 보다는 '간편하고 정체성이 담긴 한 끼' 를 선호하고 있음
- 한편 덕적 · 자월군도는 싱싱한 수산물과 섬마다 차별화된 농산물(수수, 고구마, 나물 등)을 보유하고 있어 특화 먹거리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러한 식재료를 활용해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섭취 가능한 밀키트, 컵밥, 휴대용 간식 등으로 상품화하면 야외 활동 중에도 섭취할 수 있어 실용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식음 인프라 조성이 어려운 섬일수록 이러한 간편식 중심의 특화 먹거리 개발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관광객은 각 섬에서 색다른 미식 경험을 할 수 있고 섬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화된 먹거리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그림 5-61]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 2016년부터 ‘I(섬) FOO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을 통해 덕적도 ‘간재미짬’, 자월도 ‘섬마을 비빔밥’ 등 총 7개의 섬에 특화 먹거리가 개발되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음
- 해당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는 섬마다 식재료나 특산물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일부 섬들의 경우 재료가 중복되는 등 지역별 차별화에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특화 먹거리 개발에 앞서 섬별 자원의 특산물화 또는 특산물 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는 섬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함. 소이작도에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특산물을 개발하고 이를 신규 소득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효과를 거둠
 - 소이작도는 꽃게라는 특산품을 활용하여 ‘꽃게품은 육수한알’을 개발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2024년 ‘제1회 해작해작 갯티길 산책’ 행사 기간 중 주민들이 준비한 푸짐한 한 끼 식사 ‘섬 밥상’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음
- 이러한 특화 먹거리 개발은 식음 인프라 확충과 병행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I(섬) FOOD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간편식 개발과 브랜드화, 섬별 대표 메뉴 선정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 추진하고자 함

[그림 5-62] 섬 특화 먹거리 개발 현황



다. 세부사업

❶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

- 식음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소규모 식당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식음 인프라를 보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함. 본 사업의 대상지는 총 9개소이며 자월도에 우선 추진함
 - 덕적도, 소야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이며 사업 초기에 접근성, 정주기반 미흡 등으로 민간에서 지원이 저조할 것을 염두하여 비교적 가깝고 식음시설이 부족한 자월도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함
- 각 섬 내 유희공간(빈집, 폐교, 창고 등)을 리모델링하여 ‘섬식당’을 조성하며 공공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민간이 직접 식당을 운영함. 운영 주체는 지역주민 또는 청년으로 특히 청년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는 인구 부족으로 인해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섬 상황을 개선하고자 청년인구 정착 유도 및 생활인구로 유입하는 방안으로 활용됨
- 한편 안정적인 식당운업을 위해 외식업 운영에 대한 사전 교육과 운영 매뉴얼 제공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인천섬발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섬웨이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비 창업자 대상 기본교육, 섬 식당운영에 대한 노하우 공유 등을 지원함.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식당은 ‘덕자의 식당’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표준 간판 디자인, 인테리어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 통일성과 인지도를 높임

<표 5-50>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안)

구분	주요 내용
추진방식	· 유희공간 리모델링 :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한 10평 내외 소규모 식당 조성 · 운영방식 : 공공임대방식(최소 2년 계약),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 책정
지원내용	· 초기창업비 지원 :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구입을 위한 비용지원 · 식재료 유통 연계 : 지역 농·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 메뉴 개발 컨설팅 : 외식업체·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규 메뉴 개발 및 상품화 · 간편식 패키징 연계 : 동일메뉴를 간편식 형태로도 개발하여 가게 내 비치·판매

[그림 5-63]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 이미지



❶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 섬마다 다양한 특산물(굴, 바지락, 수수, 동굴레, 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간편식 개발이 가능함. 특히 트레킹·캠핑을 위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조리의 간편성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기때문에 밀키트, 컵밥, 간식바, 즉석 국물팩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간편식을 개발함
-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덕자의 식당’을 활용하여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제조 및 가공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확장함. 간편식 공동개발, 소포장 생산, 시범 판매 등을 추진하며 식당운영의 수익 다변화를 도모함
- 생산된 간편식은 덕적자월군도 내 주요 거점인 여객터미널, 매점, 카페 등과 연계하여 판매되며 특히 i-바다패스 같은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섬 방문 전 온라인에서 간편식을 사전 구매하거나 현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함
- 모든 메뉴는 ‘덕자의 한끼’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섬마다 존재하는 간편식의 품질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관광객에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함. 또한 감성적 스토리텔링, 포장디자인에 적용되어 메뉴 간 호환성을 높임

〈표 5-51〉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예시

구분	형태	주재료	메뉴명	메뉴 설명
밀키트	진공포장/ 반조리형태	바지락, 감자, 수제비면	바지락수제비 밀키트	· 바지락의 감칠맛과 쫄깃한 수제비가 어우러진 탕 요리형 밀키트
컵밥형	전자레인지/ 온수조리	수수, 굴, 보리, 들기름	수수보리굴밥 컵밥	· 섬의 건강한 곡물과 신선한 굴을 결합한 영양식
소포장	에너지바 형태	동굴레, 땅콩, 꿀	동굴레 견과바	· 트레킹 중 섭취할 수 있는 고에너지 건강 간식
보온형	즉석 국물 팩	바지락, 된장, 무	바지락 된장국 팩	· 즉석국으로 진공 포장된 국물팩 형태 (컵밥과 세트 구성 가능)

〈표 5-52〉 섬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추진과정

구분	주요 내용
원재료 전달	· 지역 농·수산물을 직매입하거나 생산자와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 · 섬 특산물의 표준화된 선별·세척·전처리 프로세스 구축
제품화 지원	· 메뉴별 레시피 표준화하여 누구나 동일한 품질로 제조 가능하도록 매뉴얼화 · 지역 가공업체 위탁 및 협업하여 제품 생산 지원(예시 : 덕적도 호박회관)
공동브랜딩	· ‘덕자의 한끼’ 또는 ‘1섬 1메뉴’ 등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포장·홍보에 적용 · BI/CI 디자인 개발, ‘덕자의 식당’ 로고를 기반으로 패키지 통일성 확보
유통지원	· 여객터미널, 지역 안내소, 카페, 숙소, 선착장 편의매장 등에 제품 입점 · 인천광역시 공공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채널 연계
시제품 개발	· 각 섬에서 대표 메뉴 1~2종씩 개발하여 총 5종의 간편식 시제품 제작 · 시제품 판매 후 피드백 반영하여 상품 개선 및 대량 생산 준비

라. 사업추진방안

- 섬식당 유치 지원사업은 식당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며 간편식 개발 사업은 메뉴 개발 및 상품화 용역비가 포함됨.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050백만 원으로 계획함
 - 섬식당은 9개 섬을 대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개소당 1억 원이 소요됨(자월도 시범 추진)
- 식당 리모델링 비용은 유희시설 활용과 관련된 공모사업의 리모델링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메뉴 개발 및 상품화 용역비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예가정성 홍보용 밀키트 상품 연구개발 및 제작 용역(2022)〉 20백만 원, 〈광주음식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2025)〉 160백만 원 등

〈표 5-5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밥상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섬식당 조성(리모델링)	9	개소	100	900
메뉴 개발 및 브랜딩(용역)	1	식	150	150
합계	-	-	-	1,050

사례 : 제주 해녀의 부엌

- 해녀의 연극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만든 식사를 차례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해녀들이 직접 연기하는 공연과 해산물 설명회, 오마카세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2021년 서울 북촌에 2호점 오픈,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대상, 2021년 제주관광공사 J-스타트업 대상 수상 등 로컬푸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4 한국 관광의 별〉 융복합 콘텐츠 부문 선정되는 등 제주 로컬문화의 가치 재조명 및 제주의 먹거리 상품화 추진하였음
- 동원 '더 반찬' 과 협업하여 '해녀의 부엌 빨소라미역국', '해녀의 부엌 순고양념무침' 등 밀키트를 출시하고 로컬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당시 해녀들의 겪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함



해녀의 부엌

특산물 활용 먹거리

해녀 이야기 공연

4.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사 업 비	· 3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29년
사업주체	· 웅진군
세부사업	·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 ·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가. 필요성 및 목적

❶ 도서 트레킹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필요

- 현장 답사를 통해 덕적 · 자월군도의 트레킹코스과 관광여건을 살펴본 결과 편의 및 안내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환경이 열악하여 전반적인 관광 수용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과거 덕적도, 문갑도 등 일부 도서에 트레킹 코스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일부 구간만 정비되었고 안내판, 펜스 등이 상당히 노후되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덕적면 총 82km(주요 노선 65.64km), 자월면 총 16km(주요 노선 11km) 등 덕적 · 자월군도 내에서 트레킹 자체가 핵심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어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비하여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함

❷ 섬 관광 발전을 위해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필요

- 섬은 접근성 및 관광 인프라가 미흡하고 날씨 의존도가 높아 기존의 트레킹 관광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일부 도서는 여객선 운항 횟수에 따라 숙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볍게 트레킹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서 트레킹의 매력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체험의 질을 강화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함. 특히 스토리텔링, 웰니스 등 최근의 트렌드를 접목하여 다양한 체험과 연계하는 복합적인 계획이 요구됨
- 또한 트레킹을 통해 환경보호, 주민참여, 관광객 교육을 결합한 ESG 가치를 실현하여 덕적 · 자월군도만의 관광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관광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그림 5-6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트레킹 여행 인구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트레킹 코스 개통과 웰니스 여행수요 증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트레킹 여행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소위 ‘갯생’ 이라 하는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에 큰 매력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면서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등산트레킹 국민의식 실태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등산 및 트레킹 인구는 전체 성인의 77%(약 32백만 명)이며 매년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한달에 한 번 이상 트레킹을 하는 수요는 89.5%로 등산의 6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용진군의 경우 총연장 약 200km의 탐방로를 가지고 있어 섬을 즐기는 방안으로써 트레킹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화 및 섬 인지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 특히 덕적군도(82.04km), 자월군도(15.63km) 등 트레킹이 가능한 숲길이 많아 이를 활용한 트레킹 관광 활성화가 가능함
- 인천광역시와 용진군은 트레킹과 관련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젊은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국리서치(2023) 조사에 따르면 트레킹을 선호하는 계층 중 60대 이상이 가장 높으나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남자가 65%, 여성이 60%로 점차 여성의 트레킹 선호도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 기존 친목 목적에서 가족단위 트레킹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5-54> 용진군 숲길 현황

(단위 : km)

구분	합계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총 연장	193.86	36.09	4.34	22.31	16.05	82.04	15.63	17.40
주요 노선	149.70	30.88	3.49	14.08	14.22	65.64	10.79	10.60

자료 : 용진군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2017), 용진군

다. 세부사업

⊗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

- 덕적·자월군도 내 모든 섬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정비 및 구축, 안내시설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추진함
 - 각 도서의 트레킹 코스 현황을 조사하여 시급성에 따라 순서에 차등을 두고 추진함
- 최근 트레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의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트레킹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굴업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용태세 개선을 추진함
 - 덕적도, 자월도 등 등산로 정비를 추진한 지역을 제외하고 정비되지 않은 도서부터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함

<표 5-55>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안)

구분	주요 내용
안전시설	· 등산로 정비 : 낙석 위험구간, 급경사 지역에 안전로프, 데크 계단 설치 (미끄럼 방지 패스 시공) · 비상구조 체계 구축 : 주요지점에 긴급 호출기/구급함 설치, 트레킹 안전 순찰 인력 운영
안내시설	· 안내판 정비 및 설치 : 노후 안내판 정비, 등산로 입구 및 갈림길에 신규 안내판 설치 · 다국어 표기 및 스마트 해설 : 외국인 방문객을 고려하여 영·중·일어 병기, QR코드 안내 시스템 운영
편의시설	· 휴게쉼터 및 조망포인트 조성 : 코스 중간지점 벤치 설치, 조망포인트에 포토존 설치 · 소규모 족욕시설 조성 : 트레킹 및 등산 이후 휴식과 함께 발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시설(승봉도 등) ·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트레킹 길목 또는 접근지점에 친환경(생분해, 무방류) 이동식 화장실 설치

[그림 5-65]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 예시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 트레킹은 단순한 자연감상 및 체험을 넘어 스토리텔링, 웰니스, 고유문화 등 감성적이고 복합적인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어 덕적·자월군도 내 각 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함
- 덕적·자월군도의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트레킹 상품과 결합하여 체류형 복합 관광 패키지를 발굴함. 또한 ESG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섬 관광 기반을 조성함

<표 5-56>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구분	주요 내용
몰입형 콘텐츠 개발	· 개발방향 : 섬 고유의 이야기, 정서를 반영한 감성형·몰입형 트레킹 콘텐츠 개발 · 테마형 코스 구성, 스토리텔링 기반 트레일 조성, 야간 및 계절별 특화 코스 개발, SNS 인증 콘텐츠화
패키지 상품 결합	· 개발방향 : 트레킹과 로컬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 관광 패키지 구성 · 트레킹과 로컬푸드/전통문화/웰니스프로그램/감성 스테이 등과 결합 · 승용도는 단조로운 패키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족욕체험을 포함한 복합형 트레킹 패키지 추진 중
ESG 가치 실현 상품 개발	· 개발방향 : 섬 생태와 지역공동체를 보존·활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구축 · 섬 수용력 기반 예약제 운영, 제로 웨이스트 여행 키트 제공, 친환경 인증 트레일 지정제 도입 등

[그림 5-66]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사업 예시



라. 사업추진방안

-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00백만 원으로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250백만 원,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에 50백만 원으로 계획함
 -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는 시설개선 및 설치와 콘텐츠 개발 용역비를 포함하였으며 우선사업 구간 5km를 기준으로 산정함

-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과 숲길 정비사업 등 타지역의 유사사례를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사업은 콘텐츠 개발 유사 사례 용역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등산로 정비사업(미추홀구 문학산 3개소선)(2024)〉 190백만 원, 〈경주시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2020)〉 280백만 원

<표 5-57>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트레킹 관광 수용태세 개선	5	km	50	250
트레킹 관광 콘텐츠 고도화	1	식	50	50
계	-	-	-	300

사례 : 2025년 꼭 걸어야 할 버킷리스트 여행지(국내 3대 트레킹 코스)

- 진안고원길은 고갯길과 고원 마을을 연결해 만든 길로 200km에 달하는 원형 트레일을 이루고 있으며 총 15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부 구간에 이정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됨
- DMZ 평화의 길은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최전방 마을과 전적지, 광활한 평야와 산악지형을 지나는 테마형 트레킹 노선으로 트레킹과 자연과 역사, 평화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음
-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잇는 운탄고도 1330은 해발 1,330m가 넘는 고지대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트레킹 코스로 과거 석탄을 나르던 길에서 자연과 산업 유산이 공존하는 여행지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독특한 여행지임



5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정책적 검토사업

5.1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개요	
대 상 지	· 덕적 · 자월군도 전역
사 업 비	· 400백만 원
사업기간	· 2026~2028년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세부사업	· i-바다패스 제도적 정비 · 신규 인센티브 사업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적 측면에서 섬 관광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i-바다패스를 통해 여객 운임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말에는 여객선 좌석이 매진되고 있으나 도서 방문객이 증가한 탓에 지역주민의 불만족 요소도 증가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결과 가장 큰 불만은 주민보다는 여객선사 중심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객 할인금액 대부분이 세금으로 유지되는 상황에 따라 지역민의 불만이 있음. 따라서 선사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관광 인센티브를 통해 도서간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인센티브 사업들은 비용적인 지원 외 각 섬마다 제공하는 콘텐츠와의 연계가 미흡함. 또한 본 계획을 통해 제시되는 도서별 특화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및 지속적인 재방문 유도에 한계가 예상됨
- 이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섬 관광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MZ세대에서 리워드 기반의 참여형 관광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섬 방문 시 리워드가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나아가 도서간 연계관광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스럽게 도서간 이동을 촉진함

[그림 5-67]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관광객 대상으로 i-바다패스, 인천 보물섬 투어패스, 인천 도도하게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객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경우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옹진군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옹진군 섬 스탬프 투어’를 추진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관내 지정 관광지(81개소) 방문 시 실제 사용가능한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는 시스템으로 약 4개월간의 운영기간 동안 앱 다운로드 건수가 17,000건을 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은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를 지역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상쇄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성과 효과성을 갖춘 옹진군 섬 스탬프 투어를 일부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포인트에 대한 예산 확보와 포인트 활용처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에서 추진 중인 인센티브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그림 5-68]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인센티브 사업 현황



다. 세부사업

❶ i-바다패스 제도적 정비

- i-바다패스 사업의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는 여객 선사에게 지급되는 할인금액에 대한 비율 조정이 필요하나 여객 선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 번째 대안은 여객운임비 할인은 유지하되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70%로 할인되는 혜택을 줄여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임. 이 방안은 여객 선사의 입장에서 수익은 유지하되 지역화폐를 방문한 지역에서 사용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제시됨
- 두 번째 방안은 여객표 발권의 어려움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전용 예약 발권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관광객 환경부담금을 i-바다패스 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임. 이 방안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개선도 병행될 수 있음
 - 다만 환경부담금의 경우 제주도에서 추진한 적이 있으나 도입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음에도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관광업계 반대로 인해 유보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외에도 i-바다패스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 제도의 실효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표 5-58> i-바다패스 제도적 정비(안)

구분		주요 내용
대안 1	i-바다패스 할인금액 조정	· 운임비 할인은 유지하되 비율만 조정 - (현행) 운임비 할인 70% → (개선) 운임비 할인 50% · 섬 관광소비 진작을 위해 차감된 비율(20%)만큼 지역화폐로 지급 - 20% 비율 감소시 발생하는 할인금액 차액(관광객 기준) : 덕적도 1,690원, 굴업도 2,040원, 이작도 1,450원*
대안 2	주민 전용 예약 발권 시스템 도입	· 전체 티켓 중 일정 비율(20~30%)을 주민 전용으로 배정 · 온라인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인증 등으로 주민만 예약 가능 · 추가 검토방안 ① 현장발권 우선권 부여 : 선착장/터미널에 주민 전용 발권창구 운영 ② 주민전용 패스/카드 발급 : 주민증과 연계한 i-바다패스 주민카드 발급
	관광객 환경부담금 적용	· i-바다패스 요금에 환경부담금 1,000원 포함(금액 변동 가능) · 해양쓰레기 수거, 화장실·폐기물 관리 등에 사용 · 추가 검토방안 ① 무인도 또는 생태계 보전 섬 방문시 환경부담금 추가 부과 ② 평일/주말에 따라 차등 부과(평일 : 1,000원, 주말 1,500원)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 내용 반영(www.kefship.com/ibadapass)

❶ 신규 인센티브 사업 개발

- 도전과 수집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새로운 경험과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섬을 방문할 수록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인센티브가 필요함. 이에 리워드 방식의 인센티브 사업인 ‘(가칭)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을 제안함
- 덕자 마일리지는 섬별 방문 시마다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 내 식음·숙박·체험·특산물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관광객은 섬을 많이 방문할수록 더 많은 리워드를 누릴 수 있음
 - 단순 적립을 넘어, ‘덕자로드 완주 챌린지’, ‘1섬 1마일리지 캠페인’ 과 같은 참여형 미션 이벤트를 결합해 게임화(Gamification) 요소를 강화함. 이를 통해 관광객은 여행을 하나의 도전으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다도해 관광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을 위해 플랫폼이 필요한데 현재 인천광역시와 운영 중인 스마트 관광플랫폼 ‘인천e지’ 를 활용함. 해당 플랫폼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가맹점들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 비용 소모가 없음. 또한 인천 도도하게 살아 보기, 인천 보물섬 투어패스 등 기존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가 용이함
 - 인천e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2021년 출시한 제1호 스마트관광 앱으로 AI기반 여행 일정 추천, AR/VR체험, 오디오가이드, 스탬프투어, 쿠폰·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며 2025년 기준 누적 다운로드 28만 건, 회원 수 9만2천 명, 가맹점 수 420개를 보유하고 있음

<표 5-59>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운영방안

구분	주요 내용	
운영방안	· 인천e지 앱 내 모바일 스탬프 형태로 마일리지 자동 적립 · 덕자로드 완주챌린지, 1섬 1마일리지 캠페인과 연계하여 미션 이벤트 운영 · 기존 인천e지 가맹점(420개) → 덕자 마일리지 사용처로 확장 · AR/VR체험, 오디오가이드, 스탬프 투어 기능을 활용해 섬별 스토리텔링 강화 · 인천 도도하게 살아보기, 인천 보물섬 투어패스 이용 시 마일리지 자동 지급	
리워드 예시	· 2point : 지역카페 음료권 지급 · 5point : 지역특산물 제공 · 7point : 식사권 제공(2인 1회)	· 12point : 숙박권 제공(비수기 사용) · 20point : 패키지 상품 이용권 제공 · 50point : 프리미엄 투어 초대권 제공

라. 사업추진방안

-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은 i-바다패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비, 신규 인센티브 사업 홍보비가 포함됨.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00백만 원으로 계획함
 - 모니터링단 운영 외 i-바다패스 제도적 정비에 대한 비용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었고 신규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기존 플랫폼(인천e지)를 활용하므로 시스템 구축비, 사업 운영비, 가맹점 확보 및 지원비 등이 제외됨

- 모니터링단 운영비, 신규 인센티브 사업 홍보는 타지역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3백만 원(1명당 30만 원 지급/연 1회/10명),
 〈2024년 순천시 SNS 채널 운영 및 프로모션 이벤트〉 80백만 원 등

<표 5-60>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모니터링단 운영	20	명	5	100
신규 인센티브 사업 홍보	1	식	300	300
합계	-	-	-	400

사례 :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 제천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관광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관광객들이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적립 가능한 관광지는 의림지 등 주요 관광지 17곳과 체험여행지 29곳에 이르며 QR코드 인증 또는 스탬프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음. 관광지 1곳 방문시 최대 1,0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1일 적립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최대 5,000원)
- 관내 식음시설 39개소를 포함하여 약 70여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함. 관광객이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로 연결 되도록 유도하고 지역 대표 축제 행사와 연계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제천 관광마일리지 북

마일리지 QR코드 인증판

제천 마일리지 카드

5.2 실질적인 민자유치사업(제안)

사업개요	
대 상 지	· 굴업도
사 업 비	· 미정
사업기간	· 미정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세부사업	· 민간기업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 숙박리조트 유치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유치 실패 및 정체화

- 덕적·자월군도의 굴업도는 지난 2006년 CJ그룹이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휴양 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 유치와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또한 이후 2021년 그룹 일가 소유 법인에서 굴업도 인근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추진과정 절차가 생략되는 등 법·제도적 미해결사항 발생으로 인해 본 사업 역시 좌초된 상태임. 연속적인 민간투자사업 유치 실패로 굴업도를 비롯하여 덕적·자월군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한 실질적 민간투자 및 협업사업 실행 필요

- 최근 MZ세대가 본격적인 여행 및 소비 수요층으로 진입하면서 이들 니즈에 부합하는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소비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협업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특히 위케이션 및 ESG관광, 생활관광 등 생활밀착형 여행이 대두되면서 뷰티, 생활 소품, 취미용품 등과 관련된 브랜드들이 인스타 등 SNS 명소 및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중심형 팝업사업을 마케팅 및 홍보사업의 일원으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유치 이전 실현 가능성 있는 전략적 협업사업으로 민간기업과의 협업사업 등을 추진 해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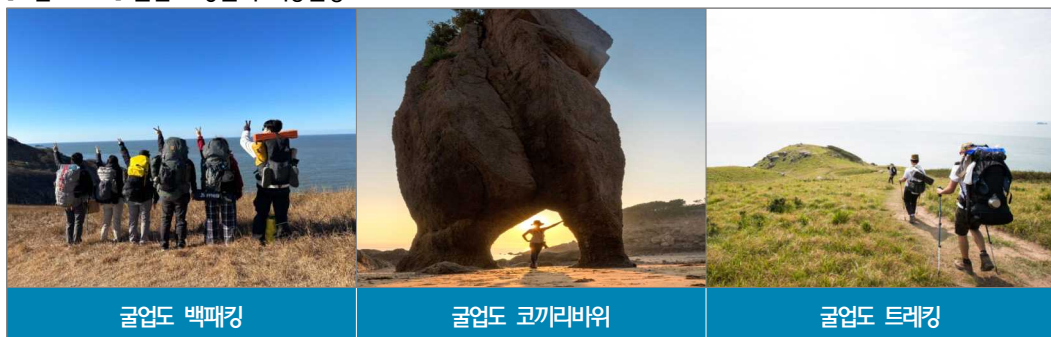
[그림 5-69] 실질적 민간유치방안(제안)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여건

- 대기업 민간투자가 진행되었던 굴업도는 우리나라 백패킹 3대 성지라고 불릴 만큼 백패커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도서지역으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지속적 인기를 얻으며 실제 MZ층을 중심으로 백패커들의 방문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덕적도에서 남서쪽으로 13km거리에 있는 굴업도는 굴업도 해수욕장과 코끼리바위가 유명하며 백패커들이 주로 방문해 노지캠핑을 하는 덕물산, 개머리언덕 등이 대표자원으로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별칭이 있음
- 방문객들 사이에서 한적한 해안분위기와 백패킹에 적합한 자연여건으로 나홀로 여행과 감성적 석양 등이 유명해지면서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 굴업도 홈페이지 기준 현재 10개의 민간숙박업체가 운영 중이며 인천항에서 출발해 덕적도를 거쳐 굴업도를 방문하는 배편이 있었으나 방문객 증가와 인지도 제고로 인해 최근 인천항에서 굴업도로 가는 직항이 운항 중임
- 이처럼 백패커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백패킹과 트레킹 목적지로 지속적 인기를 얻고 있어 이러한 수요층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이색적인 민간협업사업 마련으로 굴업도의 체류 인프라 및 수용태세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민간 투자 및 협업사업을 실행토록 함

[그림 5-70] 굴업도 방문객 이용현황



다. 세부사업

⊗ 민간기업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 브랜드 팝업×굴업도

- 2030세대 MZ층과 백패커, 트레킹족의 지속적인 방문유도와 체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굴업도 해수욕장과 주요 트레킹코스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기본 편의공간을 마련함
- 이때 공간은 브랜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조성하여 관련 브랜드의 민간참여를 자연스럽게 실행시키고 기능은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해수욕장 서비스제공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함
 - 굴업도 해수욕장과 트레킹 코스를 간이 쉼터형식의 공간을 조성해 피크시즌 양우산, 무인 키오스크 자판기, 손선풍, 넥쿨러, 모자 등 서비스 용품을 대여 및 구매해 방문객 불편요소를 해소시키고 체류시간을 증대시킴
- 참여가능 브랜드 및 민간으로 굴업도 기존 사업자인 CJ그룹의 계열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분야로는 헬스&뷰티, 커피 등 음료, 캠핑 등 레저용품, 카메라 등 MZ층의 관심 분야로 등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제안 브랜드들의 경우 SNS활동이 활발한 굴업도 방문객 MZ층을 타킷으로 관련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이색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와 실질적 구매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독려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팝업스토어 운영은 봄부터 가을시즌까지로 하며 혼행 및 소규모 그룹형태 방문객 특성을 고려해 무인형태로 운영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바다와 초록 언덕 등 자연여건을 고려해 노랑(Yellow)과 빨강(Red) 등 생기 있는 컬러의 코티지(오두막) 형태의 소형 서비스 공간으로 굴업도 해변, 트레킹 코스 일부 지점 등 약 5개소의 공간을 조성해 4월~10월까지 무인운영으로 오픈함
 - 기능적으로는 탈의, 무더위쉼터, 화장실, 무인간편 식음(음료 등)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코티지 외부 디자인 및 데코퍼니처 등에 민간 브랜드 홍보 연출을 반영해 운영함

[그림 5-71] 민간브랜드 협업사업 실행 예시



❶ (가칭) 힐링 & 친환경 리조트 유치사업

- 굴업도는 2014년 CJ&I가 오션파크 관광단지로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사업추진이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정체된 상태임
- 따라서 CJ그룹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광트렌드로 예상되는 친환경 콘셉트의 하이엔드 숙박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음
 -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 사례와 같이 대상지의 지형, 지역의 스토리와 정체성, 상징성 등을 친환경 콘셉트와 접목해 하이엔드 층 등 설정 타깃에 부합하는 특화된 리조트 및 숙박단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추진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이 환경훼손 및 생태계 환경 저해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배경을 고려해 2018년 당시 국내 유일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로 개장한 영월 에코빌리지 사례와 같이 다양한 친환경 교육 및 체험상품과 연계한 특화된 힐링&친환경 콘셉트의 숙박단지로 조성을 추진도 검토 가능함

라. 사업추진방안

- 민간기업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팝업 사업은 5개소 기준 약 100백만 원이 예상되며 봄부터 가을시즌까지 장기간 무인운영기준으로 별도의 인력투입 운영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또한 협업하는 브랜드의 사업 참여범위와 IP활용 등에 대한 별도 비용은 선정된 참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숙박형 리조트 유치사업 사업비는 영월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비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객실 20실과 부대공간 등 규모 기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함
 - 사례지의 경우 2018년 개장으로 당시 약 77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코로나19, 물가상승률 및 도서지역이라는 대상지 입지 등을 고려해 유사시설 규모 기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음
- 본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협업 및 투자사와의 구체적인 사업협약과 의향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전제되는 사업으로 우선 민간기업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전략적으로 우선 실행할 필요가 있음

<표 5-61> 실질적 민자유치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민간기업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5	개소	20	100
숙박형 리조트 유치사업	20	객실	-	10,000
합계	-	-	-	10,100

*참고용 금액

사례 : 양양서피비치 × CJ온스타일

- 양양군과 CJ온스타일은 2024년 7월 양양 하조대 고스트비치에서 팝업스토어인 ‘온더 비치(ON THE BEACH)’를 개장 및 운영함
- CJ온스타일은 양양 서피비치가 MZ세대에게 서핑명소로 인기를 얻으며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지 홍보를 위해 팝업스토어 공간을 일시적으로 운영함
- 팝업스토어는 CJ온스타일의 상징 컬러인 보라색을 활용해 해변을 연출했으며 비치발리볼 챌린지와 포토존 인증사진 촬영 및 팔로우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해변을 찾는 서퍼 및 연인, 가족단위에게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브랜드를 홍보하고 해변 방문에 대한 추억을 선사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CJ온스타일 양양서피비치 팝업

CJ온스타일 팝업 포토이벤트

한국타이어 팝업 튜브샵

사례 : 영월 에코빌리지

- 2018년 7월에 개장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내 에코빌리지는 탄소제로 친환경생활체험(국내 최초 패시브하우스)을 모토로 총사업비 약 77억 원으로 조성됨
- 영월군에서 추진하여 조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를 선정해 운영중에 있음. 2018년 개장 이후 코로나19로 운영적자를 보였으나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조용한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가족단위와 소규모 관광객이 지속 방문하면서 현재는 흑자로 전환됨
- 코로나19 이후 지속인기를 얻고 있는 친환경 저밀도 관광목적지 수요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 힐링공간이라는 콘셉트, 불멍, 셀프 피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인 및 자녀 동반 가족단위, 청소년 층 등 다양한 이용객이 지속 방문중임



에코빌리지 전경

실내 이미지

컨셉 및 운영철학

마. 민간투자유치 사례검토

- 덕적·자월군도의 민간투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검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동향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내 관광분야 투자동향을 살펴보고 도서지역의 입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국내 도서지역 투자유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국내 관광투자현황 현황 및 동향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투자동향조사 및 분석(2024)>에 따르면 엔데믹이후 국내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K-콘텐츠를 중심으로 방한 외래객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신세계, 한화, 대명 등 대규모 국내 호텔&리조트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화성시, 남해군, 통영시 등을 대상으로 풍부한 배후수요시장 기반의 복합 리조트 단지 개발 추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양관광단지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통영시, 경상남도와 MOU를 맺으며 약 3조 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 도입시설로는 수중미술관, 전시 및 전망대 등 문화예술, 고급 숙박단지 등 여가 관련 복합해양레저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선정(2025년 7월)되면서 향후 대규모 관광투자개발 사업이 예고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군산 고군산도 무녀도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복합 레저체험단지(약 389억 원)가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3년 정식 개장한 인천 강화도 교동도 화개산 일대에 조성된 화개지방정원이 공공과 민간 협업 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최근 누적방문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목받고 있음
 - 공공부문은 화개산 전망대, 화개정원이 추진되었으며 약 1.9km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조성이 추진된 바 있음

[그림 5-72] 국내 주요 관광자원 민간투자사업 현황



❶ 도서지역 민간투자 사례 1 :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는 2000년대 초반 전라남도 신안군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간투자 복합리조트 단지로 약 39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교통여건이 미흡한 도서지역에 이국적 저층형 빌리단지로 설계된 객실조성으로 추진 당시 큰 화제가 되었음
- 본 사례는 섬 오지 지역에 민간유치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밀접한 협업에 기반한 지속적 사업추진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분석됨. 특히 사업초기 민간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토지비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안군에서 토지매입 후 균유지로의 전환 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실효성있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그 외 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인허가 사항 간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한 상위권역 계획 반영, 잠재투자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한 투자유치 인력의 전담 배치 등이 성공적 민간투자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임
- 더불어 당시 모듈형의 집합형 연립 건축물로 획일화된 객실유형에서 벗어나 해외 유명 비치에 입지한 고급형 휴양빌라의 단독형 모델 등을 벤치마킹한 건축설계 반영으로 조성완료 이전부터 입소문을 모으며 운영시점까지 전객실 분양완료를 달성해 대상지 뿐만아니라 신안군에 대한 휴양관광 목적지로서의 대외 인지도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표 5-62>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일반현황

구분	주요 내용
위치 및 규모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233번지 · 대지면적 76,817㎡
사업기간	· 2003. 9~2005. 10(2년) / 2006년 개장
총사업비	· 약 390억 원 · 민자
건폐율	· 12.29%(법정 40%)
건축규모	· 갯벌생태전시관(신안군) : 4,120㎡ · 숙박시설 : 15,350㎡ · 근린생활시설 : 3,839㎡ · 전망대공원 : 3,466㎡/ 야외테마공원:5,686㎡
주요시설	· 총 객실(19동 108실) : 룡비치빌라,오션클리프빌라, 비치프론트빌라, 썬셋빌라 · 골든베이 : 오션스파랜드, 로비라운지, 비즈니스센터, 엘도마켓, 노래방 · 골든힐 : 바다전망카페, 골드레인광장, 난조전망데크, 야외오프 · 골든비치 : 비치바베큐, 야외테라스, 연회장, 노래방, 세미나실

❶ 도서지역 민간투자 사례 2 : 충남 당진 도비도·난지도

- 충남당진 도비도·난지도는 1998년 농어촌공사가 약 10만㎡ 규모의 관광휴양단지를 개발 및 운영한 곳이었으나 2015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결국 농어촌휴양단지 지정 취소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옴
- 그러나 최근 당진시는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민간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스포츠 및 휴양문화융복합 특구의 계획 수립한 민간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바 있어 향후 본 대상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이 예상됨
 - 구체적으로 당진시와 농어촌공사는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본 협약을 계기로 대상지에 대한 관광채류 목적지로의 실질적 민간투자 개발 움직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최근 당진시, 보령시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의 민간관광투자가 활발해지고 코로나 19이후 내수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특히 해양관광명소에 대한 니즈와 해수부 등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개발추세가 주목을 받으며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사업의 경쟁적 개발 분위기 형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덕적자월 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공공 뿐만아니라 다양한 민간투자유치 등 개발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됨

❶ 도서지역 민간투자 사례 3 :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

- 코오롱글로벌이 개발 및 운영중인 울릉도 대표 리조트로 설계 당시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으로 독특한 건축콘셉트와 디자인으로 화제가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운영 활성화에 따라 최근 객실을 확장운영 중임
- 본 사례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고급화 전략의 성공으로 입지적 약점과 소규모 객실에도 평균 가동율 70%이상 달성하는 등 도서지역의 대표적 리조트 개발사례로 유명함

<표 5-63>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 개발 및 운영현황

구분	주요 내용
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추산길 88-13
개장	· 2017년 10월 오픈, 2018년 세계3대 디자인 어워즈 IDEA환경부문 은상 수상
건축콘셉트 및 주요시설	· 개발초기 세계의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힐링스테이로 컨셉목표 설정 · 빌라코스모스, 빌라 쏜메(5실), 빌라떼레(3실)/사전예약제, 프라이빗 럭셔리타깃 - 울라(ULLA) IP개발, 코스모스리조트개발, 울릉(저동)여행자센터(2022년) · 2021년 코오롱글로벌, 한국관광공사, 울릉군 MOU체결 등 지역주민일자리우선채용 등

바. 주요 시사점 및 투자유치 방안

❶ 개발 및 잠재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 적극추진

- 본 덕적·자월군도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굴업도 소유법인인 CJ그룹을 포함하여 인천 및 서울 수도권 등 지역 연고의 중소규모 잠재투자자에 대한 지속적인 물색과 단계적 민간 투자 참여유도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함
- 이때 덕적·자월 군도에 대한 종합 개발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설명회의 지속 참여를 실행하고 잠재투자자 입장에서 토지확보, 도로 및 인프라 등 교통망 개선, 행정추진사항 등 민간투자자 수요 맞춤형 제공 서비스 및 인센티브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해 중장기적으로라도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 나감

❷ 선미테마 아일랜드 연계 민간투자 타진

- 가장 최근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선미도의 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2단계 사업으로서 본 덕적·자월군도의 후속 사업을 구체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선미 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는 2024년 9월 문체부 관광단지로 지정 후 현재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어 본 사업의 성공이 추후 덕적·자월군도의 민간투자유치의 핵심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선미 테마아일랜드 사업과 내용 및 기능적으로 연계시너지가 가능한 부문으로의 맞춤형 민간투자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공공부문에서 각종 기초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

❸ 공사 및 공기업 주도 직접 개발사업 시행추진 및 민간제안 공모사업 추진

- 본 대상지의 투자실행을 위한 대안으로 인천도시공사 등 지역의 공기업주도의 직접 개발사업 시행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공기업이 주도하고 이와 동시에 일부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해 개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음
- 투자유치에 대한 마지막 대안으로 사업초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천시 등 공공에서 부지매입 후 한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최근 도서 및 해양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지속증가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군도의 부속섬을 대상으로라도 민간 투자개발추진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5.3 먼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개념적·공간적 범위

-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에 따른 우리나라 국토외곽 먼섬은 2025년 현재 총 43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법에 의해 국토외곽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의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9개 섬이 추가되어 현재 총 43개로 확정됨
- 국토외곽 먼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유인섬으로 ①영해기점 직선기선에 해당 ②육지에서 50km 이상 이격 ③섬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 등 세부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념적 범위는 최외곽에 위치하는 유인도서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 지속을 위한 배후지원 및 육지와와의 접근을 위한 거점 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섬을 의미함
-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정이유는 먼섬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지원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실행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최대 80%까지 지원됨

<표 5-64> 지자체별 국토외곽 먼섬 지정현황(2025)

시도	시군	섬 명칭
인천광역시(5)	옹진군(5)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충청남도(1)	보령시(1)	· 황도
전북특별자치도(3)	군산시(1)	· 어청도
	부안군(2)	·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라남도(25)	여수시(3)	· 거문도(동도, 서도)
	영광군(4)	· 횡도, 안마도, 대석만도, 죽도
	완도군(1)	· 여서도
	진도군(6)	·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맹골도, 죽도(조도), 곶도
	신안군(11)	·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다물도
경상북도(3)	울릉군(3)	· 울릉도, 죽도, 독도
제주특별자치도(6)	제주시(4)	·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서귀포시(2)	· 가파도, 마라도

자료 : 국토외곽 먼섬지정현황(2025. 2. 13 행정안전부)

나. 덕적·자월군도 먼섬 지정을 위한 대응방안

🔍 국토외곽 먼섬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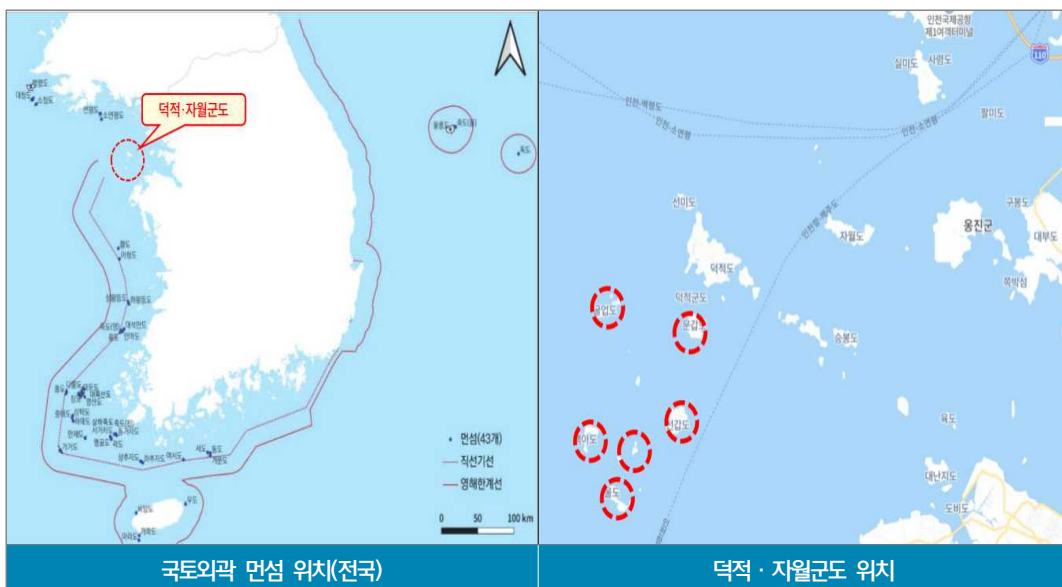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5)」의 국토외곽 먼섬의 세부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마지막으로 항로거리의 섬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구분됨

- 마지막 섬 접근성에 대한 세부 기준내용은 다시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첫째 육지까지의 항로의 최단거리가 50km 이상인 섬은 이 기준과 더불어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 이어야 함
- 그러나 덕적·자월군도의 세부 공간적 범위현황은 대한민국 본토기준 육지에서 거리 50km 이내, 직선기선 10km 이상 이격되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25년 현재시점 기준으로 정기노선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또한 기준에 불충족해 국토외곽 먼섬에 해당하지 않음

<표 5-65> 국토외곽 먼섬 세부지정에 따른 지정섬 현황(2025)

구분		먼섬	비고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7개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7개	-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 육지까지 항로의 최단거리가 50km 이상인 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6개	-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없는 섬 (해운법 제1조제1호의2)	2개	항도,죽도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섬 (단,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	1개	하왕등도 (부안)

[그림 5-73]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및 덕적·자월군도 위치



❶ 덕적·자월군도 먼섬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안 변경요청

-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및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한 결과 덕적·자월군도는 현 기준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행안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검토 결과 현 기준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정기준에 따라 먼섬에 대한 추가지정은 기준에 부합하면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관련 법령 먼섬 지정기준의 섬 접근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중 육지까지 항로 최단거리가 50km 이상인 섬 기준조건에 의한 추가지정을 지속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세부기준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인 기준에도 부합이 되어야 하나 본 세부지정기준을 육지까지의 항로거리 최단 거리가 50km 이상 또는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로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기준에 따르면 덕적·자월군도 및 웅진군 부속섬은 먼섬 지정에서 지속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서해도서의 경우 직선기선의 최북단 기점섬이 소령도 까지만으로 되어 있어 덕적자월군도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정무적, 정책적으로 지속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남해지역 도서지역의 경우 본토 및 중거점 섬과의 교량건설을 통한 연육화가 지속되는 추세이나 본 대상지의 경우 웅진군에서의 자월군도 간 연결화(연도·연육) 및 가능성 등이 낮아 먼섬 지정에 지속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통한 먼 섬 추가지정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화계획

1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사업추진계획

1.1 기본방향

●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본 계획의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 추진되며 사업목적 및 세부 계획에 맞추어 기반조성 및 시설(H/W) 개선, 콘텐츠(S/W) 개발 및 운영 등 다각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음
- 또한 기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투자비 규모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구체화 하여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실행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사업추진 효율성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로드맵 제시

- 덕적·자월군도는 전 도서의 시립공원화를 통해 향후 해상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을 추진함. 이에 해상시립공원 지정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하고 이를 기점으로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특히 단일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선행 및 후속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이를 위해 5년간 연차별·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사업별 추진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기별 실행·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덕적·자월권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및 활성화를 가능케 함

●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운영주체 설정

-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사업은 단일 기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복되거나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음
- 운영주체는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하되 공공은 제도적·재정적 기반조성, 민간은 투자와 콘텐츠 운영, 지역주민은 참여와 수익 공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배분함. 이러한 기본방향은 행정·민간·지역사회가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2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단계 설정

- 덕적·자월군도의 특화발전사업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 초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인지도 제고를 통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에는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며 장기에는 운영과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순차적 접근이 요구됨
-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추진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되고 초기(2026~2027년), 중기(2028~2029년), 장기(2030년 이후)로 구분됨. 단계별로 사업기간이 상이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초기에 주로 진행, 하드웨어 사업은 중기부터 종료 시까지 진행됨

<표 6-1> 단계별 기본방향 및 목표

구분	기본방향	목표
초기단계 (2026~2027년)	· 섬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시립공원 지정 추진	· 섬 관광인지도 확대 · 초기 수요 창출 · 해상국립공원 지정 기반 조성
중기단계 (2028~2029년)	· 여객터미널/신규 관광지 조성 · 주요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 접근성 강화(교통체계 개선)	· 관광 편의성 제고 ·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단계 (2030년 이후)	· 관광지 콘텐츠 운영 정상화 · 관광상품 개발 상용화 · 섬 엑스포 추진 대비	· 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착 · 국제행사 대응 역량 확보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단계별 로드맵

- 초기단계(2026~2027년)에는 해상시립공원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향후 해상국립공원 지정의 제도적 기반과 지역발전의 핵심 토대를 마련함. 이와 동시에 섬 관광인지를 높이기 위해 브랜딩 및 홍보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덕적·자월군도의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확립하고 관광객 관심과 초기 방문수요 창출에 주력함
- 중기단계(2028~2029년)에는 관광객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함. 여객터미널 조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성을 높임. 이때 대규모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며 민자유치 및 관련 교부세를 받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임
- 장기단계(2030년부터)에는 초기에 개발한 관광콘텐츠, 관광상품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함. 향후 섬 엑스포 추진에 대비하여 국제적 규모의 관광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인프라와 콘텐츠가 결합된 종합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킴

[그림 6-1] 단계별 로드맵

구분	2025	초기단계			중기단계			장기단계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Global Top10 CityINCHEON	포항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	특허권 취득인수권 섬터마리활성화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덕지의 섬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덕지콘텐츠활용 개발비 지원사업	콘텐츠 활용 사업 전개	관광브랜드 통합을 모아 체험 사업 전개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시립공원 지정		국립공원 지정 준비				국립공원 지정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기반조성 및 인식 확산(1단계)	섬엑스포 유치(2차) 편 조성(물리적 기반)	국제승인 및 운영 계획 수립(2단계)			섬엑스포 추진(3단계)
	덕지도 서해교를 거점(모형)화 사업			연안야생화길 조성		연안크루즈조항지 조성			
대표 볼거리가 있는 관광도시 만들기 과제	덕지도 복합해양관광센터 조성사업			복합해양관광센터 조성/해양관광프로그램 개발		연안크루즈상품개발	도시인·모형 연도교 조성		
	북리리조트 조성사업			해수욕장 조성					
	대덕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북리마비나 조성		보통성리조트 조성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관정상품개발	관정상품 개발 운영	관정상품 다각화	관정상품 정기 운영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덕지도 최북도 신북마를 조성사업			서포라마을 일원 대미하	진리문소 주변 경관 개선				
	샘터섬, 소아 포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해변경관 정비	해빙문 조성				
	문강도 블루힐리지 조성사업			문강마을 원주민개발	채정문소개발 운영				
	문강도 파이어홀데미마을 조성사업			해상잔잔로 조성	아름다운마을 조성/아름다운 프로그램 기획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해적섬 스토리화 개발 조성					
	승봉도 파스텔기든 조성사업			비상와정원 조성/스토리텔링을 콘텐츠 개발	콘텐츠 운영				
	섬마을을바라본 조성 및 활성화사업			덕영도	덕영 지평선 야외도서	덕영 지평선 야외도서	문강도		
	1섬 1테마 갖기 사업			1섬 1테마 활동	12월 섬마을 축제 개발				
장제적 검토사업	섬식당 프로젝트 : 덕지의 식당			자평도 사범 조성	27개소(문강도, 소이정도)	27개소(덕이도, 대미리도)	27개소(문도, 지도)		
	IWalk 프로그램 활성화			트래킹 관광수용대기시설 민생물 운영					
	덕지마일리지 On 사업			바다버스 제도권 정비	마일리지 사업 개발	마일리지 사업 운영			

1.3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 본 계획의 특화발전전략 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각 기관(조직)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계·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덕적·자월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이장단, 마을협의회, 어촌계 등 마을단위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추후 본격적인 관광사업 및 추진을 위해 주민협동조합, 지역관광협의체(DMO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표 6-2>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구분	주체	역할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1.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계획 및 실행
	1.2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인천광역시	계획 및 실행
	1.3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인천광역시	계획 및 실행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2.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인천광역시	민간투자 유치
		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2.2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공모사업 추진
		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2.3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옹진군	사업 관리·감독
		민간(기업)	시설 조성 및 운영
	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옹진군	상품 개발
	2.5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민간(주민)	상품 운영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과 과제	3.1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인천광역시/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천주교 인천교구	투자 및 사업화
	3.2 썸인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3.3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옹진군	시설 조성
		민간(주민)	시설 운영
	3.4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옹진군	시설 조성
		민간(주민)	프로그램 운영
	3.5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3.6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옹진군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4.1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옹진군	부지확보 및 시설 조성
		민간(주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4.2 1섬 1테마 갖기 사업	옹진군	축제 개발 및 개최
	4.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인천광역시/옹진군	리모델링 및 사업자 지원
		민간(주민/외지인)	시설 운영
	4.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옹진군	시설 개·보수
정책적 검토사업	5.1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인천광역시	모니터링단 및 사업 운영
	5.2 실질적 민자유치사업(제안)	인천광역시	민간기업 협의
	5.3 면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법률 개정안 제시

2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투자계획

2.1 총투자비

-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총투자비는 약 3,221억 원으로 계획하며 전략별로는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279,570백만 원(86.8%),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38,079백만 원(11.8%),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2,350백만 원(0.7%) 순으로 계획함
- 단위사업별 투자비 비중을 살펴보면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이 50.5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29.49%)〉,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7.45%)〉 등 하드웨어 사업이 포함된 단위사업에 투자비 소요가 많은 것으로 계획됨
- 또한 본 계획상 실질적 민자유치사업(제안), 먼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등 2개의 정책적 검토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업기간 내 실행가능성, 전략별 계획 선행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비는 제외함

〈표 6-3〉 총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분		사업비	비율
콘텐츠 중심의 관광 Boom 조성 과제	1.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300	0.09
	1.2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150	0.05
	1.3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1,900	0.59
대표 볼거리 있는 관광도서 만들기 과제	2.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162,750	50.51
	2.2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9,530	2.96
	2.3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95,000	29.49
	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12,090	3.75
	2.5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200	0.06
섬 스토리를 활용한 특성화 과제	3.1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1,477	0.46
	3.2 썸인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1,500	0.47
	3.3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4,220	1.31
	3.4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24,000	7.45
	3.5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5,500	1.71
	3.6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1,400	0.43
지역성 반영을 위한 테마화 사업	4.1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200	0.06
	4.2 1섬 1테마 갖기 사업	220	0.07
	4.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1,050	0.33
	4.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300	0.09
정책적 검토사업	5.1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400	0.12
	5.2 실질적 민자유치사업(제안)	-	-
	5.3 먼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	-
합계		322,187	100.0

2.2 연차별 투자비

- 연차별 사업비 추정결과 사업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브랜딩, 홍보·마케팅 등이 집중되는 2026~2027년에는 총사업비의 24.09%에 해당하는 77,603백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됨. 2028~2029년에는 본격적인 시설조성 단계로 전체 사업비의 약 62.87%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원소요가 가장 높은 시기임
- 사업 종료시점인 2030년에는 대부분 시설이 준공되어 공사비 투입 비중은 감소하나 프로그램 및 상품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이 소요되며 약 42,036백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사업 성격상 장기 운영·관리 또는 후속 활성화가 요구되는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비 확보가 요구됨

<표 6-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1.1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사업	150	150	-	-	-	300
1.2 해양시립공원 지정사업	-	150	-	-	-	150
1.3 인천 섬 엑스포 추진사업	-	380	380	570	570	1,900
2.1 덕적도 서해교통 거점(모항)화 사업	16,275	32,550	65,100	24,413	24,413	162,750
2.2 덕적도 복합해양힐링센터 조성사업	-	2,859	4,765	1,906	-	9,530
2.3 북리 리조트 조성사업	-	19,000	38,000	28,500	9,500	95,000
2.4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	-	3,627	6,045	2,418	12,090
2.5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	50	50	50	50	200
3.1 덕적도 최분도신부 마을 조성사업	-	591	886	-	-	1,477
3.2 썸in섬, 소야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	600	900	-	-	1,500
3.3 문갑도 블루빌리지 조성사업	-	1,688	2,532	-	-	4,220
3.4 문갑도 파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	-	7,200	12,000	4,800	24,000
3.5 소이작 해적섬 테마파크 조성사업	-	1,650	2,750	1,100	-	5,500
3.6 승봉도 비상의 정원 조성사업	-	420	700	280	-	1,400
4.1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0	-	75	-	75	200
4.2 1섬 1테마 갖기 사업	110	110	-	-	-	220
4.3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210	210	210	210	210	1,050
4.4 I Walk 프로그램 활성화	75	75	75	75	-	300
5.1 덕자 마일리지 On 사업	100	150	150	-	-	400
5.2 실질적 민자유치사업(제안)	-	-	-	-	-	-
5.3 먼섬지원 특별법 개선방안	-	-	-	-	-	-
합계	16,970	60,633	127,400	75,149	42,036	322,187
구성비	5.27	18.82	39.54	23.32	13.05	100.00

3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재원조달방안

3.1 공공재원 조달방안

-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3,221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재원 중심의 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포함한 공공 주도형 재원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관광지 조성,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 단계부터 공공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전략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가. 공공재원

- 공공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공공자금으로 구분되며 그중 관광개발 관련 투자 재원은 자체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지방보조금 등), 공채 재원(지방채) 등으로 구분됨
-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환경, 문화관광, 농림수산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이 주를 이루며 이에 지자체 관광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임.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법령상 기준에 의거하여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됨
- 또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의미함

<표 6-5> 공공재원 종류

구분		주요 내용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 · 국고보조금은 순수한 국가재원을 교부 받은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사업별 기준 보조율 (관광 관련)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50%)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50%) · 관광자원 개발 (50% - 용지 매입비 제외) ·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50%)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50%) · 국가지원문화재 보수·정비 (70%)

<표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지방교부세	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그 재정을 조정하여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
	사업별 기준 보조율 (관광 관련)	· 일정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음.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 · 시책사업수요 : 특별교부세에서 국가적 장려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 재정보존수요 : 국가행사 또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 지역개발수요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 특정현안수요 : 지방 공공시설 신설·복구·확장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지방보조금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목적	· 정책상 필요사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대상 재정 보조
	사업별 기준 보조율 (관광 관련)	· 관광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비 보조 · 민간 또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에 위탁한 공공 관광서비스 사업비 · 민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관광진흥 관련 사업 및 활동

나. 공적자금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자금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으며 각 기금의 지원 목적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본 계획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크며 기금을 통해 추가 재원확보가 가능함

<표 6-6> 공적자금 종류

구분		주요 내용
관광진흥 개발기금	근거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용도	·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기금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용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국가 기금 ·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민속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에 사용 ·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다. 국고보조사업

- 중앙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원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가장 많은 예산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2025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기반으로 연계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함
- 향후 사업 추가 실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추가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6-7> 국고보조사업 종류

구분	주요 내용	매칭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 장기체류형 생활관광 및 지역 여행 콘텐츠 개발 지원 -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당 100백만 원 지원(국비 50%)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 · 노후·유휴공간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정책 추진 및 지역 역량 제고 · 5년간 10,000백만 원 지원(단계별 사업 추진)	-
	문화관광 축제 지원 · 친환경 축제장 조성, 디지털 축제 콘텐츠 개발 등 · 축제당 150백만 원 지원 · 문화관광축제(현행 또는 종료) 대상 선정	1섬 1테마 갖기 사업 (12달 축제)
	아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안전한 아영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총 4개 분야 공모(지방비 50% 또는 60% 부담) - 아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아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아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 인프라 구축	섬in섬, 소아 보사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 · 위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국비 50%) · 시설조성 : 750백만 원(개소당 150백만 원) · 운영지원 : 1,190백만 원(개소당 170백만 원)	대e작도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 여행코스 조성 · 종교문화자원을 활용 및 연계한 순례,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인력양성, 안내해설 등 지원 · 1개 사업당 최대 1억원(국비 50%)	덕적도 최분도 신부 마을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자원 기반 수익사업 운영 지원 · 최대 2년간 100백만 원(마을기업 자부담율 20%)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 필수	섬식당 프로젝트 : 덕자의 식당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지원사업 · 중심 마을 및 로컬자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 1년 차 특별교부세 300백만 원 지원 - 2년차 사업비 추가 지원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가치재발견 · 무인도서에 대한 교육·홍보·체험 행사 등을 통해 무인도서 인식개선 및 가치 재발견 · 민간경상보조금 300백만원 예산 지원 등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사업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 연안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양레저관광거점 지정 · 지원예산 미정(국비 50%) · 2023년 사업 중단 후 2025년 재개 예정	덕적도 복합해양힐링 센터 조성사업

3.2 민간자원 조달방안

- 일반적으로 관광사업 부문은 투자규모 대비 단기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특성상 민간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은 편임.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선행하여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 관리운영 조직 체계화 등을 추진한 이후 시범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함
 - 고성군 자란도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협력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음. 이는 공공재원을 통한 선투자가 관광개발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함
- 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수요자인 민간 투자자 풀(pool) 구축, 요구도 조사 등을 통해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자 니즈를 파악하고 적정 입지·토지 용이성, 도로 등 기반 구축 인허가 용이성 등을 제고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함
-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투자방식의 유연함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유치 수단을 검토해야 함. 민간유치 사업방식은 BOT, BTO, BOO, BTL 등의 방식이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의 경우 PF(Project Financing)나 조세 담보금융(TIF : Tax lincrement Financing)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표 6-8> 민간투자 유치방식

구분	주요 내용
BOT (Build-Operate-Transfer)	· 시설을 건설(Build)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운영(Operate)한 후 지자체에 시설을 이양(Transfer)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프로젝트 시설을 운영하고 적정이윤을 포함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법률적·상업적 조건을 유지하면서 운영기간 동안 예상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함
BTO (Build-Transfer- Operate)	·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양(Transfer)하되 일정기간 운영(Operate)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방식 ·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형태로 국내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BOO (Build-Own-Operate)	·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그 소유권(Own)과 관리·운영권(Operate)을 모두 갖는 방식 · 지자체는 타당성 검토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을 감독하는 역할만 함
BTL (Build-Transfer-Lease)	·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제시하면 민간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용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지자체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 · 이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건축하고 지자체가 임대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위한

자료 : 인천광역시(2022), 섬 종합분석을 통한 섬발전기본계획

4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결론 및 제언

4.1 파급효과

가. 경제적 파급효과

- 〈덕적·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 추진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개발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2025년 발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부문별 유발계수를 활용함
 -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경제 단위로 구분하여 지역간 이·출입과 지역별 산업구조를 반영한 투입산출표임. 이는 지역 및 산업간 의존관계 분석에 유용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공간적 범위는 덕적·자월군도가 속한 인천광역시 내부와 외부(타지역)으로 구분함. 또한 소비지출에 의한 부문별 유발계수를 바탕으로 목표연도 유입 관광객 수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파급효과를 추가 분석함
 - 각 부문의 유발계수는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 산출 규모를 의미함. 그러나 이 중 취업유발계수는 수요를 10억 단위로 계상하여 유발되는 산출규모를 구함
- 본 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의 총사업비 322,187백만 원을 적용하여 인천광역시 내·외부의 투자 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 582,514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7,427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 3,093명으로 나타남

〈표 6-9〉 부문별 유발계수

구분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유발계수
인천광역시 내부	0.847	0.389	4.8
인천광역시 외부	0.961	0.410	4.8
합계	1.807	0.799	9.6

자료 :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2025), 한국은행

〈표 6-10〉 인천광역시 내·외부 투자 유발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인천광역시 내부	272,892	125,331	1,546
인천광역시 외부	309,622	132,097	1,546
합계	582,514	257,427	3,093

주) 취업유발효과는 1명/10억 기준

나. 사회적 파급효과

❶ 도서관광 이미지 및 인지도 강화

- 본 계획을 통해 덕적·자월군도 내 자연경관, 해양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권역 단위의 통합 브랜드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섬 관광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1섬 1테마 갖기, 덕자의 섬 관광브랜드 개발, 해양시립공원 지정, 인천 섬 엑스포 추진 등은 차별화된 섬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연계된 글로벌 섬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❷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섬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 덕적·자월군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교통 접근성과 관광편의시설이 제한적으로 관광객이 장시간 체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짐. 본 계획에서는 서해교통 거점 조성, 복합해양힐링 센터 구축, 리조트 개발 등 주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숙박시설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편의시설 개선을 병행하여 섬 관광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음
- 또한 섬식당, 섬마을박물관 등 생활밀착형 관광환경이 단계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객부터 MZ세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수요층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이는 단기체류 중심의 관광패턴을 벗어나 체류형·참여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킴

❸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섬 무인화 대응

- 보사노바 문화마을, 해적섬 테마파크, 무인도서 관광상품화 등 체험테마형 사업은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및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함.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방문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과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마일리지 사업, 전략적 위케이션 사업 등은 주민과 관광객 간 장기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로 발전을 도모하여 도서지역이 직면한 무인화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❹ 관광에 대한 지역민 관심 증대 및 신규 소득원 창출

- 파시 어촌테마마을, 블루빌리지 조성 등은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킴
- 이에 더해 실질적 민자유치, 먼섬지원 특별법 개선안 등 정책적 지원과 결합될 경우 관광수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음

4.2 결론 및 제언

⊗ 글로벌 TOP 10 실현을 위한 신속한 후속사업 전개

- 본 계획은 덕적·자월군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도서관광의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다만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후속 실행 과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덕적·자월권 사업 추진을 전담할 TF팀 구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조직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섬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 실천계획 마련

- 덕적·자월군도는 해상교통 제약, 생활편의시설 부족이라는 도서지역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관광활성화 사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장기적 과제임. 따라서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장기적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리뉴얼, 항로 다양화·직선화, 광역 접근성 강화와 같은 대규모 해상교통 전략이 전제로 인천과 서해 도서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전방위적 교통체계 구축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야 함. 이러한 장기적 실천계획은 단순히 개별 섬 관광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서해 도서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해양관광권 형성, 균형 발전으로 이어져 인천시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현재 중단된 굴업도, 선미도의 민간사업이 재개된다면 이는 향후 도서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민간이 참여하기 용이한 제도적·재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함. 특히 관광 기반이 미흡한 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프라 조성 및 각종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공공이 선도적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계획에서 제시한 연도교 조성사업은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보다 다각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참여연구진

(주)플랜이슈

김진성 대표
고석면 소장
이형백 대리
김현빈 사원

박서희 이사
조성학 실장
조수민 대리

이소연 이사
강동민 팀장
남유진 주임

발행일 : 2025년 8월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2층
홈페이지 : www.planissue.com
연구수행기관 : (주)플랜이슈

인천의 ⁷⁷꿈*
대한민국의 미래

